제5회

환황해포럼

5th Pan-Yellow Sea Forum

결과보고서

2019.10.31.~11.1.

롯데리조트 부여

주최 | 충청남도 주관 | 한반도평화포럼 Korea Peace Forum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후원 | 외교부

제5회

환황해포럼

5th Pan-Yellow Sea Forum

결과보고서

2019.10.31.~11.1.

롯데리조트 부여

주최 | 충청남도 주관 | 한반도평화포럼 Korea Peace Forum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후원 | 외교부

제5회 환황해포럼

5th Pan-Yellow Sea Forum

Ⅰ. 포럼개요 07

1. 기본개요 08
2. 추진체계 및 일정 11

Ⅱ. 세부 행사 내용 15

1. 개회식 16
2. 특별세션 27
3. 본세션 33

Ⅱ. 행사사진 57

[별첨] 1. 참가자 리스트 67
[별첨] 2. 주요 기사 리스트 76
[별첨] 3. 제작물 리스트 158

Ⅰ

포럼개요

제5회 환황해포럼

5th Pan-Yellow Sea Forum

Ⅰ. 포럼개요

1. 기본 개요

1. 기본개요

· 일　　시　2019년 10월 31일 (목) ~ 11월 1일 (금)

· 장　　소　롯데 리조트 부여

· 주　　제　**환황해! 인류 공생을 위한 우리 모두의 공간**
- 평화 역사문화공동체로서의 환황해 지역협력
- 번영 : 저출산 · 고령화 대책 및 국제일자리(청장년 창업 · 취업) 활성화
- 공생 : 지자체 간 대기환경 / 해양오염 개선 협력

· 주　　최　충청남도

· 주　　관　(사)한반도 평화포럼, 충남연구원

· 후　　원　외교부

· 공식 이메일　pysf2019@gmail.com

· 주 요 행 사
- 특별 세션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남북교류 협력의 길을 묻는다)
- 평화 : 역사문화공동체로서의 환황해 지역협력
- 번영 : 저출산 · 고령화 대책 및 국제일자리(청장년 창업 · 취업) 활성화
- 공생 : 지자체 간 대기환경 / 해양오염 개선 협력

2. 프로그램

2019년 10월 30일 (수)		
-17:50	입국 및 도착	
18:00-19:30	환영만찬	달솔룸

2019년 10월 31일 (목)			
09:00-09:30	등록		1F 로비
09:30-10:10	개회식 & 기조연설		사비홀 A&B
	개회사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축사	**유병국** 충청남도의회 의장 **서호** 통일부 차관 **팡쿤** 주한 중국대사관 정무담당 공사참사관	
	환영사	**박정현** 충청남도 부여군수	
	기조연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10:10-11:40	**특별 세션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남북교류 협력의 길을 묻는다)**		
	좌장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발제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장사오밍**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 교수 **스즈키 다쓰지로** 나가사키대학 핵무기폐기연구센터 부센터장	
	토론	**김수한**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류밍** 상해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주임 **기타하라마모루** 후쿠오카현일조우호협회 방북단장	
11:40-13:00	점심		본디마슬 레스토랑
13:00-15:00	**평화 : 역사문화공동체로서의 환황해 지역협력**		사비홀 A
	좌장	**윤황** 충남연구원장	
	발제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 **류바오취엔** 산동대학교 동북아학원 교수 **안도 준코** 후쿠오카대학 동아시아지역언어학과 준교수	
	토론	**김정섭** 공주시장 **왕샤오링** 중국사회과학원 글로벌전략연구원 부연구원 **서정경**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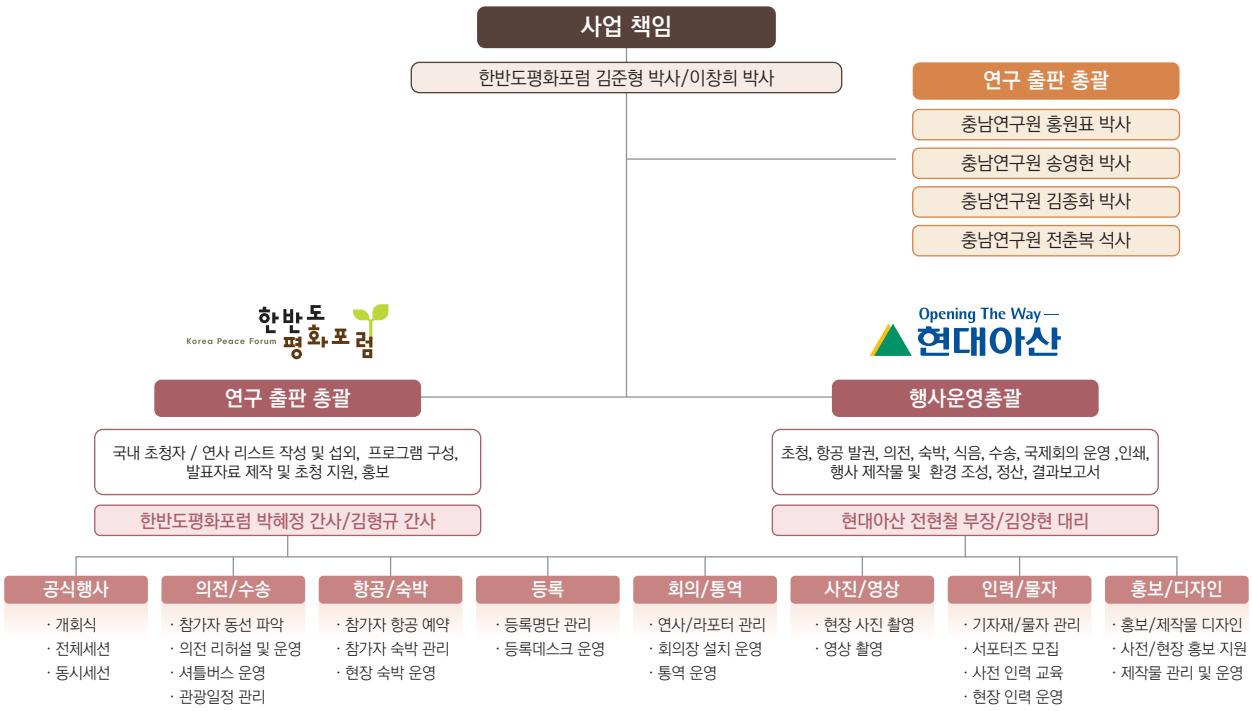
13:00-15:00	**번영 :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국제일자리(청장년 창업, 취업) 활성화**		
	좌장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	**이덕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관리신**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유통소비연구소 부소장 **요코야마 겐지** 리쓰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 부학장	
	토론	**전향란** 중국 천진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소장 **남수중**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홍원표**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15:00-15:30	휴식		1F 로비
15:30-17:30	**공생1 : 지자체간 대기환경 개선 협력**		사비홀 A
	좌장	**이수훈** 전 주일대사, 경남대학교 교수	
	발제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북한환경정보센터 센터장, 선임연구위원 **다와자르갈** 울란바트로시 대기오염 절감 부서 팀장 **하야시 가즈미치** 기타규슈시 일중대기오염대책 담당	
	토론	**정연앙** 충남연구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소장 **원동욱** 동아대학교 중국일본학부 교수 **김남춘** 단국대학교 녹지조경학과 교수	
15:30-17:30	**공생 2 : 지자체간 해양오염 개선 협력**		
	좌장	**허재영** 충남도립대학교 총장	
	발제	**김지운**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승훈** 닝보대학교 석좌교수, 동하이연구소 연구원 **이소베 아쓰히코** 규슈대학 대기해양환경연구센터 교수	
	토론	**가세로** 태안군수 **박창호** 세한대학교 기획처장, 교수 **강경심** 공주대학교 외식상품학전공 교수	

2019년 10월 30일 (수)

09:00-12:00	도내 문화유적지 관람	
12:00-13:00	환송오찬	본디마슬 레스토랑
13:00	이동 및 출국	

2. 추진체계 및 일정

1. 추진 체계



2. 추진 일정

구분		7~8월	9월	10월	11~12월
1. 기획 총괄	계획수립				
	프로그램 협의 및 확정	●			
	대회 로고 확정	●			
	기본계획 수립	●			
	세부실행계획 수립/조정		●		
	운영매뉴얼/체크리스트 작성			●	
	재정				
	예산편성/확정	●			
	행사경비 집행			●	
	정산/사후 원가 계산 의뢰				●

구분		7~8월	9월	10월	11~12월
1. 기획 총괄	계약				
	대행사 선정 · 계약체결	●			
	대회장/ 숙소 결정 계약	●			
	협력업체 섭외/선정		●		
	관련기관 협조 요청				
	후원기관 섭외/업무 협의			●	
	현장사무국 총괄운영			●	
	결과보고서 발간				●
2. 초청 등록	연사초청 업무				
	초청 연사 선정/지원 기준 확정	●			
	대체 연사 섭외/확정		●		
	연사 초청장 발송	●			
	연사자료 요청 · 취합		●		
	항공권 발권		●		
	등록 업무				
	참가기준 수립/확정	●			
	참가신청서 제작	●			
	참가자 접수/안내			●	
	추가 참가자 접수(대기자 순)			●	
	초청 업무				
	초청 범위/대상 선정/지원 기준 확정			●	
	초청장 발송 및 접수			●	
	초청자 확정 / 추가 초청자 섭외			●	
3. 영접 수송	영접				
	공항 영접 및 안내데스크 운영			●	
	이동 계획수립			●	
	영접인원 교육			●	
	수송 계획수립				
	현지 이동 방안마련		●		
	차량 섭외/신청				
	현지 셔틀버스 협력사 선정		●		
	탑승 안내/ 행사장 이동				
	교통편 안내			●	
	현지 셔틀 운영			●	

구분		7~8월	9월	10월	11~12월
4. 대회 운영	운영계획				
	운영 계획 수립/확정		●		
	운영 인원 선발/교육		●	●	
	개회식/만찬				
	무대 /음향 조성 계획수립/확정			●	
	개회식/환영 만찬 시나리오 작성			●	
	주요 내빈 참석/축사/건배사 요청			●	
	세션				
	주제발표, 세션별 환경조성			●	
	기타 프로그램 환경조성			●	
	문화유적투어				
	참가자 선정/섭외	●			
	세부기획		●		
	부여군 협조 요청		●		
	동선 및 식사 등 예약 확인			●	
	현장 운영 인력 배치			●	
5. 홍보	본 대회 홍보				
	대회 홍보 계획수립		●		
	사전 인터뷰 진행 및 보도자료 배포			●	
	주요언론 취재 요청/ 현장 대응			●	
	제작물				
	대회 홍보리플릿/참가신청서		●	●	
	포스터 제작		●		
	초청장 제작 및 배포		●	●	
	발표자료집 취합/인쇄			●	
	기념품(가방, 볼펜) 선정 및 제작		●		
6. 숙박 식음	숙박				
	호텔, 소요객실 추정	●			
	주요인사 예우수준 결정		●		
	객실요금 협의 및 확정			●	
	일정 사용 객실수 파악(조정)			●	
	숙박 명단 작성 및 통보			●	
	식음				
	일자별 식음계획 수립		●		
	메뉴협의 및 개런티 확정		●		
	특이 식단자 취합/협의			●	

Ⅱ

세부 행사 내용

제5회 환황해포럼

5th Pan-Yellow Sea Forum

개회식

2019년 10월 31일 09:30-10:10
롯데리조트 부여 사비홀 A&B

개 회 사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축 사

유병국 충청남도의회 의장

서호 통일부 차관

팡쿤 주한 중국대사관 정무담당 공사참사관

환 영 사

박정현 충청남도 부여군수

기조 연 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개회사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도지사 양승조입니다.

아시아 평화공동체를 향한 행복한 여정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리에 함께해주진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특히 멀리 해외p서 이번 포럼을 위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도시 백제의 고도 충남 부여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다섯 번째 환황해 포럼을 개최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지난 5년간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꾸준히 머리를 맞대왔습니다. 그동안 국가외교는 더욱 복잡해졌고, 세계질서 변화의 속도는 보다 빨라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방정부와 민간의 영역에서 새로운 협력을 꾸준히 모색하고 공동사안을 함께 논의해 온 환황해 포럼이 보여준 성과는 적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5회 환황해 포럼이 지닌 값진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환황해! 인류 공생을 위한 우리 모두의 공간"입니다. 환황해의 미래에 세계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환황해 지역은 세계에서 냉전적 질서가 남아 있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경제는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지만 역내질서는 보다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며 위험과 도전이 함께 합니다. 환황해 지역이야 말로 밍류의 미래와 세계 평화의 바로미터가 되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중요하며, 지방정부와 민간 영역에서이 작은 논의들이 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포럼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환황해의 미래, 인류공생의 미래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평화, 번영, 공생으로 나누어진 세션을 통해 보다 진지한 논의와 성찰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환황해의 미래, 인류의 공생을 위해 귀한 시간 내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모두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II. 세부 행사 내용

축사

유병국 충청남도의회 의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정취가 아름다운 시월 하순에 「제5회 환황해 포럼」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 부여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2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평소 환황해권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오늘의 뜻깊은 행사를 마련하신, 양승조 충남도지사님을 비롯한 충남도청 · 충남연구원 · 한반도평화포럼 등 관계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 해주신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님, 팡쿤 주한 중국 공사님, 박정현 부여 군수님, 서호 통일부차관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들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환황해! 인류공생을 위한 우리 모두의 공간' 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오랜 기간 역사와 문화를 공유한 공동체로서 지역 협력 방안과 대기오염과 해양오염에 대한 대처 및 저출산 · 정치 · 경제적 이해관계가 엉키며 공동번영을 위한 노력이 큰 진전 없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동아시아 우호증진 방안을 모색하며,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을 고민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금융 · 기술 · 인프라 등 글로벌 경제의 심장부로 급부상한 환황해권 국가들은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미래를 열어나가야 하며, 분야별 강점과 보완점을 통해 상생과 동반 성장을 해야 합니다. 이번 환황해포럼은 환황해권 지자체들의 교류와 협력 및 충청남도의 국제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참가하신 분들의 연구와 토론, 관심이 환황해권의 평화와 번영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제5회 환황해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 하신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서호 통일부 차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분권'과 '협치'입니다. 이는 정부-지자체-민간이 협치 하에 상호의 장점을 공유하고 협력하면서 지속가능한 분권형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금년 7월 부산에서 통일부와 대한민국 시 · 도지사협의회 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식에서 통일부장관과 17개 광역지자체 시 · 도지사님께서 협약문에 직접 서명하셨습니다. 동 협약을 통해, 통일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일부는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남북교류협력 법령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 주체성 확립과 지원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지역별 특색에 맞는 남북 교류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충청남도는 공주 · 부여를 포함하는 백제문화권이자, 황해로 뻗어있는 교두보입니다. 그간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여 관련 역량을 잘 축적하고 다양한 남북교류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이러한 지정학적 장점과 한반도 평화, 번영에 의지가 금일 환황해포럼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구상들과 연계되어 충청남도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있어서 중심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통일부토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금일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 분들이 참석하신 만큼, 생산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 충청남도가 환황해권의 중심으로 나아가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II. 세부 행사 내용

축사

팡쿤 주한 중국대사관 정무담당 공사참사관) / 추궈홍 주한중국대사 축사 대독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신사숙녀 여러분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에 제5회 환황해 포럼이 역사와 문화의 도시로 유명한 부여에서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주한 중국대사관을 대표하여 이번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사를 주최하신 충청남도에 높은 찬사를 보내며, 포럼을 준비하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각계인사들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중국은 환황해 국가로, 환황해 지역의 발전과 대외 교류 협력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며 "환황해 경제권"을 동북아 국가들과 소지역 협력을 펼치는 주요 무대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환황해 협력이 지속적으로 심화 발전하면서 중국은 한국, 일본을 포함한 해당 지역 국가들과의 산업 연계를 점진적으로 실현하고 있고 더욱 긴밀한 분업 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상호 협력의 규모와 질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우어 강한 활력과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해 양안에 위치해 있는 중한 양국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 가까운 이웃 국가로 우호 왕래의 역사가 유구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황해는 중한 양국 공동의 해상 관문이며 양국 왕래의 중요한 해상 통로이기다 합니다. 교통과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에 황해는 중한 경제무역 관련 왕래와 교류협력을 위한 해상교량이자 연결고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양국 국민들에게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주길 희망합니다.

중국은 평화적인 발전의 길을 견지하며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상의하고 함께 건설하고 함께 향유하는 글로벌 거버넌스관을 확고히 가지고 개방적인 태도로 건설해 나갈 것이며 각국 간 이익의 공통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일대일로" 국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는 중한 간 양자 교류, 그리고 각국이 환황해를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지역 및 소지역 협력을 진행하는데 절호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다 함께 노력해서 평화와 번영, 공생의 아시아평화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포럼의 주최 측과 포럼을 지지해주시는 각계 인사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포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환영사

유흥수 충청남도 부여 부군수 / 박정현 (충청남도 부여군수) 환영사 대독

안녕하십니까? 부여군수 박정현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내 · 외 귀빈여러분,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세계유산의 도시 부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황해! 인류공생을 위한 우리 모두의 공간 '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 제5회 환황해 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 뜻깊은 행사 준비를 위하여 애써주신 양승조 충청남도지사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일 부여는 백제의 수도였으며 세계역사도시입니다. 백제는 문화대국이자 해상강국이었고, 중국 영향을 받아 일본 아스카에 수준 높은 문화와 기술을 전해 주었습니다. 특히, 백제의 미학인 ' 검이불루 화이불치 '는 현재에도 한국인의 미학으로 자랑스럽게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당시 황해를 통해 활발한 교역과 문화교류를 추진했던 역사의 땅 여기 부여에서 한 · 중 · 일 전문가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뜻깊은 행사가 개최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환황해권의 경제교역 증가로 경제비중이 급속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류, 산업, 유통, 관광 등에서 지역 자원의 차별화된 특성을 활용한 미래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갈등과 경쟁이 아닌 지속적인 교류와 상호협력을 통해 동반성장하는 길을 모색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 포럼이 한 · 중 · 일 지방정부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소통의 장이 되고 나아가 우호협력을 통하여 아시아평화정착은 물론 상생과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는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II. 세부 행사 내용

기조연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제5회 환황해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환황해 포럼은 충청남도와 황해권의 발전과 미래 비전을 위한 매우 소중한 실천적 논의의 장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금년에도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환황해 포럼을 성대하게 마련해 주신 양승조 지사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충청남도 도민 분들에게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강연 주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환 황해권의 미래입니다. 우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면 한반도 평화는 참으로 롤러코스터와 같은 예측불허의 양상을 보여 왔습니다.

2017년은 정말 위기의 한 해였습니다. 그 한 해 동안 북한은 15차례의 중, 장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와 6차 핵 실험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의 도발도 문제였지만 미국의 대응 역시 크게 우려할 만했습니다.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넘어 예방전쟁, 선제타격, 그리고 코피 전략 등 실제적인 군사 행동 가능성까지 내 비쳤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분노와 화염'이 가시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일촉즉발의 한 해였습니다. 게다가 사드 배치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충돌은 한반도에 이들 간의 패권경쟁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제재는 우리를 매우 어렵게 했고 그 여파는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안보 문제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매우 위중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은 반전의 한 해였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가져온 평화의 지분이 새로운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2018년 4월 27일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 판문점선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고 6월 12일에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7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3차 방북이 실패로 끝나면서 한반도에는 한 때 난기류가 되살아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9.18-20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교착상태는 타개되고 한반도에는 비핵화와 평화의 기운이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저 자신도 평양정상회담에 참석했지만 남북 두 정상 간의 관계는 끈끈했고 비핵화와 평화를 향한 북한 주민들의 의지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어렵게 만든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지평이 2019년 들어와 다시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7일-28일 하노이에서 개최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 2차 북미 정상회담은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핵, 화생무기, 미사일을 선제적으로 폐기하면 북한 경제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겠다."는 미 측 주장과 행동 대 행동 원칙에 기초하여 점진적 동시 교환 방식을 취하자는 북한 사이의 간극은 컸습니다. 특히 영변에 있는 핵 시설을 전부 폐기 할 테니 2016년 이후 유엔안보리가 채택한 5개의 제재 결의안 중 민수 경제와 민생과 관련된 부분을 해제해 달라는 북한 측 주장을 미국이 면전에서 거부하면서 북한은 매우 심각한 '하노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기조연설

하노이 이후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만 강경했던 것이 아니라 남한에 대해서도 냉담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남측과의 공식 접촉을 일체 피하고 우리 측이 유엔을 통해 제안했던 대북 인도적 지원까지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4월 이후에는 11차례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했고 특히 10월 2일 시험 발사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은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어렵게 마련되었던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의도 북한의 강경한 태도 때문에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북한의 이런 행동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상투적 조치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제도의 안전' 과 '발전의 장애물제거' 라는 두 개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북한의 집요한 노력에 기초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한반도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해 나가면서 평화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바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입니다. 문대통령이 생각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종착역은 "핵무기 없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 문 대통령은 평화유지(peace-keeping), 평화 만들기(peace-making), 평화 구축((peace-building),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네 가지 전략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전략들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지요.
첫째, 평화유지(peace-keeping)입니다. 이는 내전 지역에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유엔 평화군 (UN Peace-keeping force)을 통해 현지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전통적인 군사 '억지(deterrence) '와 동맹 강화를 통해 전쟁의 계획된 또는 우발적인 발발을 예방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사실 2017년 이후 문재인 정부는 군사적 억지와 미사일 방어를 핵심 전략으로 설정해 왔습니다. 억지는 보복 타격의 능력, 의도, 그리고 의지를 선명하게 보여줌으로서 적의 선제적 군사도발을 막는 군사전략의 하나입니다. 이 전략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한-미 연합전력과 한국의 자주적 방위태세 강화를 통한 재래식 전력의 억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국의 확장억지와 그에 따른 핵우산 공여를 통한 핵 억지입니다. 억지는 주권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군사전략이라 하겠습니다.

미사일 방어 또한 문재인 정부 군사전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적극적 방어(active defense 패트리어트 및 사드 시스템, KAMD), 소극적 방어(passive defense 월별 국가 방어 훈련), 공세적 방어(offensive defense 킬체인 및 대규모 응징 보복조치), 그리고 전장 관리(battle management 지휘, 통제, 통신, 정보, 정찰, 감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과감하게 군사력 증강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를 제외하고 역대 정부 중 국방비 증가율이 가장 높다 하겠습니다. 현 정부 임기 중 국방비가 연 50조를 돌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강압(compellence)전략을 채택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여기서 강압이란 무력의 과시 또는 그 사용 위협을 통해 북한의 행동에 변화를 주기 위한 전략입니다. 억지가 방어적 군사대응이라면 강압은 공세적, 적극적 대응입니다. B1B, B-2, B-52 등의 전략 폭격기, 항공모함 전투단,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 등의 한반도 전개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강압은 미국의 핵심 전략인 반면, 한국은 여기에 소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을 뿐입니다.

둘째, '평화 만들기 (peace-making)' 입니다. 이는 평화유지보다 한 단계 위의 개념입니다. 이는 평화유지보다 한 단계 위의 개념입니다. 적대 관계 해소, 군사적 긴장 완화, 그리고 신뢰구축이 평화 만들기의 핵심인 것입니다. 경제, 사회, 정치적

II. 세부 행사 내용

기조연설

신뢰구축의 단계를 거쳐 군사적 신뢰구축이 있어야 평화 만들기가 가능해집니다. 군사적 신뢰구축은 군사 훈련의 상호 통보 및 참관, 핫라인(직통 전화) 기설, 정보 · 군사 인력 상호 교류, 통합 위기관리 센터 설치 등으로 나타납니다. 나아가 공세적 무기의 후방 배치 등도 중요한 군사적 신뢰구축의 하나이며 새로운 첨단무기의 수입 금지를 포함한 군비통제나 단계적 감축 등이 '평화 만들기'의 주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평화 만들기'가 평화협정 또는 조약 체결을 통해 안정화되면 평화공존의 제도화를 통한 '평화정착 (peace settlement)'이 가능해 집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평화유지와 평화 만들기를 동시에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판문점과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평화 만들기'와 관련하여 많은 진전을 이룬 바 있습니다. 판문점에서 양 정상은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합의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그 뿐 아니라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육해공에서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 그리고 서해 북방한계선 수역을 평화 수역으로 만들기로 두 정상은 합의했습니다. 또한 두 정상은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채택하고 평화체제를 추동해 나가는 동시에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데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습니다.

특히 9.19 평양선언에서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했고 이를 구체화 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 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 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 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평양선언 제1조입니다. 이것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고 있는 불가침 정신을 되살린 것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지상과 해상, 그리고 공중에서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 지대화, 북방한계선 일대의 평화수역화 및 공동어로, 교류 · 협력 및 접촉 · 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 군사공동위 구성 등 신뢰구축 조치에 관한 사항들을 '판문점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에 6개조 19개항으로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서 그 구체성이 더해 보입니다.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됐습니다. 남과 북은 오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북한 핵 문제는 그냥 놓아두고 이런 합의를 한 것은 일방적 무장해제라고 폄하하고 있으나 이는 어불성설이라 하겠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나 서해에서 재래식 군사부문에서의 우발적 충돌과 그에 따른 확전이 핵 대결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채택된 군사 분야 이행합의는 그러한 우발적 충돌을 막고 한반도 평화의 절반을 이루는 쾌거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바는 평화 구축(peace building)입니다. 엄밀히 말해 평화 공존이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다주지는 않습니다. 넓게 보면 평화 유지와 평화 만들기는 유관국들 간의 갈등 요인을 관리하는 소극적 평화 유지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분쟁의 구조적 원인을 없애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평화구축입니다. 적대적 쌍방이 하나의 국가로 통합, 통일 되거나 영구적 선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그의 저서 〈영구 평화론〉에서 평화 구축 방법과 관련하여 세 가지 명제를 제시한바 있습니다.

기조연설

첫째는 자본주의 평화론 (capitalist peace)명제입니다. 무역을 하는 국가 간에는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공화정 국가 사이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른바 '민주평화론 (democratic peace)' 명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라는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은 전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세계평화연방' 은 세계정부의 한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정부가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유형의 항구적 평화구축은 집단 안전보장 체제를 통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한반도 평화는 평화구축이 이루어 질 때 가능하다 보고 그 해법을 평화 경제에 찾고 있습니다. 작년 8월 15일 광복절 73주년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문대통령은 "정치적 통일은 멀었더라도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진정한 광복"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남북 경제 공동체를 구축하여 민족경제의 균형 발전을 모색 할 때 진정한 의미의 평화 올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신한반도 경제 구상이 그 시발점입니다.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의 정상화,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등이 구체화 될 때 남북한 간의 가시적 평화 구축이 가능해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는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반도 비핵화 없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 에 대한 개괄적 합의를, 그리고 9.19 평양선언에서는 영변 핵시설의 완전하고도 영구적 폐기라는 단계적이고도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하노이 결렬 이후 비핵화 전망이 다소 어려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미국의 빅딜과 북한의 영변 딜 사이에는 간극이 큽니다. 한국 정부는 '빅딜에 대한 포괄적 합의', '합의된 사항의 점진적 이행', 그리고 이를 위한 '로드맵과 시간표 작성' 이라는 절충안을 제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하노이 결렬 이후 야기 된 미국과 북한 간 불신의 별을 넘어서기 위해 미국과 북한 모두에게 선제적 초기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 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폐기된 풍계리 핵 실험장에 국제 조사단을 초치하고 평북 철산군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아래 영구적으로 폐기하면 미국은 제재 완화 등 이에 대한 상응조치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미 모두 이러한 제안에 냉담한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렇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동시 병행 추진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요체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만만치 않습니다. 군사적 억지와 동맹 강화에 기초한 평화유지를 강조하다 보면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평화 만들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경제' 기치 하에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구축 전략도 흡수통일 논리 아니냐는 잘못된 메시지를 북에 보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프로세스의 이러한 과도기적 모순들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의심치 않습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축복처럼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단히 인내심으로 노력할 때 비로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합니다만 문재인 정부는 현재 처한 안과 밖의 도전들을 극복해 낼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차분히 실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는 환황해 구상의 미래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II. 세부 행사 내용

기조연설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잘 진행되면 환황해권에 평화의 질서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0년 11월 천안함 피폭에 이은 연평도 포격 사건은 이내 황해권을 전쟁의 바다로 바꾸어 놓은 바 있습니다. 서해에서 남북 간 군사대치가 고조되는 가운데 죠지 워싱턴 호를 필두로 한 미 항모전투단이 결렬비도까지 북상했습니다. 중국도 이에 맞서 해군력을 비상태세 모드로 전환하고 급기야는 황해에서 러시아와 합동 해상훈련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동안 고요했던 서해에서 미중 패권 경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남북한 군사 긴장이 그런 빌미를 제공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9.19 평양선언 부속 군사이행 합의서 3조에서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하고 여기에 시범적으로 남북 공동어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남과 북 사이에서 우발적 해상 군사충돌 가능성은 크게 줄어 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강대국들이 개입할 공간도 없어진 것입니다. 이는 충청남도의 미래에도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바로 충남의 생존과 번영의 공간인 환황해권의 평화를 담보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과 그에 따른 평화경제의 구체화는 충청남도와 황해권의 미래 번영에 주는 함의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평화경제의 이행 계획은 문재인 정부가 계획해온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목포에서 충남과 수도권, 개성과 신의주, 중국을 연결하는 교통물류산업 벨트로서 환서해권, 부산에서 동해지역과 원산, 청진, 나진을 통해 러시아로 연결되는 에너지 자원 벨트인 환동해권, 그리고 DMZ 지역에서 이를 동서로 연결하는 환경관광 벨트로서 접경지역권, 이렇게 3대 경제벨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해안, 동해안 등 권역별 남북 경제협력 벨트를 마련, 동서를 잇는 'H 경제 벨트'를 조성해 장기적으로 남북 경제공동체를 이룬다는 구상입니다.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충남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게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있을 지경학적 지형 변화에 창의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태안반도를 중심으로 충청남도를 거치는 환서해 경제벨트의 물류망 구축이나 충남, 대전, 세종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과 전략적 협력을 해나가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충남이 비교우위를 보이는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북한 지역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중국과의 물류 및 제조업 협력을 통해 환황해 경제권을 구축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연계시키는 것도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충남과 황해권의 평화와 번영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은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날 목도하고 있듯이 안과 밖의 도전은 거셉니다. 그 도전을 다 같이 극복해야 합니다. 충남 도민 모두가 그 극복의 견인세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제5회 환황해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이번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하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충남발전연구원과 한반도평화포럼의 헌신적 노력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세션

2019년 10월 31일 09:30-10:10
롯데리조트 부여 사비홀 A&B

주 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남북교류 협력의 길을 묻는다)

목표와 내용

-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 외에 지방정부 차원의 역할과 과제 설정, 그리고 지방정부간 협력방안 논의
-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논의

좌 장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발 표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쟝샤오밍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 교수
스즈키 다쓰지로 나가사키대학 핵무기폐기연구센터 부센터장

토 론

김수한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류밍 상해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주임
기타하라 마모루 후쿠오카현 일조우호협회 방북단장

발제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현재 남북협력관련 갈등이 심화되어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하여 가운데 3가지 논점에서 남북협력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첫째. 평화라는 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둘째. 현실적으로 남북경제가 경협을 원하는지? 셋째. 향후 새로운 남북경협의 방향을 검토 중인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납북경협 논의의 출발점은 절대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가치 '평화'에서 찾을 수 있다. 평화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데 현실에선 실현이 요원하다. 평화가 위협을 받는 궁극적 원인은 대상과의 차이를 조장 선동하는 분열적 사고에서 나타난다. 분열적 사고는 자기중심성 동일성에서 기인하는데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던 사례는 2차 세계대전과 아우슈비츠의 비극이다. 3명의 철학자가 이와 관련하여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였는데 이를 종합해 보면, 타자를 고려하지 않은 자기중심성과 차이를 인정하지 않은 동일성에서 분열적 사고가 기인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따라서 평화의 실현은 궁극적으로 타자와 차이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는 도덕 · 윤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시대정신과 인류역사의 흐름과 부합하기에 중요하다. 결국 역지사지 원리의 확장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일상용어로 표현하자면 역지사지(인식)와 포용(실천)이 확대되어 감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평화구축을 위한 사유 및 합의 등 실천에 적용해야한다.

위 내용을 통해 역지사지의 확장으로 보는 평화의 개념이 남북경험에 주는 시사점을 3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첫째, 관점전환으로 상대를 인정하는 노력이 필요 둘째, 북한의 실체를 인정 셋째, 일방적 표용이 아니라 상호적 포용을 지향하여 서로의 결여를 보안 교환하면서 미래의 비전을 공유해야한다.

북한은 최근 많은 변화를 하고 있다. 대북제제의 강화되면서 대부분 국산화를 실현시켰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제 핵무력 병진노선을 "경제노선"으로 전환하고, "경제분야" 뿐 아니라 전반적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유족한 생활"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국가전략 노선이 변화하였다. 또 기업에게 경제권을 부여하고 IT와 로봇분야 등 4차산업 상용화에 힘쓰고 있다. 급속한 정보화는 정책전환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경공업 등 일부분에서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기간산업의 정체로 인해 산업 지역 간 비대칭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북한은 개방과 혁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으며, 체제유지와 성장을 위해 개방은 절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북한이 비핵화가 완료된다면, 개방 후 혁신을 토대로 IT기반 경공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성장 등을 통해 단번도약을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남북경합을 통한 경제성장의 남북한의 평화 구축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는 남북한 경제의 needs가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 경협을 통한 경제성장은 남북한의 평화 구축에 기여하고, 성장을 통해 사회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 그리고 주변 4강들과 동등한 수준의 경제강국 건설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다. 남북경협은 플랫폼국가(교량국가) 형성의 핵심 계기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남북경협 관련 새로운 접근 및 생산적 토론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한 논의의 출발점으로 남북경협 가치 중 평화를 도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역지사지 원리의 확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남북한 모두의 경제성장과 이를 위한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고, 남북경협은 혁신의 계기를 제공해 주며, 따라서 남북경협은 남북한 모두에게 신성

발제

장동력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남북경협은 사회갈등 해소의 실질적 수단이자 플랫폼 형성을 통한 경제강국/평화구축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쟝사오밍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 교수

이번 환황해 포럼에 참석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남북과 미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긴장과 완화, 그리고 긴장의 상황에 있습니다. 한반도에 중요한 문제는 핵문제와 통일 문제이지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관의 관계는 동북아시아뿐만아니라 국제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이미 새로운 냉전시기에 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타협의 협력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아지역에 부합하는 동북아 지역만의 지역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 모델 첫 번째 EU모델과 아세안의 모델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특징으로 동남아시아와 유럽에는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는 한반도에 남북 간의 분단이 있습니다. 남북분단은 이 동북아지역의 협력관계를 막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걸림돌로, 역사, 영토문제입니다. 중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에 갈등이 있죠. 걸림돌 세 번째 미국이 주도하는 양자 간의 동맹관계가 동북아지역의 다자간의 협력의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아지역에서는 대국들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과 동남아보다 더욱 심각합니다. 동북아 지역만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 반드시 네 가지 걸림돌을 해제해야합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동북아지역의 협력의 설계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공동구축, 공동체구현 이라는 것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어야한다. 다자간 그리고 양자를 고려해서 병행할 수 있어야합니다. 동북아지역에서는 다자간, 양자 간의 협력에 있어서 한중일 삼국간의 협력이 구심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체 동북아 지역의 안전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 됩니다 한중일 삼국간의 정상회담과 연락사무소와 FTA와 같은 것들이 연계된다면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반드시 기능적인 요인들이 같이 가야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관련 인문교류 등이 협력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동북아시아의 주요국으로써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보면 중국은 동북아시아의 대국이고 현재 부상하고 있으며 동북아시아의 일원으로써 중국은 큰 역할을 해야 한다. 두 가지 측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동북아지역의 영토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협력을 가로막는 문제이며 관련국들과 역사문제, 영토문제를 관리해야하고 두 번째로 중국은 이지역의 추진자로써 다자간협력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한중일 FTA가 있으며 이는 한중일 다자간 협력을 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상하는 대국으로서 주변국들이 느끼는 공포감과 우려를 알고 있으며 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제

스즈키 다쓰지로 나가사키대학 핵무기폐기연구센터 부센터장

동북아아시아의 비핵지역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 되겠습니다. 한반도와 일본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지역의 평화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접근방식이라 적혀있습니다. 보시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한국전쟁 종식을 선언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모든 종류의 에너지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세 번째로, 동북아의 NWFZ에 대한 조약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서 항구적인 동북아시아 평화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3+3라고 부르는 데요. 한국 북한 일본이 비핵화지역이 되겠으며 핵보유국으로는 중국, 미국 러시아가 되겠습니다. 부정적인 보안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s)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달성하게 되면 한국과 북한 일본은 핵무기와 핵우산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비핵무기 지대는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지역에 핵무기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바로 핵무기 국가들이 NSA를 해주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비핵화 지역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죠. 더 이상 핵우산 아래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RECNA에서는 이 보고서를 따라서 나가사키 프로세스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가지 트랙이며 전문가 패널을 만들었습니다.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것입니다. 문 특사도 공동의장으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비슷한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동북아시아 그룹과 아시아퍼시픽 리더십과 군축, 그리고 몽골 NGO랑 같이 트랙 2 프로세스를 몽골에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몽골도 이미 비핵화 국가입니다. 이미 세 차례 나가사키와 울란바토르에서 미팅을 했고 작년에 모스크바에서도 미팅을 했으나 안타깝게 북한을 초대 했으나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세 번째 모스크바에 주재하고 있는 두 분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처음으로 북한이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우리 보고서에 한국 세종연구소가 따라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정책 워크숍에서는 한반도 평화 그리고 비핵무기지대를 만드는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최종목표는 한반도에 경우 비핵화지역으로 만드는 것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만드는 것, 세 번째로 비핵화 프로세스로서 듀얼 트랙 프로세스로서 포괄적인 안보 틀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NWFZ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는 비핵화 지역을 칭하는 것이고 이 개념을 국제사회에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과 한국이 협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NWFZ 경우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검증할 제도가 없습니다. 이를 위한 제도와 기구들이 필요하겠으며 그리고 ABACC(브라질-아르헨티나 지역안전조치기구)라고 하는 아르헨티나 브라질지역에서 검증하는 스킨이 되겠습니다. 1970년대 설립이 되었고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신뢰를 구축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함께할 수 있는 협력을 담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북한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하고 한국에서는 군사적 훈련을 예방해야하며 세 번째로 한국과 일본의 양자, 미국을 포함한 삼자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고, 한국과 일본은 함께 하는 프로젝트를 해야 합니다. 한국은 원자력 수준도 높기 때문에 핵물질 해체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구리고 현재 무기와 관련해서 민수용으로 전환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가 함께 협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김수한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동아시아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국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자간의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충남도아 같은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는 것을 전제하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탈냉전이우에 동아시아 국가들은 지리적인 인접성, 문화적 유사성, 역사적 유대성 그리고 경제 산업적인 상호보완성에 의해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삼국간의 관계가 정치적으로는 갈등이 팽배하며 경제적인 갈등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단순한 양자적인 문제를 넘어서 매우 구도적인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한 국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 프로세스 역시도 불안정한 과정이 진행이 되며 갈등이 항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안정을 주요로 할 수밖에 없는 동아시아와 남북관계에 있어서 시민, 민간,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다자간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은 다른 갈등의 완충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광역지자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며 민간과는 달리 정부로서 공신력을 가지고 있고, 행정기관으로서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민간과 정부를 연결하는 위치에 있다. 이는 남북관계에서도 중요하며 남북관계 통일 방안을 배경으로 하며 기본적으로 점진적, 단계적 과정이 국가의 체계적인 틀 안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탑다운 형식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지방 주체의 활동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통일과정은 시민들과의 공감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만나는 지자체가 평화공감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동북아의 불안정성,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층적 네트워크 구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지방정부간의 교류협력 역시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황해는 동북아의 지중해였습니다. 과거부터 문명의 흐름을 주도한 황해를 중심으로 한 대화가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환황해의 연구와 교류가 필요하고 충청도가 남북교류에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국제관계를 선도하고 안전적인 프로세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광역지자체의 평화교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센터와 같은 것들을 통해 리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자로서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밍 상해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주임

첫 번째로 동북아의 현 상태 구도를 보면 굉장히 놀랍다 얼마 전 까지 한중양국의 관계가 좋았다가 사드문제로 안 좋아졌고, 한일관계가 최근에 나빠졌습니다. 두 나라가 좋으면 다른 두 나라가 나빠짐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럽과 비교한다면 동북아시아의 큰 차이점은 첫 번째로 삼국의 시민사회간의 연대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세력의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다. 국가주의의 큰 영향을 받고 국가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면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정부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포퓰리즘'이라든지 상대의 포용과 이해가 부족해집니다. 이것이 삼국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 모두 저조한 상태를 보입니다. 삼국간의 정상회담이 언제 열릴지에 비관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 있어 한반도 비핵화에 비관적인 생각입니다. 1차 핵 위기부터 지켜봐 왔는데 첫 번째 문제는 미국이던 북한이던 모두 냉전을 가지고 있고, 미국에 의해 주도 되고 있으며 두 국가들은 냉전구도의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국가의 운영방식이 아니

토론

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를 방문한적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관료를 만났습니다. 김정은이 비핵화를 결정하면 핵 폐기가 진행되는데 김정은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의 제약을 김정은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6자회담에서부터 지금까지 보면 6자회담은 굉장히 진전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역전이 되었죠. 이는 미국의 군사적, 외부적 욕심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과의 관계가 좋다고 생각하며 역지사지로 태도를 지지하나 이로는 부족합니다. 국가관계를 개인적인 관계로 생각하고 개인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개인관계가 국가관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북한의 경제발전을 촉진을 지지합니다. 제제가 있지만 이것은 북한이 자초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넘어서 농업분야의 생산력을 증대하길 바랍니다. 최근 2년 동안에 마이너스 성장이 있었다는 다른 분석도 있습니다. 북한의 지도자가 연 초에 발표한 연설에서 미국과 갈등을 막지 못한다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2017년과 같은 긴장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17년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병진전략은 이미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군사 분야에 있어서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이는 실존하는 현실입니다. 북한은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지속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중, 한 관계 북, 미간의 관계에서 3년, 5년 안에 해결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아래서 위로와 같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야 하며, 중간에 싱크탱크역할과 시민들의 관계 중요하고 정상들 간의 문제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북핵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 협력과 안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타하라 마모루 후쿠오카 현 일조우호협회 방북단장

저는 23년 전부터 김대중 대통령 시대부터 매년 북한을 방문했고 조선노동당 간부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마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관계 도 시설들을 살펴보았고 많은 친구들을 만들었습니다. 국제부 평양외대 조선장애인보호동맹 노인단체 등 많은 시민단체들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나라와 관계에서 진정한 의미의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 합니다. 일본과 북한, 한국의 관계가 아무리 안 좋아져도 매년 평양을 방문해서 미중, 미, 북의 의견을 나누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조선노동부 아시아담당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어떻게 진심을 나누고 또 약속을 한 것을 지키는 것에 대해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23년간 지켜보면서 매스컴의 힘을 더 활용해야 합니다. 매스컴의 역할을 강화해야합니다. 실제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평양을 방문하게 되는데 일본의 언론과 동행할 예정입니다. 북한에 대한 편견이 일본에 남아 있으나 보도의 힘, 매스컴의 힘을 빌림으로서 일본 시민들의 의식을 변화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북한의 이해도를 높이고 서서히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정보는 굉장히 한계가 있지만 일분국민의 이해를 변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포럼에 처음 참여했지만 저는 후쿠오카에서 한일 연맹 의원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역사를 공부했는데 일본이 한국의 불교와 같은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았고 부여 박물관도 많이 와봤습니다. 이 포럼에 참여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 환황해 포럼은 매우 훌륭하며 북한의 관계자들과 참여 했으면 좋겠고, 이를 이번에 방북하면 의견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세션 (1-A) - 평화

2019년 10월 31일 13:00-15:00
롯데리조트 부여 사비홀 A&B

주 제

역사문화공동체로서의 환황해 지역협력

목표와 내용

- 환황해라는 지역적 공간을 배경으로 오랜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지닌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갈등해소와 공동체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

좌 장

윤황 충남연구원장

발 표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
류바오취엔 산동대학교 동북아학원 교수
안도 준코 후쿠오카대학 동아시아지역언어학과 준교수

토 론

김정섭 공주시장
왕샤오링 중국사회과학원 글로벌전략연구원 부연구원
서정경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

발제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

환황해 지역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문화공동체 중에 하나이며, 그 자연발생성에 기초해 가장 현실적인 경제공동체로 발전할 가능성을 지닌 지역입니다. 황해를 둘러싼 지역은 자연 지리적으로 대륙, 반도, 열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반도가 중국대륙과 일본열도 사이에서 교량 또는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동북아시아가 인문 지리적으로 통합된 하나의 지역으로 인식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예컨대 '한자 문화권'이라는 말은 동북아시아의 역사문화공동체로서 동북아시아를 잘 드러내어 주는 용어입니다. 예컨대 한일 간에도 감정을 소통하는 수단으로 한자와 중국의 고전이 이용되는 데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통의 이해가 가능한 문자의 공유에 더해 문자가 가지는 정신적 가치까지도 공유할 수 있는 역사적인 축적이 있기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이는 상호 신뢰와 존경이 없이는 불가능 합니다.

근대사 이전, 이 지역은 신라-당 연합과 백제-왜 연합의 백촌강 전투, 왜구와 원구의 침탈, 임진왜란 등의 전란이 있기도 했지만, 이들 시기는 2000 여년의 역사 속에 비하면 문자 그대로 '예외적인' 시간들로서, 대륙-반도-열도의 상호 교류는 '동북아시아 장기 평화'를 지탱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시기는 지중해의 전쟁의 역사에 대비해서 평화로운 황해의 역사라고 생각 됩니다. 황해의 근대를 알리는 사건은 강화도 앞바다에서 벌어진 운요호 사건이었습니다. 이어서 황해는 청일전쟁에서 해전의 무대가 되었고, 러일전쟁에서의 다시 해전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인천상륙작전에서 다시 해전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황해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긴장과 대립은 연평해전, 천안함 침몰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평창의 겨울에서 시작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종식시킴으로써 동북아시아에 평화와 협력의 질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3.1운동 100년을 맞이한 2019년, 신한반도체제 구축이라는 목표로 구체화되었습니다. 동복아시아에서 식민과 전쟁의 근대를 끝내고 교류협력과 공동번영의 새로운 미래로 가기 위한 역사적 상상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해, 동북아시아공동체의 원기(原基, promordium)로서, '원 동북아시아 역사문화공동체'로서 환황해 교류협력 네트워크와 그 속에서 가교와 교량으로서 네트워크 형성자 역할을 수행했던 백제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부여는 환황해 네트워크의 시원(始原)이었습니다.

환황해를 매개로 한 '한일 교류사의 첫 페이지(유흥준 2013. 28)'를 장식하는 곳이 부여 송국리 유적지와 규슈 북부 사가현의 요시노가리 역사공원입니다. 부여 송국리 유적은 청동기 시대 돌널무덤 유적이며, 요시노가리는 2300년 전 고조선과 삼한 시대 사람들이 집단 이동해서 청동기와 벼농사를 전해주어 일본역사에서 야요이 시대가 열리게 된 현장입니다. 부여의 유적은 1970년대, 요시노가리 유적은 1980년대 발굴되기 시작해서 고대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역사적 유대가 재확인되기 시작했으며,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이 활발히 논의되던 2000년대에 특별히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부여와 사가현의 유적은 한일간 문명 교류를 웅변하는 흔적들이지만, 그 배경에는 중국 대륙의 정치적 격변이 있었다는 점

발제

에서 이는 여러 갈래 여러 수준으로 엉킨 환동해 네트워크의 기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역사 시대에 들어와 규슈 북부에서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교류를 알려주는 곳으로 가라쓰에 있습니다. 이는 충남 당진과 같은 이름입니다. 중국으로 나아가는 나루터라는 이름의 땅이 한반도와 일본열도에서 황해 쪽으로 난 돌출부에 있다는 것에서도 중국대륙 한반도 일본열도의 오래된 교류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가라쓰에 백제 무령왕의 탄생지로 알려진 가카라시마가 있습니다. 이러한 백제와 왜의 교류는 문화적 뿐만 아니라 정치적 유대감으로 고양되고 있었습니다. 이우 여몽연합권의 일본 원정(1274년, 1281년)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출병(1592년, 1598년)에 이르는 시기, 13세기말에서 16세기 말까지 300년 동안 황해는 긴 전란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은 황해를 주전장으로 한 동북아시아 국제 전쟁이었으며, 두 사건의 사이에 끼인 시대에 황해는 왜인을 중심으로 한 국제 해적단인 왜구에 의한 약탈전쟁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문화는 바다를 건너 새로운 토양에서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문화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조선 도공에 의한 일본의 도자기 문화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도자기들이 이러한 조선 도공들에 의해 기틀이 마련되어 발전된 것입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종식되고 난 뒤, 조선과 에도 막부는 평화를 회복했고, 이 평화는 이후 일본이 메이지 유신으로 서양 국제법 체제에 편입되기까지 250여년 지속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평화를 보증했던 것이 조선통신사였고, 이후 한일 교류의 길을 부산과 쓰시마를 통하는 길에 양보하면서 황해는 조용한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황해의 평화를 깨는 사건이 운요호 사거이었습니다. 이후 황해는 동북아시아 전쟁의 무대로 전락했습니다. 1894년 9월17일, 청일 간의 해전이 벌어졌고 일본 해군 연합함대와 청의 북양함대 사이의 해전으로, 황해를 무대로 전개된 최초의 근대전쟁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1904년 8월 10일, 러, 일 사이의 해전이 발발했습니다. 일본 해군 연합함대와 러시아 제1태평양 함대(여순함대) 사이의 해전이었습니다. 이상 두 차례의 황해 해전과 한국전쟁시기의 인천상륙작전이 식민과 전쟁의 동북아시아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 전쟁 극복의 길이 황해의 평화에서 열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황해의 비평화 구조는 두 차례의 연평해전에서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정전체제에 기인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한국전쟁 정전체제의 극복이 황해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당면 과제입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의 역사적 층위를 생각하면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분명해 집니다. 한국전쟁은 근대화와 식민지 유산을 극복하는 방법론을 둘러싼 이데올로기 대립이 전쟁으로 귀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근대화는 청일전쟁으로 왜곡되고 실패했으며, 대한제국의 식민지 전략은 러일전쟁을 기점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정전협정 체제의 종식으로 한국전쟁의 종료시킨다는 것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포함해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반도를 무대로 전개된 근대이래 세 차례의 한반도 전쟁을 총체적으로 극복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세 차례의 전쟁에 일본은 두 번은 직접 당사국으로, 한 번은 간접 참전국으로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II. 세부 행사 내용

발제

한반도가 전쟁과 대립의 무대에서 평화와 협력의 무대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것이 3.1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신한반도 체제'의 문제의식이라면, 이는 청일전쟁, 러일전쟁, 제2차 세계대전을 거쳐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동북아의 대 전쟁들을 총괄해서 극복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 과정을 주도할 한국이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삼아야 할 나라가 일본이라는 점은 명백합니다. 한편 전쟁 극복의 과제와 식민지 극복의 과제는 중첩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개시된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식민지 극복의 과제가 전면화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식민 지배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로 만들어진 1965년 체제가 일본의 식민 지배 책임을 묻지 않고 성립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개시는 샌프란시스코조약 체제의 한계를 드러내고, 그것은 다시 1965년 체제의 현계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대법원판결은 ;신한반도 체제 '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 무엇인지를 가리켜준 사건이었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미소외교'가 한미일 연계를 분단하려는 의도라고 하여, 줄곧 남북 화해 분위기를 경계하며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미일동맹론자들은 여전히 비판적 여론의 배후지가 되고 있으며, 세계적 반 트럼프 정서에 편승하여, 한국 외교를 고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의 모멘텀이 이어지는 동안은 북한 비핵화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진전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핵화 프로세스가 장기적인 과정임을 고려하면, 비핵화 속도가 지체되거나 그로인해 북미관계가 이완되는 순간 미일동맹론자들의 반 트럼프 캠페인은 ㅎ나국 정부가 추진하는 평화프로세스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관여시키는 것은 이러한 구도를 깨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구체적으로 북일 국교정상가 될 것입니다.

북일 국교정상화는 남북의 화해 협력 및 한일관계발전과 더불어 동북아 평화를 보증하는 세 기둥입니다. 이 세 가지 양자관계는 동북아시아 평화구축의 핵심과제이며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1998년 한일공동선언을 계기로 시작된 동아시아 화해협력 프로세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개시되자, 전통적으로 반핵 평화운동을 해 왔던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한반도에서의 움직임을 일제히 환영하고 나왔습니다. 2018년 3월 15일 일본 평화워원회의 성명이 있으며, 일본반핵법률가회의, 아시아태평양법률가협회 및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일본 퍼그워시 회의, 일본 AALA 연대위원회, ICAN 등 평화운동 단체, 세계종교인평화회의 일본위원회와 일본기독교협의회 등의 종교인 단체, 등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성명을 잇달라 발표했습니다. 나가사키대학 핵무기 철폐연구센터 또한 이러한 움직임에 호응을 보내왔습니다. 이미 앞에서 지적했듯이 1998년 한일공동선언에서 한국과 일본은 이미 비핵평화의 가치를 공유했습니다. 비핵무기시대화의 기초는 법적으로 남, 북, 일에서 구축되어 있으며 엮어가야 합니다. 일본과 이러한 것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는 의문이 있겠으나 비핵평화의 가치는 일본의 국시라고 할 수 있으며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서 매년 확인되고 아베 수상조차 이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한일이 동북아시아에서 선두가 되어서 그림을 그려나가야 합니다. 1960년대 한일 공동선언이 몇 가지 있으나 역사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발제

90년대 들어 비로소 역사문화공동체의 가치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황해를 매개로 성립한 역사문화 공동체의 기초단위가 국가단위가 아니라 지역이라는 것에 다시 한 번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자체가 역사문화 공동체의 주체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비핵평화의 공동체를 추진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이미 이 지역에는 일본의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비핵평화자치제' 운동이 존재합니다. 제주 비핵-평화지대화 논의와 합천 비핵평화대외 개최가 개최되는 등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환황해 역사문화공동체 형성의 중심이었던 부여가 일본 측 환황해권 지자체 나가사키와 함께 동북아 비핵무기지대화의 중심축이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류바오취엔 산동대학교 동북아학원 교수

동아시아사의 서술, 교육과 동아시아 평화

부여라는 지역이 산동의 위해라는 지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해라고 하는 지역은 산동지역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과 굉장히 가까운 지역입니다. 위해라고 하는 곳은 역사적으로 한중일 삼국의 교류과정에서 역사적으로 관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백제는 산둥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당진을 이야기 하셨는데 당진은 위해지역의 적산포라는 항구지역의 이름입니다. 이를 보면 한중일이 교류하는 곳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교류, 인적교류, 불교 등의 교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삼국은 역사인식 그리고 서술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중일은 역사적 인식을 교류를 진행함에 있어서 동아시아사 주로 한중일 삼국의 연구의 교과서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학생들을 통해 동아시아 서술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고양시켜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아시아사를 서술하는 이론적인방법 조상들이 역사를 서술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역사 기술이 필요합니다. 주로 세계사, 탈 국가사의 이론방법을 채택해서 동아시아사를 서술해야합니다. 이런 역사 서술 방법은 현대 동아시아사 서술하는데 매우 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존의 정치적인 고위의 정부 간의 교류와 하위의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아우르는 것을 로우-폴리티스적으로 서술해야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동아시아사를 서술하는 것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를 서술하는데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대사' 가 있고 한중일 삼국이 '국경을 초월한 동아시아사' 를 발간 한 것입니다. 2001년에 역사학자들이 공동으로 동아시아 근대를 아우르는 것을 출판했고, '미래를 여는 역사' 라는 책도 발간했습니다. 국경을 초월한 동아시아사는 한국어로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대사' 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버전이 2012년에 발간되었는데 기존에 동아시아 근대사를 보강하였고 탈 국가사의 입장에서 역사적 입장을 초월해서 썼습니다. 이 모두 다 탈 국가적인 관점이며 이는 한중일 삼국을 나눠서 본 시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동아시아의 각국이 역사공동체를 발전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시각을 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글로벌적인 시각을 갖는 것에 의미가 있다. 세 번째 있어서 갖는 의미로 한국 국내의 동아시아 교육에 있어서 2007년부터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선택과목에 있어 동아시아사를 채택했고, 2012년에 동아시아 관련 교학사에서 교재를 출판한 것들에 있

발제

어서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동아시아사 교육커리큘럼을 만드는데 있어서 한국이 아니라 지역사에 중점을 두고 다룬 것입니다. 고대부터 있어서 교류, 갈등과 갈등의 해결을 교과서에 담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중국과 일본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동아시아인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네 번째로 중국의 역사교과서를 보면 전통적의 개념을 답습하고 있다. 세계사, 중국사를 나눠서 이분법으로 나눈 커리큘럼으로 교과서를 출판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서술 측면에서 국가가 역사교과서를 통일 편찬하도록 통제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9년 초에 이미 베이징, 산동, 상해와 같은 소수 주요지역에서 신 버전의 교과서를 쓰고 있습니다. 2020년이 되면 전국적으로 사용되는데 5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1중국, 2세계사, 3선택과목 정치, 경제. 문화로 나뉜다. 중국역사는 10개의 단원으로 나뉘고 29개로 단원으로 나뉩니다. 세계사에서 일본과 한국역사도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역사를 다루는 교과서에서 근현대 부분이 큰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대에 들어 교류와 접촉이 많아졌고 한국전쟁 등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역사적인 특수성 때문에 세계사에서는 일본의 서술도 많습니다. 이는 중일관계특수성으로 인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버전의 역사교과서에서는 동아시아사에 대한 서술에 있어서 일본과 한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23개의 커리큘럼 구성에 있어 동아시아 역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에서는 보다 더 심도 있게 그리고 더 광범위하게 동아시아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아시아사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좋은 출발을 하였습니다. 일본과 중국에서는 이웃국가들에 대한 연구를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사고 전환의 역지사지는 동아시아 역사 인식의 갈등과 오류를 바로 잡는데 매우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역지사지를 통해서만이 동아시아 역사 교류와 교육에 있어서 진정으로 동아시아의 시각을 이야기할 수 있고 초국가적인 시각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역사 교과서를 보면 한중일 삼국에 대한 이해가 더욱 보충되어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교수님이 하신 말씀 인용하겠습니다. 동아시아를 연구하시면서 '국제사회의 역사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사과와 반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침략으로 이루어진 동아시아사는 사과와 회개로 이어져야하는데 이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보다 현실적인 정치와 역사관계에 묶여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의 공동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공동역사 교과서가 필요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시작해서 한중일 학자들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환황해 지역에서 역사문화공동체를 만드는데 우리가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도 준코 후쿠오카대학 동아시아지역언어학과 준교수

후쿠오카 대학의 중국어 및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향후 전망 및 과제

먼저 후쿠오카 대학의 동아시아지역 학부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학생 수는 약 2만 명이며 후쿠오카 대학은 아시아의 현관문 역사적 역할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학부가 바로 인문학부의 동아시아 지역 언어학과입니다. 약칭 LA입니다. 이는 중국어와 한국어 코스가 있습니다. 학생 수는 260여명이며 1:9, 2:8정도로 여성의 성비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신입생과 교원들이 대면식을 했을 때 대부분 K-POP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원들이 전혀 모르는 그룹명들이 매년 계속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교원들도 알아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

발제

니다. LA학생의 특징으로 재일 학생과 한국인 학생의 입학이 지속됩니다. 그리고 2학년 때부터 본격적인 코스가 진행되는데요. 기본적인 언어를 학습하게 되는데 한국어를 택하는 학생들은 처음부터 한국에 관심을 느끼고 선택하는 경우와 중국어 코스에 어려움을 느끼고 한국어 코스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학년 이후에는 역사, 정치, 문화, 경제 등의 전문적인 수업을 진행가게 됩니다. 일본학생들의 특징으로는 질문을 해도 침묵하는 경우와 뒷자리에 자리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한국학생들은 앞자리에 앉아 적극적으로 수업이 임하고 일본학생들이 학기가 지남에 따라 유학생들에게 영향을 받아 점점 적극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았다.

학과에서 실시하는 교류와 행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은 교류회입니다. 중국 관련해서는 지난달 상해에 방문해서 학생들이 교류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자매학교에서 방문을 해주기 때문에 학생들 그리고 일본에 대학진학을 원하는 고등학생들과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은 배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동세대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야기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즐거워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유학생과 룸쉐어를 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LA의 특징은 교환학생이 다른 학부보다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현재 후쿠오카대학이 협정을 맺고 있는 것은 중국, 대만이 12, 그리고 한국이 21명입니다. 4학년이 되면 대부분 복학을 하게 되는데요. 개인차는 있겠지만 대부분 언어능력이 향상이 되었고 1년간 외국에서 공부를 했다는 것이 자신감 상승에 영향을 주며 수업능력도 향상 되었습니다. 한국과 협정을 맺고 있는 경우에는 시스터즈를 맺고 발음교정 및 한국의 역사 및 교류를 하고 유학생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016년에 후쿠오카대학이 일본학생과 유학생 공동생활을 하면서 교류, 상호이해 문제해결 능력 향상 어학력 향상이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집세 절약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학능력 향상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 물론 다양한 문제점도 있으나 국제교류의 목적을 바탕으로 지역 활성화에 공헌하고 있으며 주민들과 교류하고 지역행사와 활성화에 다소 도움을 주고 있다 학생들이 존재함으로써 주민들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타 대학과의 교류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현재 후쿠오카대학과 부산 8대학교의 교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에 후쿠오카대학과 부산의 대학 간에 컨소시엄 창설을 위한 협정이 체결되었으나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부산의 동서대에서 큐슈대로 작은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 후쿠오카의 4개 대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류프로그램의 실시에는 각 대학에서 2~3명 선발해서 후쿠오카에 머무르면서 각국의 역사, 경제 교류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대화를 하며 진행되었습니다. 후쿠오카 부산포럼이 열렸는데요. 이때 학생들이 자신들이 배웠던 것을 토대로 '젊은이들의 제언' 이라는 형태로 나타냈습니다. 이 포럼에서 '젊은이들에게 투자를 하자' 라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 교류프로그램의 지도자로 참여했을 때 학생들의 반응이 엄청났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학생들은 배운 내용과 교류를 통해서 논의 하고 발표 등을 하며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교원의 입장에서도 반성을 해야 하는 것을 살펴보면 일본학생들의 어학능력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참가했던 대부분의 한국

발제

학생들의 일본어능력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전부 일본어로 진행되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훌륭한 내용을 가진 프로그램의 미래와 그리고 각 대학의 사정과 예산문제 때문에 지속되지 않는 것이 아쉽습니다.

물론 과제도 떠올랐습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일본인 학생들의 소극적인 자세가 기회를 놓치지 않나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대학교 사정 계속하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결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며 경제적인 것으로 학생들을 보조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세 번째로 최근의 한일관계악화에서 배경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일관계가 미치는 영향으로 유학포기, 교류회 취소, 지자체 교류와 행사 취소가 아쉽습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한일매체 편향보도와 부모세대의 대일, 대한 인식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유학자체를 부모가 반대해서 포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본대학은 공부의 의지가 있는 학생들을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대학교에서 한중일간의 2개국 교류는 있으나 3개국 교류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중일 대학교 교류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해 봅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학생들에게 미래를 걸어보는 것이 미래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의 네트워크가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김정석 공주시장

황해를 중심으로 한 한중일간의 역사를 생각했을 때 고대 백제가 삼국관계에서 가장 활발하고 국제성이 발현된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기 523~525년까지 조성된 백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여러 유적들을 보면 중국의 양식, 문물들과 일본의 물문들을 보면 동아시아가 당시 서로의 번영을 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제시대에 중국으로 가는 직항 뱃길을 개척했습니다. 삼국간의 교류를 했고, 백제가 일본의 아스카 문화를 구축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고 백제의 다수 인물들이 서해지역으로 망명해서 일본의 고대국가에 도움을 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주에 10개 고등학교가 일본과 중국에 수학여행을 갑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일관계악화로 중국 독립역사관에 여행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이를 지방에서 절반 부담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협력교류 역사에 대한 교재와 미래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조선통신사를 매개로 한 일본과 한국학자들의 세미나가 있었는데 12번 한번에 500명에 이르는 문화 사절단을 10개월에 걸쳐 왕래시키는 대단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조선 통신사 교류협력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2번의 조선 통신사중 절반가까이 되는 국제 협력의 경험을 가진 충청도의 관찰사를 역임했습니다.

근대에 오면 중국으로부터 황해를 거쳐 천주교, 기독교가 조선에 전래가 됩니다. 중국신부 프랑스 신부들이 황해를 거쳐 충남의 서해안으로 왔고 수많은 순교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대 이전에도 한중일 간의 수많은 역사와 교류의 지역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필요에 따라 교류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교류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미래세대에 있어 평화협력의 관계

토론

구축이 필요합니다. 최근 한일관계가 악화 되었으나 일본에서 많은 학생들이 공주에 교류를 하러 왔습니다. 반 민간, 반 공식적인 이 포럼에서 한중일의 학자들과 교류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역사와 문화를 공통적인 것에 중점을 두고 생각하며 지방정부의 끊임없는 교류와 협력이 중요하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왕샤오링 중국사회과학원 글로벌전략연구원 부연구원

중국사회과학원에서는 환황해지역의 장기적인 평화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지역의 평화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북핵을 둘러싼 6자회담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북핵문제가 동북아시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평화를 위한 장기적인 과정에서 일본이 참여하는 것은 매우중요하며 북한의 어려운 상황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과 접촉 외에도 삼자간의 협상이 필요합니다. 이는 어려우나 다자간의 협상이 각국의 문제를 분산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아래로 분산해서 평화적으로 협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역의 통합에 대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역의 각국의 상호 신뢰가 중요하나 안보이익 위에 경제적 이익이 위에 있기 때문에 한중관계에 있어도 마찰이 있었고, 이 위기는 계속해서 파생됩니다. 민간의 감정과 상호신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현실적으로 상호간의 갈등 상호 대립적인 역사적인 인식이 서로를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삼국간의 역사학자들의 동아시아사 연구와 협력이 계속되어야 하며 매우 중요합니다. 동북아 지역이 계속해서 현대화가 가속되고 그 과정에서 퍼퓰리즘 민족주의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동북아 공동체가 구상되어야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상의 유산을 우리가 이어받아 계속해서 운명공동체를 만들어야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중국국민들을 애국주의로 이끌어서 세계운명공동화로나아가게 하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초국가간의 역사적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에서 경제적 협력 정치적 협력은 눈앞의 이익만 보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이익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청년간의 교류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한국어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은 동북아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북아지역에 있어서 협력은 인문분야에서 독립적인 기제가 마련이 되어야합니다. 이러한 기반이 있어야만 정치 안보에 있어서 탈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고민해봐야 합니다. 주변 국가를 이해하는 청년들을 많이 양성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경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

먼저 류바오취엔 교수님의 발제에서 과거 중국의 역사는 중국과 세계사가 이원화 되어있다는 것이 다른 주변국의 역사와 동아시아의 역사에 관심이 더 커지고 교육과정에 재편되고 있다는 설명을 잘 들었고 마지막으로 역사문제는 현실의 문제가 크다는 것과 전문가와 학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동감합니다. 삼국간의 역사인식에 거리를 살펴보자

토론

라는 의미에서 한중일 삼국이 같이 쓴 책들이 나왔고 이들의 의미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 책들이 발간된 것뿐만 아니라 이어져서 국가 간의 역사의 인식을 줄이고 공동체 의식에 기여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삼국이 함께 쓴 동아시아사를 편찬한 삼국의 참여기관을 살펴보면 한국은 아시아평화역사교육연대라는 민간단체이고, 일본은 학자,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했고,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의 근대사 연구소가 참여 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주요 싱크탱크이죠. 중국의 주요 관방의 전문적인 연구와 논리들을 만들어내는 싱크탱크임에 불구하고 이 세국가의 기관들이 노력을 해서 성과를 냈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특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고, 그 중요성에 따라서 역사인식을 더 좁혀야 하는 시기에 국익에 치우치지 않고 좀 더 넓게 역지사지 하면서 시민사회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에 전문가들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삼국이 노력해서 만들어낸 책들이 출판에서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더욱 읽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청석 발언

이순 교수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논의하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2000대 초 노무현 정부 때 한, 중 간에 동북공정이라는 큰 역사적 갈등이 있었고, 한, 일 간에 교과서, 독도, 영토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문제를 두고 삼국간의 정부와의 갈등이 민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역사문제의 범위를 넓혀서 한중일 삼국으로 문제의식을 주제로 동북아 역사를 논의해보는 것을 제안했고, 이에 출발한 동북아역사재단을 중요시했습니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예산이 줄어들고 있으나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살아있고 잊지 않아야 합니다.

허재영 방청석, 충남도립대 총장

동북아는 바다를 끼고 연결되어 있으나 이는 장애물이 아니며 해양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역으로 동북아지역의 상호 협력과 이해는 광장해 중요합니다. 삼국이 용인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공동의 역사는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를 위해 전문가들께서 진행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세션 (1-B) - 번영

2019년 10월 31일 13:00-15:00
롯데리조트 부여 사비홀 A&B

주 제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국제일자리(청장년 창업, 취업) 활성화

목표와 내용

-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직면하여 성장의 한계에 직면해 있는 한, 중, 일 3국의 대책을 비교하여 서로간의 시사점과 협력방안 도출
- 국경을 넘는 청장년 창업 및 취업을 위한 환황해권 차원의 협력방안 모색

좌 장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 표

이덕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관리신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유통소비연구소 부소장

요코야마 겐지 리쓰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 부학장

토 론

전향란 중국 천진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소장

남수중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홍원표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발제

이덕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늘날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학적 변화는 전세계적인 보편적 현상으로 자리잡은 듯하다.그런데 저출산・고령화가 이처럼 보편적인 특성을 띄긴 하지만 특히 한・중・일과 같은 급속한 산업화를 겪은 나라들에서 매우 뚜렷하다. 한・중・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의학기술의 발달 등 빠른 산업화 속도와 맞물려 급속하게 진행되어 왔고, 기대수명 또한 크게 늘어났었다. 유럽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가는데 110년이 걸린 반면, 일본과 중국은 35년, 한국은 26년으로 말 그대로 초고속이다. 이러한 급속한 인구구조변화와 산업화 이후의 서비스 중심의 탈산업화로의 산업구조 변동과는 일자리 문제의 양상이 과거와는 다르게 복잡하다. 이러한 복잡한 고용문제에 대한 해법 마련을 위해 한・중・일 세 나라는 국제적 일자리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해야하며, 이를 구축하기 위한 몇 가지 선행조건을 제시한다. 첫째로, 동북아 지역은 서로간의 국제정치적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부분은 오늘날 가장 행복한 나라들로 꼽히는 북유럽 복지국가들이 가능했던 조건으로 국제정치적 안정의 중요성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둘째로 저출산・고령화는 노후 보장을 위한 높은 복지비용 지출을 요구함에 따라 재정악화가 동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하여 한・중・일간 통화스왑 같은 협력적 조건을 구축해야 하며 나아가 통화 동맹까지도 생각해야 한다. 셋째, 이러한 기반과 병행하여 적극적 노동시장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한・중・일 세 나라는 서로 간 상호보완하여 노동시장 불균형의 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예를들어, 최근 일본의 경우처럼 경제화 국면에서 저출산의 지속에 따라 인력부족 현 상이 발생할 경우 반대로 청년실업이 문제가 되는 한국 등의 나라로부터 인력공급이 이루어 진다면 노동시장 압력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한・중・일 세 나라가 강력한 협력체제를 넘어 북유럽과 같은 동맹체제를 형성하고 협력해야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해결 할 수 있다. 한・중・일 세 나라가 그 동안 급속한 산업화를 통한 물질적 수준 향상에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는 일자리 및 복지와 같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관리신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유통소비연구소 부소장

인구 구조의 고령화 진행이 가속화됨에 따라 중국에는 거대한 고령 소비군이 형성되었다. 국가통계국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67억명에 해당하는 고령층의 소비군은 중국에 있어서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건설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한다. 따라서 이들의 소비를 효과적으로 촉진한다면 사회전반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창출로 이어져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고령인구의 소비를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령인구를 잘 분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에 맞게 소비를 촉진해야 하므로, 이들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인구는 소비가격에 민감하다. 퇴직 후 소득 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게 핵심이유다. 둘째, 보건의료 소비비율이 높다. 노인은 신체기능이 떨어지면서 약품과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비탄력 수요가 점차 증가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셋째, 노인들은 신체기능의 퇴화 때문에 대민 편의와 관련하여 주민 소비를 만족, 촉진시키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날로 강해지고 있다. 넷째, 도시 고령 인구의 가사 관리 서비스, 음식, 여행 등 서비스 소비 영역의 수요는 여전히 왕성하다. 마지막으로, 고령인구의 소비

발제

행위는 이미 점진적으로 변화가 발생하여 전통형, 보수형 소비 모델에서 신형, 개방형 소비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인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를 촉진 함에 있어 먼저 일본과 한국의 고령층 소비촉진 경험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일본과 한국에서는 고령층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법률을 개선했고, 직업 자격증 제도 시행 등 여러가지 사회적제도 및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를 촉진했었다. 중국은 이러한 일본과 한국의 노력을 배워야 한다. 여기에서 나아가 한・중・일이 협력하여 고령 소비 인프라를 건설하고, 식품 및 의류, 여행상품 등 산업전반에 고령층을 위한 제품 공급이 이루어져 촉진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요코야마 겐지 리쓰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 부학장

일본의 GDP는 1968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2위였으나, 최근에는 중국에 밀려 세계3위로 하락하였다. 이처럼 하락하고 있는 일본의 현재와 미래와 관련해 낮은 경제 성장률은 물론, 인구 감소, 재정적 어려움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 이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GDP순위는 계속 하락할 수 있다. 일본정부는 세 가지 문제를 정치적 안건으로 삼아 일본의 국력 강화를 위한 대책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참고로 일본정부는 아직 어떤 정책에서도 인구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 인구감소 문제는 출산률 감소 문제 대책으로 바뀌어 인구 감소 문제는 미대응 상태로 남아있다. 인구 감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낳아서 번성하자' 라는 슬로건에 대한 반감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 정부는 가족 문제에 집중하는 것을 피해왔다는 것, 출산율 감소보다는 자녀 양육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점, 여성근로자 문제에 집중했다는 점 이 4가지가 핵심 이유다. 국력을 결정하는 기준 중 하나가 인구인데 이대로 가다간 일본은 중국과 미국 아래에 놓일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으로 첫째, 정부 내에 인구정책 전담 부처 및 기관을 설립하여 인구정책을 사회 정책으로 재구성하고, 합리적인 인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탁아소 정책을 제외시켜야 한다. 탁아소의 증설이 인구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더 큰 문제는 탁아소 관련 대책이 여성 근로자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녀의 건전한 양육이라는 개념은 결여되어 있다. 셋째로 일본에게 맞는 정책과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사회복지가 스웨덴식, 프랑스식, 혹은 영국식이어야 한다는 말은 타당하지 않다. 일본의 상황은 스웨덴과 영국과 다르다. 따라서 보다 더 일본사회의 여건에 맞는 정책과 대책이 필요하다. 넷째, 내각은 예산이 부족하므로 효율적인 대책을 실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인구정책 전담부처 및 기관을 설립하여, 모든 저출산 대책관련 예산은 새 부처로 이관되고, 인구성 장관은 경험이 풍부한 정치인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토론

전향란 중국 천진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소장

한 · 중 · 일은 저출산 • 고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세 나라 모두 정부가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 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데, 이를 위한 해결책은 노인 일자리 창출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노인고령자 고용촉진법, 기업은 정년폐지, 지역에서는 지역중심으로 재취업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행정지역 단위 서로 간 협력을 통한 노인일자리 시스템 구축도 하나의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환황해포럼과 같은 한 · 중 · 일 포럼을 통해 서로간 빅데이터를 공유하고, 노인취업관련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남수중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한 · 중 · 일 3국의 저출산 • 고령화 문제는 똑 같은 환경과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저출산과 일자리 창출문제는 구분할 수 없는 불가분의 문제이다. 또한 고령화는 노인빈부로 나아가 탈 소비화로 이어진다. 사회 전체로 보면 고령화는 노동에 참가할 수 있는 비율이 줄어드는게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이러한 저출산 • 고령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해결책은 출산률을 높이는 것이다.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자리창출이 중요한데, 일자리만 만들어진다고 출산률이 높아지진 않는다. 예를들어, 남성은 정규직일 경우 혼인을 많이 하고, 여성은 노동시간이 이슈 시간 적으면 가정에 많이 할애하므로 저출산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반영 되어야 한다. 또한 한 • 중 • 일은 정보를 교류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문제해결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서로간의 자료 및 통계 일치가 되어야 공동연구가 가능하기에 중요하다. 3국이 서로 공동으로 연구를 해야만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홍원표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저출산 • 고령화 현상은 복합적인 문제다. 각 나라의 정신과 문화와 연관이 있다.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경제적으로 찾자면 일자리문제다. 가장 좋은 방안은 한 · 중 · 일 3국이 모여서 협력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한 · 중 · 일 세 나라는 경제적으로 통합추세가 있기에 미래에는 한 • 중 • 일 FTA가 성사되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과거에는 한 • 중 • 일 세 나라가 경제적으로 편차가 컸지만 이제는 상향 평준화 되고 있는 추세이기에 세 나라가 협업이 가능할 것이다. 구체적인 해결책은 국제창업, 각 나라의 지방정부 차원에서 3국이 노력해야 더 빨리 저출산 고령화문제가 해결 될 것이다.

본 세션 (2-A) - 공생 I

2019년 10월 31일 13:00-15:00
롯데리조트 부여 사비홀 A&B

주 제

지자체 간 대기환경 개선 협력

목표와 내용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심각한 환경문제에 직면해 있는 환황해 지역 지자체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좌 장

이수훈 전 주일대사, 경남대학교 교수

발 표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북한환경정보센터 센터장, 선임연구위원
다와자르갈 울란바트로시 대기오염 절감 부서 팀장
하야시 가즈미치 기타규슈시 일중대기오염대책 담당

토 론

정연앙 충남연구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소장
원동욱 동아대학교 중국일본학부 교수
김남춘 단국대학교 녹지조경학과 교수

발제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북한환경정보센터 센터장, 선임연구위원

미세먼지 대응 동북아 지방정부 협력방안

미세먼지는 지방정부가 주요한 역할을 해야하고, 지방정부간 및 중앙정부와 협력도 더불어 같이 중요하다. 지금 동북아 미세먼지의 수준은 WHO추정 연평균 PM2.5농도(ug/m²)이다.(2016)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 등으로 인해 대량 배출되는 미세먼지 오염으로 인해 동북아 지역의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동북아 중앙정부의 협력의 화두가 1990년대 초부터 2010년까지 황사대응 이였다면 2012년 이후는 황사에서 더욱 발전한 미세먼지와 관련 협력을 시행하고 있다.
국내의 미세먼지 추진체계를 보면 연구기관, 대학, 단체, NGO, 기업이 각각 관련부처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들을 컨설팅/네트워크 해주고 부처끼리는 조정/협력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와 정부 간에는 정상회담, 장관회의, 환경협력공동위, 국장급회의를 통해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다자간에는 한 · 중 · 일 환경장관회의, 동북아환경협력계획, UNFCCC, UNCCD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동북아 지방정부 협력 강화 방안으로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대응 국제 협력 국민정책제안이 있으며 방안을 확인해보면 첫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한 · 중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추진(한 · 중 푸른하늘 파트너십) (세부내용 한 · 중 환경 당국간 인적교류 및 전용선 설치를 통하여 고농도 · 경보/비상저감조치 등 정보공유, 서울 · 북경 고농도계절 공동협력, 한 · 중 푸른하늘 우호도시 MOU 등 지역 차원의 정책 및 기술 협력 강화, 고농도 계절을 중심으로 현행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지역거점 클러스터 사업으로 확대 및 발전, 산업단지와 항만 지역의 미세먼지 감축도모를 위해 '저탄소 푸른하늘 생태산업단지' 건설 및 '친환경 항만' 공동 구축) 둘째, 다양한 국가의 미세먼지 대응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증진(국제적 모범사례 공유 파트너십) (세부내용 특히 금년 고농도 계절에 국제포럼을 개최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치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정책에 활용) 제안을 적극 활용하면 나라간 및 지방정부간에 좋은 영향 및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다와자르갈 울란바트로시 대기오염절감부서 팀장

몽골의 모래먼지 폭풍과 대기 오염

몽골에서는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몽골 국립 기상 및 환경모니터링 기관을 1924년 설치하였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몽골은 대부분이 산지 지형이고 강수량이 적으며 기온변동이 심한 기후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풍식 작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풍식작용이 발생하면 고비사막의 먼지는 지상 5000M까지 상승하며 동풍을 타고 아시아대륙으로 날아간다. 모래바람으로 농지 및 주택의 인프라 파괴, 전원공급, 통신, 운송서비스 중단 공기질 악화라는 피해를 입게 된다.

발제

몽골은 관련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몽골 그린벨트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게르지역과 도심지역을 비교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만들고 있다. 개선 방안으로 인프라 및 게르지역 지역 경계 설정, 촌에서 도시지역으로 이주에 대한 일시적 제한, 대기질 개선지대를 만들고 2019년 5월 15일 이후 원탄 사용 금지, 그린인증 · 에코마크가 부착된 15종 제품에 대한 세금 면세혜택, 야간 전기요금할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건축물 건축시 단열시공을 캠패인화 하였으며 버스와 전기차 u바이크 등을 적극 활용 권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조림 사업을 진행하는데 울란바토르 2020마스터 플랜과 2030까지 개발계획을 통해 1인당 30M² 재조림 완료 계획을 실행할 것이다.

하야시 가즈미치 기타규슈시 일중대기오염대책 담당

중국 대기질 향상을 위한 도시 간 협력계획

기타큐슈시는 1960년대에 환경오염이 심한 도시였다. 하지만 이것들은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인해 많이 극복했다. 이를 위해 주민과 지역정부, 기업이 파트너쉽을 이뤄 진행시켰다. 지역정부는 환경모니터링 및 인프라를 개발하고 정부와 기업에 환경관련 요청엽서를 보내 방법을 찾았고, 주민들은 다큐멘터리 영화제작, 초정대학교수들과의 연구모임을 실시했다. 기업은 오염방지 합의를 체결하고, 에너지 절약 생산 프로세스와 오염방지장비를 도입하는 등 많은 도움을 통해 극복했다. 우리는 이 방법을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전수하였고 5개년 계획을 통해 기타큐슈 내 전문가들을 해당 지역에 파견하고, 중국 엔지니어 초청하여 일본 내 연수 개최했으며, 지역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18년 중일 장관회의에서 양국 장관들은 중국의 모델 도시들과의 협력 활동이 중국의 대기질 개선에 기여했다는 점들을 확인했고, 2021년 회계연도 까지 이 프로젝트를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활동과 더불어 대기질 개선을 위한 모델 프로젝트 및 공동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데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큐슈는 이러한 모델 프로젝트 실시에서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토론

정연앙 충남연구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소장

포럼의 개최지인 충청남도의 사례를 들자면 충청남도에는 서북부 연안의 대형 화력발전소, 석유화학단지, 제철 · 철강 등을 소유하고 기후학적으로도 미세먼지 고농도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추가적으로 공주대학교의 발표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는 단기간적인 배출보다 기후변화로 인해 해빙이 녹는 원인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한다. 이와 같이 많은 원인으로 인해 대기오염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제가 생각하는 해결방안은 일단 협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정부와의 협력은 정보와 자료의 공유가 중요하다. 배출자료, 배출소스, 대기질, 기상학적 변화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자료공유가 1번째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언제 발생하고 이동하는 예측이 중요하고, 예측의 정확성을 평가 · 검증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다수의 측정망이다. 지역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국가와 국가 간, 한 · 중 · 일의 공동 표준 측정관이 필요하고, 공동의 책임으로 관측을 연구에 사용한다면 학문적, 성과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다.

유럽사례를 보면 불가능한 목표를 제외하고 실행 가능한 목표를 만든다. 그리고 배출과 농도관리를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고 최소한의 이행을 할 수 있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 자신에게 할당된 부분에 대해서 자발적, 점진적으로 이행한다. 그리고 표준관측소 체제를 통해 같은 공동체 내에서 활용하고 있다.

충청남도 지역도 이러한 지역지방정부 협의체를 협약을 맺었다고 확인했다. 동아시아지방정부기후합의 가입으로 충청남도 경기도 세종시 구마모토현 대만 등 7개 도시의 “대기질과 온실가스에 대한 노력을 함께하자”라는 약속을 했다고 들었다. 이와 같은 협약이 지방자치단체, 나라 등이 더욱더 많은 도시와 나라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원동욱 동아대학교 중국일본학부 교수

미세먼지나 환경문제는 공생의 문제 보다는 공멸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기 · 해양오염의 심화는 삶의 질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지속력을 저하한다. 공명의 아젠다는 혁명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환경협력은 국가 간의 갈등과 경쟁이 발생해도 협력한다. 우리는 공명의 아젠다를 공생의 아젠다로 만들어야한다

우리가 위치한 충남은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산업, 기후, 지리적 요인으로 외부적 유입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일반 시민적 측면에서 보면 외부적 요인을 과도하게 문제제기를 한다. 이것은 자체적인 미세먼지 전환보다 타국가의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대중적으로는 익숙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해결방안이 되지 않는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내가 생각하는 3가지의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 첫째. 충남지역 주요 연구기관, 과

토론

학기술관련기관, 대학 ngo 등 많은 기업을 연결하여 협력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지역이나 나라에 우수 정책이나 우수기술 거버넌스의 성공적 사례를 확인하고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환황해의 차원은 부족하고 환황해를 넘어서 동북아 차원으로 범위와 지역의 확대가 필요하다. 충청남도에서 가입한 협약 등 많은 것들을 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셋째. 구체적인 시범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기타큐수의 선진적 사례를 중국에 전수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주어진 방식보다 각국이 가지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취약 지점이나 정보들을 각 지방차원에서 시범프로젝트를 시행하고, 기업을 포괄한 지역에서는 기업체와 지방정부의 협력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김남춘 단국대학교 녹지조경학과 교수

충청남도 지역의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자연청정기술을 통한 회복을 실시하고, 혐오시설 이미지를 개설하여 생태관광분야에 관심을 더하고 생태교육의 장을 만들어야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 하고 싶다. 예를 들면 군포시 생태공원을 봤는데 너무 잘 조성된 공원 이였다. 도시에 이러한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싶고 미세먼지가 심할 때 빠르게 정화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포럼을 통해 최근에 화력발전소 방문으로 기업 내 환경을 살펴보았다. 발전소 부지가 매우 넓었고, 다수의 공터가 많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배출원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본인은 사업장이 얼마나 친환경적인가를 확인해 보는 것을 목적을 방문하였다. “사업장에서 환경에 대한 노력은 얼마나 하는 가”,“환경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그리고 사업장의 상황을 기타큐수와 연결하여 많은 생각을 해보았다. 기타큐수와 중국의 파트너쉽의 경우 실제 현상을 확인하고 지역주민과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했는데, 우리나라 사업가들도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사업장들의 친환경적 노력을 해야 하고, 기타큐수가 실시한 발전방안에 대해서 이해하고 협력을 통해 발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다.

영국런던 스모그 이후 이야기를 하면 녹색 가버넌스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회복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거쳤다. 최근에는 도시 곳곳에 커뮤니티 가든을 만들어 미세먼지를 줄이는 식물을 기르는 노력을 하고 있다. 작은 공간이지만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꾸미고 미세먼지 측정장비를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게 하고 있으며 호응이 매우 좋아 광범위한 효과를 얻고 있다.

충청남도에 지역발전상생기금을 명목으로 기업에서 지원해 준다면 그것을 통해 자그만 공간도 정원으로 만들고 미세먼지 측정시설을 생활화 하는 돈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미세먼지에 대한 모델링을 많이 하는데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새로운 연구방안을 만들고 설득력이 높은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본 세션 (2-B) - 공생 II

2019년 10월 31일 13:00-15:00
롯데리조트 부여 사비홀 A&B

주 제

지자체 간 해양오염 개선 협력

목표와 내용

- 내해성격의 황해의 오염실태와 그 개선을 위한 각국(지자체)의 노력과 협력방안 모색

좌 장

이수훈 전 주일대사, 경남대학교 교수

발 표

허재영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승훈 중국 닝보대학교 교수, 동하이연구소 연구원
이소베 아쓰히코 규슈대학 대기해양환경연구센터 교수

토 론

가세로 태안군수
박창호 세한대학교 기획처장, 교수
강겸심 공주대학교 외식상품학전공 교수

발제

김지운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2007년 한국 태안에서 있었던 삼성1호-허베이스피릿호 원유 유출사고, 2013년 중국 청도의 Alga 번식, 화장품이나 치약 등 생활용품에 첨가된 미세플라스틱 문제 등으로 인해 황해의 오염상태는 심각하다. 이러한 심각성은 전북 지역 등에서 산출되는 새우에 플라스틱 성분이 검출되어 한국의 '국민과자' 새우깡에서 48년간 원료로 쓰던 국산 새우를 미국산으로 대체한 예에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오염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충청남도 지자체에서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깨끗한 해안도시 연합'을 설립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 나아가 한·중 협력을 통해 황해 오염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유엔개발계획과 지구환경기금의 지원아래 '황해 광역해양 생태계 사업(YSLMEP)' 등이 있다. 이는 상대방 해역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공유하고, 그것을 토대로 황해를 공동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하지만 이들 단체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에 한계가 있었다. 소위 말하는 'YSLMEP'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연성기구이기에 북한의 참여가 UN안보리에 제재를 받는 등 상황이 애매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황해오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총체적이고 유기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제도적 접근을 넘는 신사고가 요구된다. 먼저, 대기환경과 해양오염은 불가분의 관계이기에 구분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 예를들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바다는 산성화가 되고 이는 또 다른 오염을 야기하고, 해양생태계의 성정을 제한한다. 따라서 대기오염과 해양오염을 연장선 상에 생각하고 총체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농업개혁을 위한 노력과 상호협력이 필요하다. 농작물을 생산함에 있어 비료 등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인산염, 질산염이 많이 발생하여 해양오염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AI기술을 활용한smart farming의 공유 및 확산, 인공고기 개발을 위한 협력이다. 또한 석유 대신 재생가능한 에너지 개발 및 공유가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는 유조선 충돌 등에 따른 석유의 해상 유출 가능성을 줄이는 근본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한승운 닝보대학교 석좌교수, 동하이연구소 연구원

중국의 하구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주요오염물질을 살펴보면 CDR 1330만 톤, 암모니아 15만 톤, 질산염암모니아 210만 톤, 아질산염 5만 톤, 인 23만 톤 등 정말 많은 오염물질이 유입된다. 또한 미세플라스틱 등의 원인으로 나타난 해양오염의 실태는 심각하다. 이러한 오염실태에 대한 중국의 대응방안은 법·제도를 제정하는 것이었는데, 대표적으로 만장제 실시였다. 이는 관련시 당서기, 시장, 부시장을 만의 장으로 임명하여 해양환경관리를 강화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육지오염원의 바다유입 경로 약 9,600개, 그 중 바다 유입 하류 약 700개, 바다유입 오염배출구 약 7,500개, 홍수 배출구 약 1,300개에 빈해습지와 어엽지역에 민감,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또한 중앙과 지방의 해양오염 실시간 측정 원네트워크를 추진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주요해역 및 생물체내의 미세플라스틱 현황기초조사를 완료하는 등 해양쓰레기 예방관리를 강화하였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해양환경보호법의 구조를 살펴보면 주요법률 및 법규가 모호하게 되어있는 부분도 있다. 이는 추후 보완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제안하는 중국의 해양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한-중 지자체간

발제

자매결연도시와 우호협력도시 파트너관계를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환경정책 및 법률전문가, 환경과학 전문가, 환경기업, 환경연구기관, 대학, NGO간 패키지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중 해양오염관리 전문가 간 공동협력 추진으로 해양오염은 조금이나마 나아질 것이라 예상한다.

이소베 아쓰히코 규슈대학 대기해양환경연구센터 교수

동아시아 수역 내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심각하다.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의 햇빛(UV), 산화적 붕괴, 물과의 반응에 의한 분해와 파도와 모래에 의한 마찰로 인한 플라스틱 파쇄로 인해 생성된다. 이러한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생물상 및 생태계에 큰 위협이다. 예를들어, 이러한 미세플라스틱이 해양으로 흘러가 어류들이 이를 섭취하고 산화 스트레스 증가하여, 성장률 감소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일본 정부의 미세 플라스틱 모니터링 결과 동아시아 해양(황해도 포함)은 해양플라스틱 오염의 '핫 스팟' 이다. 추후에도 미흡하게 처리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이 실질적으로 감소되지 않는 한, 해양 플라스틱 오염은 실험실 실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귀환 불능점까지 악화될 수 있고 이 수준을 넘어서면 해양 생물체에 계속되는 피해가 초래될 수 있기에 미세플라스틱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미세플라스틱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미세 플라스틱 크기와 관련하여, 미세 플라스틱 관측과 실험실 기반 연구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는 방안으로는 300um미만의 작은 미세플라스틱을 위한 모니터링 개발 및 사후 리스크평가가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나아가 미래에는 친환경 플라스틱 또는 신소재를 개발하여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줄여야 할 것이다.

토론

가세로 태안군수

바다쓰레기를 세분화하여 보면 육상에서 바다로 가는 쓰레기가 67%, 바다에서 생기는 쓰레기가 33%이다. 현재는 바다쓰레기 발생 원인을 차단할 수가 없어서 차후 수거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바다쓰레기로부터 비롯되는 해양오염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적 차원에서 한 · 중 · 일 거버넌스 체제를 갖춰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 협력단체를 넘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력체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어부관리법, 해양폐기물 관리법 등 국가 내부적으로 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

박상호 세안대학교 기획처장, 교수

2007년 대한민국 태안의 원유사태, 2014년 세월호사건 등 여러가지 해안 사고는 초기상태 대응 잘못한 것이 원인이다. 해양은 잘 모르는 곳이기에 사고가나면 많은 사회적 파급효과를 미치므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센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모니터링센터를 구축하고, 선박에 대한 오일 누출 등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하나의 좋은 방안이다. 또한 한 · 중 · 일 3국의 해양안전을 담당하는 부서 간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겸심 공주대학교 외식상품학전공 교수

대기오염과 해양오염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말이 맞다. 포장지로부터 비롯되는 플라스틱과 같은 해양쓰레기는 썩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식품들 포장성분을 개선하는 것이 해양오염을 예방하는 하나의 좋은 방안이다. 또한 김지운 교수가 제안한 인조고기, 스마트팜 같은 방안도 효율적일 것이다. 또한 포장기술을 개선하여 바다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좋은 방안이다.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양쓰레기 이동경로 정보공유 또한 해야할 것이다. 나아가 미래에는 해양공간관리와 같은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보유 및 수산업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1. 참가자 리스트

1. 전체 참가자

구 분		이름	소속 및 직책
1	연사	가세로	태안군수
2	연사	강경심	공주대학교 외식상품학전공 교수
3	연사	관리신 (关利欣)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유통소비연구소 부소장
4	연사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5	연사	기타하라 마모루 (北原守)	후쿠오카현 일조우호협회 방북단장
6	연사	김남춘	단국대학교 녹지조경학과 교수
7	연사	김수한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8	연사	김정섭	공주시장
9	연사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10	연사	김지운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1	연사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
12	연사	남수중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13	연사	다와자르갈	울란바트로시 대기오염 절감 부서 팀장
14	연사	류밍	상해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주임
15	연사	류바오취엔 (刘宝全)	산동대학교 동북아학원 교수
16	연사	류이팅 (刘毅婷)	헤이룽장성 외사판공실 부처장
17	연사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18	연사	박정현	충청남도 부여군수
19	연사	박창호	세한대학교 기획처장, 교수
20	연사	서정경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
21	연사	서호	통일부 차관
22	연사	스즈키 다쓰지로 (鈴木達治郎)	나가사키대학 핵무기폐기연구센터 부센터장
23	연사	시아칭차오 (夏庆超)	이룽장성 외사판공실 주임과원
24	연사	안도준코 (安藤純子)	후쿠오카대학 동아시아지역언어학과 준교수
25	연사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26	연사	왕샤오링 (王晓玲)	중국사회과학원 글로벌전략연구원 부연구원
27	연사	왕하이쥔 (王海军)	헤이룽장성 외사판공실 주임
28	연사	요코야마겐지 (横山研治)	리쓰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 부학장
29	연사	우융강 (吴永刚)	헤이룽장성 외사판공실 처장
30	연사	원동욱	동아대학교 중국일본학부 교수

2. 초청연사

- 총 4 개국 46 명

10.31 (목) 개회식

역할	구분	이름	소속	발표주제
개회사	한국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축사	한국	유병국	충청남도의회 의장	
축사	한국	서호	통일부 차관	
축사	한국	추궈홍	주한 중국공사	팡쿤 주한중국공사 참사관 축사 대독
수행	한국	장지아펀	주한 중국공사	
환영사	한국	박정현	충청남도 부여군수	
기조연설	한국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환황해권의 미래
	중국	왕하이쥔 (王海军)	헤이룽장성 외사판공실 주임	
	중국	우융강 (吴永刚)	헤이룽장성 외사판공실 처장	
	중국	류이팅 (刘毅婷)	헤이룽장성 외사판공실 부처장	
	중국	시아칭차오(夏庆超)	이룽장성 외사판공실 주임과원	

10.31 (목) 특별세션

역할	구분	이름	소속	발표주제
좌장	한국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발제	한국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한반도평화프로세스: 남북교류협력의 길을 묻는다
발제	중국	쟝사오밍 (张小明)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 교수	동북아 지역 공동체 실현을 위한 독자적 방식
발제	일본	스즈키 다쓰지로 (鈴木達治郎)	나가사키대학 핵무기폐기 연구센터 부센터장	한반도평화에서 동북아비핵무기지대(NWFZ)로: 놓칠수없는기회
토론	한국	김수한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중국	류밍	상해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주임	
토론	일본	기타하라 마모루 (北原守)	후쿠오카현 일조우호협회 방북단장	

1. 참가자 리스트

10.31 (목) 평화

역할	구분	이름	소속	발표주제
좌장	한국	윤황	충남연구원장	
발제	한국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	환황해 역사문화공동체에서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한일관계
발제	중국	류바오취엔 (刘宝全)	산동대학교 동북아학원 교수	동아시아사의 서술, 교육과 동아시아 평화
발제	일본	안도 준코 (安藤純子)	후쿠오카대학 동아시아지역언어학과 준교수	후쿠오카 대학의 중국어 및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향후 전망 및 과제
토론	한국	김정섭	공주시장	
토론	중국	왕샤오링 (王晓玲)	중국사회과학원 글로벌전략연구원 부연구원	
토론	한국	서정경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	

10.31 (목) 번영

역할	구분	이름	소속	발표주제
좌장	한국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	한국	이덕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저출산-고령화대책 및 국제일자리활성화 -산업구조변동을 중심으로
발제	중국	관리신 (关利欣)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유통소비연구소 부소장	한중일 고령층 소비 비교와 전망
발제	일본	요코야마겐지 (横山研治)	리쓰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 부학장	일본의 출산율 감소 대책
토론	중국	전향란 (田香兰)	중국 천진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소장	
토론	한국	남수중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토론	한국	홍원표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10.31 (목) 공생 1

역할	구분	이름	소속	발표주제
좌장	한국	이수훈	전 주일대사, 경남대학교 교수	
발제	한국	추장민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북한환경정보센터 센터장, 선임연구위원	미세먼지대응 동북아지방정부협력
발제	몽골	다와자르갈	울란바트로시 대기오염 절감 부서 팀장	몽골의 모래 먼지 폭풍과 대기 오염
발제	일본	하야시 가즈미치 (林和道)	기타규슈시 일중대기오염대책 담당	중국대기질 향상을 위한 도시간 협력계획
토론	한국	정연앙	충남연구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소장	
토론	한국	원동욱	동아대학교 중국일본학부 교수	
토론	한국	김남춘	단국대학교 녹지조경학과 교수	

10.31 (목) 공생 2

역할	구분	이름	소속	발표주제
좌장	한국	허재영	충남도립대학교 총장	
발제	한국	김지운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자체간 해양오염 개선 협력
발제	한국	한승훈	닝보대학교 석좌교수, 동하이연구소 연구원	한중 해양오염개선 협력방안
발제	일본	이소베 아쓰히코 (磯辺篤彦)	규슈대학 대기해양환경연구센터 교수	동아시아수역 내 해양플라스틱오염 – 미세플라스틱풍도와 현재 및 미래해양에 미치는 영향
토론	한국	가세로	태안군수	
토론	한국	박창호	세한대학교 기획처장, 교수	
토론	한국	강경심	공주대학교 외식상품학전공 교수	

2. 주요 기사리스트

제5회 환황해포럼 기사 리스트

순	날짜	매체	제목
1	2019.10.21	시민일보	충남도, 환황해포럼 31일 개최
2	2019.10.21	내외뉴스통신	충남도, 31일 부여리조트서 환황해포럼 개최
3	2019.10.21	금강일보	환황해권 '인류 공생' 공동체 의식 다진다
4	2019.10.21	중도일보	'제5회 환황해포럼' 31일 개막... 4개국 소통의 장 펼친다
5	2019.10.21	아시아투데이	충남도, 환황해권 '인류 공생' 공동체 의식 확산 모색
6	2019.10.21	아주경제	충남도, 환황해권 '인류 공생' 공동체 의식 다진다
7	2019.10.21	sbn뉴스	【내포】충남도, 환황해권 '인류 공생' 공동체 의식 다진다
8	2019.10.21	에너지경제	충남도, 오는 31일 롯데부여리조트서 '제5회 환황해포럼' 개최
9	2019.10.21	서울경제	환황해권 '인류 공생' 공동체 의식 다진다
10	2019.10.21	국제뉴스	'인류 공생' 환 황해권 포럼 개최
11	2019.10.21	쿠키뉴스	'환황해권 평화 공존' 4개국 협력 모색
12	2019.10.21	파이낸셜 뉴스	충남도, 환황해권 '인류 공생' 공동체 의식 다진다
13	2019.10.21	충청매일	충남도, 환황해권 공동체 의식 다진다
14	2019.10.21	동양일보	충남도, 31일 부여서 '환황해 포럼' 개막
15	2019.10.21	신아일보	충남도, 환황해권 '인류 공생' 공동체 의식 다진다
16	2019.10.21	대전투데이	충남도, '제5회 환황해포럼' 개최
17	2019.10.21	뉴스1	충남도, 5회 환황해포럼 개최…4개국 전문가 평화 · 협력 모색
18	2019.10.21	충청타임스	환황해권 '인류 공생' 공동체 의식 다진다
19	2019.10.21	연합뉴스	한 · 중 · 일 · 몽골 전문가 모여 환황해 평화 방안 논의
20	2019.10.21	중부매일	충남도, 오는 31일 롯데부여리조트서 '제5회 환황해포럼'
21	2019.10.21	충청투데이	제5회 환황해포럼 31일 개막
22	2019.10.22	연합뉴스	[게시판] 한반도평화포럼, 31일부터 양일간 '제5회 환황해포럼' 개최
23	2019.10.22	당진신문	환황해권 '인류 공생' 공동체 의식 다진다
24	2019.10.30	쿠키뉴스	[동정] 양승조 충남도지사 내일 환황해포럼 참석
25	2019.10.30	충청투데이	〈동정〉김정섭 공주시장
26	2019.10.30	한겨레	한 · 중 · 일 · 몽골 '환황해권', 평화 · 공생 방안 찾는다
27	2019.10.30	금강일보	[동정] 가세로 태안군수, 환황해포럼

순	날짜	매체	제목
28	2019.10.30	충남일보	[동정]가세로 태안군수, 31일 환황해포럼 참석
29	2019.10.31	연합뉴스	개회사하는 양승조 충남지사
30	2019.10.31	연합뉴스	기조연설하는 문정인 특보
31	2019.10.31	연합뉴스	문정인 "북한 비핵화하고 미국도 제재 완전히 풀어야"
32	2019.10.31	tbs 교통방송	문정인, "북한 비핵화하고 미국도 제재 완전히 풀어야"
33	2019.10.31	헤럴드경제	문정인"북한 비핵화하고 미국도 제재 완전히 풀어야"
34	2019.10.31	충청리뷰	충남도, 환황해권 국내 · 외 전문가 토론 · 발제 '제5회 환황해 포럼' 개회식
35	2019.10.31	아시아뉴스통신	양승조 충남도지사, "환황해권 평화 · 번영…함께 지혜 모아야"
36	2019.10.31	내외뉴스통신	환황해 포럼 개회... 한 · 중 · 일 · 몽골 긴밀협력 제안
37	2019.10.31	금강일보	"환황해권 평화 · 번영…함께 지혜 모으자"
38	2019.10.31	중도일보	양승조 지사 "환황해권 평화 · 번영 지혜 모아야"
39	2019.10.31	아시아투데이	양승조 충남지사 "환황해권 평화 · 번영…함께 지혜 모아야"
40	2019.10.31	아주경제	양승조 충남도지사 "환황해권 평화 · 번영…함께 지혜 모아야"
41	2019.10.31	당진신문	양승조 지사 "환황해권 평화 · 번영…함께 지혜 모아야"
42	2019.10.31	에너지경제	한 · 중 · 일 · 몽골 등 환황해권 국내 · 외 전문가 토론 · 발제 등 진행
43	2019.10.31	sbn뉴스	【내포】양승조, "환황해권 평화 · 번영…함께 지혜 모아야"
44	2019.10.31	대전투데이	양승조 지사, "환황해권 평화 · 번영…함께 지혜 모아야"
45	2019.10.31	쿠키뉴스	양승조 충남지사 "환황해권 평화 · 번영 지혜 모아야"
46	2019.10.31	노컷뉴스	문정인 특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환황해권 미래와 직결"
47	2019.10.31	브레이크뉴스	양승조 지사, 제5회 환황해 포럼서 지방 · 민간 협력 제안
48	2019.10.31	중부매일	양승조 충남지사 "환황해권 평화 · 번영…함께 지혜 모아야"
49	2019.10.31	불교공뉴스	충남도, 환황해포럼
50	2019.10.31	충청뉴스	양승조 지사, "환황해권 평화 · 번영 지혜 모아야"
51	2019.10.31	디트뉴스24	양승조, "환황해권 평화 · 번영…함께 지혜 모아야"
52	2019.10.31	대전일보	"환황해권 평화 · 번영위해 함께 지혜 모아야"
53	2019.10.31	충청일보	"환황해권 평화 · 번영 함께 지혜 모아야"
54	2019.10.31	충남일보	충남도 환황해권 포럼 양 지사 "평화 · 번영 함께 지혜 모아야"
55	2019.11.01	충청투데이	양승조 지사 "환황해권 번영 함께 지혜 모아야"
56	2019.11.02	sbn뉴스	【영상】양승조 충남지사, "환황해권 번영 · 공생…협력 · 노력 절실"

2. 주요 기사리스트

출 처	시민일보
일 자	2019.10.21
제 목	충남도, 환황해포럼 31일 개최
링 크	http://siminilbo.co.kr/news/newsview.php?ncode=1065589005694091

'환황해권 상생' 소통의 장 열린다
한중일등 4개국 전문가 참석
평화 · 환경등 '인류 공생' 모색

[홍성=최진우 기자] 충남도는 오는 31일, 11월1일 양일간 롯데부여리조트에서 4개국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환황해포럼' 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가 주최하고, 한반도평화포럼과 충남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환황해 인류 공생을 위한 우리 모두의 공간' 을 주제로 정했다.

이번 포럼에는 양승조 도지사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서호 통일부 차관, 이수훈 전 주일대사, 팡쿤 주한 중국 공사,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한 · 중 · 일 및 몽골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는 31일 포럼 첫날 개회식에서는 양 지사의 개회사에 이어 문 특보가 기조연설을 펼칠 계획이다. 또 '남북교류 협력의 길을 묻는다' 를 주제로 한 특별 세션을 열고 남북교류 협력 및 비핵화, 남북정상회담 등의 한반도 평화와 환황해 지역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각국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이후 본 세션은 ▲평화: 역사문화공동체로서의 환황해 지역협력 ▲번영: 저출산 · 고령화 대책 및 국제일자리 활성화 ▲공생: 지자체간 대기환경 개선 협력 ▲공생: 지자체간 해양오염 개선 협력 등 4개 주제로 실시한다.

평화와 번영을 각각 핵심주제로 한 '역사문화공동체로서의 환황해 지역협력' 과 '저출산 · 고령화 대책 및 국제일자리 활성화' 세션에서는 각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지방정부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공생 세션에서는 환황해 지역의 주요 사안으로 떠오른 미세먼지 ·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 환황해 지역 지자체간 환경공동체 의식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포럼 2일차인 오는 11월1일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부여에서 '백제역사문화유적' 탐방을 진행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환황해권 지방정부간 지속적인 우호협력과 교류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며 "4개국 전문가가 모여 공동의 의지를 다지고, 지혜를 모아 한반도 평화시대와 아시아 평화공동체를 향한 견고한 토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출 처	내외뉴스통신
일 자	2019.10.21
제 목	충남도, 31일 부여리조트서 환황해포럼 개최
링 크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0959

[홍성=내외뉴스통신] 강기동 기자 = 충남도는 오는 31일과 11월 1일 이틀간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제5회 환황해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환황해 인류 공생을 위한 우리 모두의 공간'을 주제로 열린다.

포럼은 기조연설과 함께 △평화: 역사문화공동체로서의 환황해 지역협력 △번영: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국제일자리 활성화 △공생: 지자체 간 대기환경 개선 협력 △공생: 지자체 간 해양오염 개선 협력 등 4개 주제로 진행된다.

2. 주요 기사리스트

출 처	금강일보
일 자	2019.10.21
제 목	환황해권 '인류 공생' 공동체 의식 다진다
링 크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13985#0BJz

충남도, 31일 롯데부여리조트서 '제5회 환황해포럼' 개최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 공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제5회 환황해포럼'이 오는 31일과 11월 1일 이틀간 롯데부여리조트에서 개최된다.

'환황해 인류 공생을 위한 우리 모두의 공간'이란 주제로 열리는 포럼에는 양승조 충남지사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서호 통일부 차관, 이수훈 전 주일대사, 팡쿤 주한중국공사,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한 · 중 · 일 및 몽골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포럼 개회식에서는 '남북교류 협력의 길을 묻는다'라는 주제로 특별 세션을 열어 남북교류 협력 및 비핵화,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와 환황해 지역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된다.

본 세션은 ▲평화:역사문화공동체로서의 환황해 지역협력 ▲번영: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국제일자리 활성화 ▲공생:지자체 간 대기환경 개선 협력 ▲공생:지자체 간 해양오염 개선 협력 등 4개 주제로 실시한다.

출 처	중도일보
일 자	2019.10.21
제 목	'제5회 환황해포럼' 31일 개막... 4개국 소통의 장 펼친다
링 크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91021010007998

31일부터 이틀간... 충남 부여서
한 · 중 · 일 · 몽골 전문가 300명 참석
평화.번영.공생 등 교류방안 모색



충남도가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 공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찾고, 공동체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4개국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도는 오는 31일과 11월 1일 이틀간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제5회 환황해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가 주최하고, 한반도평화포럼과 충남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환황해 인류 공생을 위한 우리 모두의 공간'을 주제로 열린다. 이번 포럼에는 양승조 충남지사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서호 통일부 차관, 이수훈 전 주일대사, 팡쿤 주한중국공사,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한 · 중 · 일 및 몽골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첫날 개회식에서는 '남북교류 협력의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한 특별 세션을 열고 남북교류 협력 및 비핵화,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와 환황해 지역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각국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주제별로 열릴 본 세션에서는 평화를 핵심주제로 한 '역사문화공동체로서의 환황해 지역협력'과 번영을 주제로 한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국제일자리 활성화' 세션에서 각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또 공생 세션에서는 환황해 지역의 주요 사안으로 떠오른 미세먼지 ·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 환황해 지역 지자체 간 환경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포럼 이틀째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부여에서 백제역사문화유적 탐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환황해권 지방정부 간 지속적인 우호 협력과 교류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며 "4개국 전문가가 모여 공동의 의지를 다지고, 지혜를 모아 한반도 평화시대와 아시아 평화공동체를 향한 견고한 토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2. 주요 기사리스트

출 처	아시아투데이
일 자	2019.10.21
제 목	충남도, 환황해권 '인류 공생' 공동체 의식 확산 모색
링 크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1021010011236

31일 '제5회 환황해포럼'...문정인 특보 등 한 · 중 · 일 · 몽골 전문가 참석

내포 김관태 기자 = 충남도가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 공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찾고 공동체 의식을 확산코자 4개국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21일 충남도에 따르면 오는 31일과 다음 달 1일 이틀간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제5회 환황해포럼'을 개최한다.

도가 주최하고 한반도평화포럼과 충남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환황해 인류 공생을 위한 우리 모두의 공간'을 주제로 정했다.

이번 포럼에는 양승조 충남지사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서호 통일부 차관, 이수훈 전 주일대사, 팡쿤 주한중국공사,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한 · 중 · 일 및 몽골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31일 포럼 첫날 개회식에서는 양 지사의 개회사에 이어 문 특보가 기조연설을 펼칠 계획이다.

또 '남북교류 협력의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한 특별 세션을 열고 남북교류 협력 및 비핵화,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와 환황해 지역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각국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이후 본 세션은 △평화: 역사문화공동체로서의 환황해 지역협력 △번영: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국제일자리 활성화 △공생: 지자체 간 대기환경 개선 협력 △공생: 지자체 간 해양오염 개선 협력 등 4개 주제로 실시한다.

평화와 번영을 각각 핵심주제로 한 '역사문화공동체로서의 환황해 지역협력'과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국제일자리 활성화' 세션에서는 각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공생 세션에서는 환황해 지역의 주요 사안으로 떠오른 미세먼지 ·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 환황해 지역 지자체 간 환경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포럼 2일차인 1일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부여에서 백제역사문화유적 탐방을 진행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환황해권 지방정부 간 지속적인 우호 협력과 교류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며 "4개국 전문가가 모여 공동의 의지를 다지고 지혜를 모아 한반도 평화시대와 아시아 평화공동체를 향한 견고한 토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 처	아주경제
일 자	2019.10.21
제 목	충남도, 환황해권 '인류 공생' 공동체 의식 다진다
링 크	https://www.ajunews.com/view/20191021091106560

- 도, 오는 31일 롯데부여리조트서 '제5회 환황해포럼' 개최
- 문정인 특보 등 한 · 중 · 일 · 몽골 전문가 참석…평화 · 공생 모색

충남도가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 공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찾고, 공동체 의식을 확산코자 4개국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도는 오는 31일, 11월 1일 이틀간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제5회 환황해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가 주최하고, 한반도평화포럼과 충남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환황해 인류 공생을 위한 우리 모두의 공간'을 주제로 정했다.

이번 포럼에는 양승조 충남지사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서호 통일부 차관, 이수훈 전 주일대사, 팡쿤 주한중국공사,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한 · 중 · 일 및 몽골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31일 포럼 첫날 개회식에서는 양 지사의 개회사에 이어 문 특보가 기조연설을 펼칠 계획이다.

또 '남북교류 협력의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한 특별 세션을 열고 남북교류 협력 및 비핵화,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와 환황해 지역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각국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이후 본 세션은 △평화: 역사문화공동체로서의 환황해 지역협력 △번영: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국제일자리 활성화 △공생: 지자체 간 대기환경 개선 협력 △공생: 지자체 간 해양오염 개선 협력 등 4개 주제로 실시한다.

평화와 번영을 각각 핵심주제로 한 '역사문화공동체로서의 환황해 지역협력'과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국제일자리 활성화' 세션에서는 각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공생 세션에서는 환황해 지역의 주요 사안으로 떠오른 미세먼지 ·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 환황해 지역 지자체 간 환경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포럼 2일차인 1일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부여에서 백제역사문화유적 탐방을 진행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환황해권 지방정부 간 지속적인 우호 협력과 교류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며 "4개국 전문가가 모여 공동의 의지를 다지고, 지혜를 모아 한반도 평화시대와 아시아 평화공동체를 향한 견고한 토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2. 주요 기사리스트

출 처	sbn뉴스
일 자	2019.10.21
제 목	【내포】충남도, 환황해권 '인류 공생' 공동체 의식 다진다
링 크	http://www.seohaenews.net/news/article.html?no=66084#0BQk

충남도, 오는 31일 롯데부여리조트서 '제5회 환황해포럼' 개최
문정인 특보 등 한 · 중 · 일 · 몽골 전문가 참석…평화 · 공생 모색

[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가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 공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찾고, 공동체 의식을 확산코자 4개국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도는 오는 31일, 11월 1일 이틀간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제5회 환황해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가 주최하고, 한반도평화포럼과 충남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환황해 인류 공생을 위한 우리 모두의 공간'을 주제로 정했다.

이번 포럼에는 양승조 충남지사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서호 통일부 차관, 이수훈 전 주일대사, 팡쿤 주한중국공사,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한 · 중 · 일 및 몽골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31일 포럼 첫날 개회식에서는 양 지사의 개회사에 이어 문 특보가 기조연설을 펼칠 계획이다.

또 '남북교류 협력의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한 특별 세션을 열고 남북교류 협력 및 비핵화,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와 환황해 지역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각국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이후 본 세션은 △평화: 역사문화공동체로서의 환황해 지역협력 △번영: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국제일자리 활성화 △공생: 지자체 간 대기환경 개선 협력 △공생: 지자체 간 해양오염 개선 협력 등 4개 주제로 실시한다.

평화와 번영을 각각 핵심주제로 한 '역사문화공동체로서의 환황해 지역협력'과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국제일자리 활성화' 세션에서는 각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공생 세션에서는 환황해 지역의 주요 사안으로 떠오른 미세먼지 ·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 환황해 지역 지자체 간 환경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포럼 2일차인 1일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부여에서 백제역사문화유적 탐방을 진행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환황해권 지방정부 간 지속적인 우호 협력과 교류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며 "4개국 전문가가 모여 공동의 의지를 다지고, 지혜를 모아 한반도 평화시대와 아시아 평화공동체를 향한 견고한 토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 처	에너지경제
일 자	2019.10.21
제 목	충남도, 오는 31일 롯데부여리조트서 '제5회 환황해포럼' 개최
링 크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459088

[내포=에너지경제신문 전병찬 기자]충남도가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 공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찾고, 공동체 의식을 확산코자 4개국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도는 오는 31일, 다음달 1일 이틀간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제5회 환황해포럼'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도가 주최하고, 한반도평화포럼과 충남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환황해 인류 공생을 위한 우리 모두의 공간'을 주제로 정했다.

이번 포럼에는 양승조 충남지사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서호 통일부 차관, 이수훈 전 주일대사, 팡쿤 주한중국공사,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한 · 중 · 일 및 몽골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31일 포럼 첫날 개회식에서는 양 지사의 개회사에 이어 문 특보가 기조연설을 펼칠 계획이다.

또 '남북교류 협력의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한 특별 세션을 열고 남북교류 협력 및 비핵화,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와 환황해 지역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각국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이후 본 세션은 △평화: 역사문화공동체로서의 환황해 지역협력 △번영: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국제일자리 활성화 △공생: 지자체 간 대기환경 개선 협력 △공생: 지자체 간 해양오염 개선 협력 등 4개 주제로 실시한다.

평화와 번영을 각각 핵심주제로 한 '역사문화공동체로서의 환황해 지역협력'과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국제일자리 활성화' 세션에서는 각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공생 세션에서는 환황해 지역의 주요 사안으로 떠오른 미세먼지 ·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 환황해 지역 지자체 간 환경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포럼 2일차인 1일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부여에서 백제역사문화유적 탐방을 진행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환황해권 지방정부 간 지속적인 우호 협력과 교류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며 "4개국 전문가가 모여 공동의 의지를 다지고, 지혜를 모아 한반도 평화시대와 아시아 평화공동체를 향한 견고한 토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2. 주요 기사리스트

출 처	국제뉴스
일 자	2019.10.21
제 목	'인류 공생' 환 황해권 포럼 개최
링 크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7657

충남도, 31일 '평화와 번영' 등 한 · 중 · 일 및 몽골 전문가 참석

충남도가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 공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찾고 공동체 의식을 확산코자 4개국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충남도는 오는 31일과 11월 1일 이틀간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제5회 환황해포럼'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충남도가 주최하고, 한반도평화포럼과 충남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환황해 인류 공생을 위한 우리 모두의 공간'을 주제로 정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서호 통일부 차관, 이수훈 전 주일대사, 팡쿤 주한중국공사,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한 · 중 · 일 및 몽골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31일 포럼 첫날 개회식에서는 양 지사의 개회사에 이어 문 특보가 기조연설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남북교류 협력의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한 특별 세션을 열고 남북교류 협력 및 비핵화,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와 환황해 지역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각국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이후 본 세션은 평화: 역사문화공동체로서의 환황해 지역협력, 번영: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국제일자리 활성화, 공생: 지자체 간 대기환경 개선 협력, 공생: 지자체 간 해양오염 개선 협력 등 4개 주제로 실시한다.

평화와 번영을 각각 핵심주제로 한 '역사문화공동체로서의 환황해 지역협력'과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국제일자리 활성화' 세션에서는 각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공생 세션에서는 환황해 지역의 주요 사안으로 떠오른 미세먼지 ·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 환황해 지역 지자체간 환경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포럼 2일차인 1일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부여에서 백제역사문화유적 탐방을 진행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환황해권 지방정부간 지속적인 우호 협력과 교류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며 "4개국 전문가가 모여 공동의 의지를 다지고 지혜를 모아 한반도 평화시대와 아시아 평화공동체를 향한 견고한 토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 처	쿠키뉴스
일 자	2019.10.21
제 목	'환황해권 평화 공존' 4개국 협력 모색
링 크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11489



충남도가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 공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찾고, 공동체 의식을 확산코자 4개국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충남도는 오는 31일, 11월 1일 이틀간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제5회 환황해포럼'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환황해 인류 공생을 위한 우리 모두의 공간'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는 양승조 충남지사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서호 통일부 차관, 이수훈 전 주일대사, 팡쿤 주한중국공사,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한 · 중 · 일 및 몽골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31일 포럼 첫날 개회식에서는 양 지사의 개회사에 이어 문 특보가 기조연설을 펼칠 계획이다.

또 '남북교류 협력의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한 특별 세션을 열고 남북교류 협력 및 비핵화,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와 환황해 지역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각국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이후 본 세션은 △평화: 역사문화공동체로서의 환황해 지역협력 △번영: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국제일자리 활성화 △공생: 지자체 간 대기환경 개선 협력 △공생: 지자체 간 해양오염 개선 협력 등 4개 주제로 실시한다.

평화와 번영을 각각 핵심주제로 한 '역사문화공동체로서의 환황해 지역협력'과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국제일자리 활성화' 세션에서는 각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공생 세션에서는 환황해 지역의 주요 사안으로 떠오른 미세먼지 ·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 환황해 지역 지자체 간 환경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포럼 2일차인 1일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부여에서 백제역사문화유적 탐방을 진행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환황해권 지방정부 간 지속적인 우호 협력과 교류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며 "4개국 전문가가 모여 공동의 의지를 다지고, 지혜를 모아 한반도 평화시대와 아시아 평화공동체를 향한 견고한 토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 처	파이낸셜뉴스
일 자	2019.10.21
제 목	충남도, 환황해권 '인류 공생' 공동체 의식 다진다
링 크	http://www.fnnews.com/news/201910210829521246

오는 31일 롯데부여리조트서 '제5회 환황해포럼' 개최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 공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찾고, 공동체 의식을 확산코자 4개국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충남도는 오는 31일, 다음달 1일 이틀간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제5회 환황해포럼'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충남도가 주최하고, 한반도평화포럼과 충남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환황해 인류 공생을 위한 우리 모두의 공간'을 주제로 정했다.

이번 포럼에는 양승조 충남지사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서호 통일부 차관, 이수훈 전 주일대사, 팡쿤 주한중국공사,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한 · 중 · 일 및 몽골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31일 포럼 첫날 개회식에서는 양 지사의 개회사에 이어 문 특보가 기조연설을 펼칠 계획이다.

또 '남북교류 협력의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한 특별 세션을 열고 남북교류 협력 및 비핵화,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와 환황해 지역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각국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이후 본 세션은 △평화: 역사문화공동체로서의 환황해 지역협력 △번영: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국제일자리 활성화 △공생: 지자체 간 대기환경 개선 협력 △공생: 지자체 간 해양오염 개선 협력 등 4개 주제로 실시한다.

평화와 번영을 각각 핵심주제로 한 '역사문화공동체로서의 환황해 지역협력'과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국제일자리 활성화' 세션에서는 각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공생 세션에서는 환황해 지역의 주요 사안으로 떠오른 미세먼지 ·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 환황해 지역 지자체 간 환경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포럼 2일차인 1일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부여에서 백제역사문화유적 탐방을 진행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환황해권 지방정부 간 지속적인 우호 협력과 교류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며 "4개국 전문가가 모여 공동의 의지를 다지고, 지혜를 모아 한반도 평화시대와 아시아 평화공동체를 향한 견고한 토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 처	충청매일
일 자	2019.10.21
제 목	충남도, 환황해권 공동체 의식 다진다
링 크	http://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3033#09SX

포럼 개최…문정인 특보 등 한 · 중 · 일 · 몽골 전문가 참석

[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충남도가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 공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찾고, 공동체 의식을 확산코자 4개국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도는 오는 31일, 11월 1일 이틀간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제5회 환황해포럼' 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도가 주최하고, 한반도평화포럼과 충남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환황해 인류 공생을 위한 우리 모두의 공간' 을 주제로 정했다.

이번 포럼에는 양승조 충남지사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서호 통일부 차관, 이수훈 전 주일대사, 팡쿤 주한중국공사,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한 · 중 · 일 및 몽골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는 31일 포럼 첫날 개회식에서는 양 지사의 개회사에 이어 문 특보가 기조연설을 펼칠 계획이다.

또 '남북교류 협력의 길을 묻는다' 를 주제로 한 특별 세션을 열고 남북교류 협력 및 비핵화,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와 환황해 지역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각국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이후 본 세션은 △평화-역사문화공동체로서의 환황해 지역협력 △번영-저 출산-고령화 대책 및 국제일자리 활성화 △공생-지자체 간 대기환경 개선 협력 △지자체 간 해양오염 개선 협력 등 4개 주제로 실시한다.

평화와 번영을 각각 핵심주제로 한 '역사문화공동체로서의 환황해 지역협력' 과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국제일자리 활성화' 세션에서는 각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공생 세션에서는 환황해 지역의 주요 사안으로 떠오른 미세먼지 ·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 환황해 지역 지자체 간 환경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포럼 2일차인 내달 1일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부여에서 백제역사문화유적 탐방을 진행한다.

2. 주요 기사리스트

출 처	동양일보
일 자	2019.10.21
제 목	충남도, 31일 부여서 '환황해 포럼' 개막
링 크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5021

오는 31일 롯데부여리조트서 ‘제5회 환황해포럼’ 개최

[동양일보 정래수 기자]충남도는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 롯데 부여리조트에서 '5회 환황해 포럼'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환황해 인류 공생을 위한 우리 모두의 공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양승조 충남지사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서호 통일부 차관, 이수훈 전 주일대사, 팡쿤 주한중국공사,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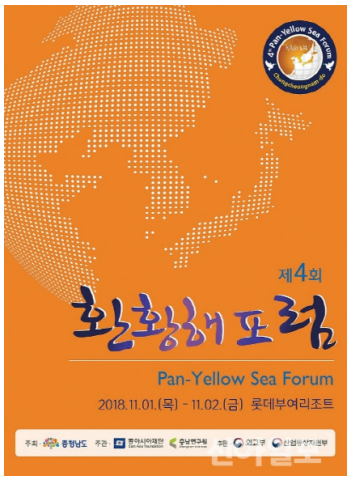
포럼 첫날에는 양승조 지사의 개회사에 이어 문 특보의 기조연설이 진행된다.

이어 '남북교류 협력의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특별 세션이 열려 남북교류 협력과 비핵화, 남북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확산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정착 분위기에 대한 각국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이밖에 '역사문화공동체로서의 환황해 지역협력', '저출산 · 고령화 대책 및 국제일자리 활성화', '지자체 간 대기환경 개선 협력', '지자체 간 해양오염 개선 협력' 등 4개 주제의 세션이 마련돼 있다.

둘째 날에는 부여 백제 역사문화유적 탐방이 진행된다.

출 처	신아일보
일 자	2019.10.21
제 목	충남도, 환황해권 '인류 공생' 공동체 의식 다진다
링 크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5643



지난해 열린 제4회 환황해포럼 웹포스터. (자료=충남도)

오는 31일 롯데부여리조트서 '제5회 환황해포럼' 개최
문정인 특보 등 한 · 중 · 일 · 몽골 전문가 참석…평화 · 공생 모색

충남도가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 공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찾고, 공동체 의식을 확산코자 4개국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도는 오는 31일, 11월 1일 이틀간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제5회 환황해포럼'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도가 주최하고, 한반도평화포럼과 충남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환황해 인류 공생을 위한 우리 모두의 공간'을 주제로 정했다.

이번 포럼에는 양승조 충남지사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서호 통일부 차관, 이수훈 전 주일대사, 팡쿤 주한중국공사,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한 · 중 · 일 및 몽골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31일 포럼 첫날 개회식에서는 양 지사의 개회사에 이어 문 특보가 기조연설을 펼칠 계획이다.

또 '남북교류 협력의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한 특별 세션을 열고 남북교류 협력 및 비핵화,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와 환황해 지역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각국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이후 본 세션은 △평화: 역사문화공동체로서의 환황해 지역협력 △번영: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국제일자리 활성화 △공생: 지자체 간 대기환경 개선 협력 △공생: 지자체 간 해양오염 개선 협력 등 4개 주제로 실시한다.

평화와 번영을 각각 핵심주제로 한 '역사문화공동체로서의 환황해 지역협력'과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국제일자리 활성화' 세션에서는 각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공생 세션에서는 환황해 지역의 주요 사안으로 떠오른 미세먼지 ·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 환황해 지역 지자체 간 환경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포럼 2일차인 1일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부여에서 백제역사문화유적 탐방을 진행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환황해권 지방정부 간 지속적인 우호 협력과 교류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며 "4개국 전문가가 모여 공동의 의지를 다지고, 지혜를 모아 한반도 평화시대와 아시아 평화공동체를 향한 견고한 토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2. 주요 기사리스트

출 처	대전투데이
일 자	2019.10.21
제 목	충남도, '제5회 환황해포럼' 개최
링 크	http://www.daej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73619#09SA

문정인 특보 등 한 · 중 · 일 · 몽골 전문가 참석…평화 · 공생 모색

충남도가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 공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찾고, 공동체 의식을 확산코자 4개국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도는 오는 31일, 11월 1일 이틀간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제5회 환황해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가 주최하고, 한반도평화포럼과 충남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환황해 인류 공생을 위한 우리 모두의 공간'을 주제로 정했다.

이번 포럼에는 양승조 충남지사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서호 통일부 차관, 이수훈 전 주일대사, 팡쿤 주한중국공사,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한 · 중 · 일 및 몽골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31일 포럼 첫날 개회식에서는 양 지사의 개회사에 이어 문 특보가 기조연설을 펼칠 계획이다.

또 '남북교류 협력의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한 특별 세션을 열고 남북교류 협력 및 비핵화,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와 환황해 지역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각국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이후 본 세션은 ▲평화: 역사문화공동체로서의 환황해 지역협력 ▲번영: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국제일자리 활성화 ▲공생: 지자체 간 대기환경 개선 협력 ▲공생: 지자체 간 해양오염 개선 협력 등 4개 주제로 실시한다.

평화와 번영을 각각 핵심주제로 한 '역사문화공동체로서의 환황해 지역협력'과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국제일자리 활성화' 세션에서는 각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공생 세션에서는 환황해 지역의 주요 사안으로 떠오른 미세먼지 ·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 환황해 지역 지자체 간 환경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포럼 2일차인 1일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부여에서 백제역사문화유적 탐방을 진행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환황해권 지방정부 간 지속적인 우호 협력과 교류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며 "4개국 전문가가 모여 공동의 의지를 다지고, 지혜를 모아 한반도 평화시대와 아시아 평화공동체를 향한 견고한 토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 처	뉴스1
일 자	2019.10.21
제 목	충남도, 5회 환황해포럼 개최…4개국 전문가 평화 · 협력 모색
링 크	http://news1.kr/articles/?3748343



제5회 환황해포럼 포스터.© 뉴스1

충남도가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4개국 전문가와 함께 '제5회 환황해포럼'을 마련한다.

오는 31일과 11월 1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은 도가 주최하고 한반도평화포럼과 충남연구원이 공동주관한다.

'환황해 인류 공생을 위한 우리 모두의 공간'을 주제로 진행되는 포럼은 양승조 충남지사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서호 통일부 차관, 이수훈 전 주일대사, 팡쿤 주한중국공사,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한 · 중 · 일 및 몽골 전문가 등 4개국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31일 포럼 첫날 개회식에서는 양 지사의 개회사에 이어 문 특보가 기조연설을 한다. 이어 '남북교류 협력의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열리는 특별 세션과 함께 남북교류 협력 및 비핵화,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와 환황해 지역의 항구적 평화 정착 등을 위한 각국 전문가들의 토론이 열린다.

이후 본 세션은 △평화(역사문화공동체로서의 환황해 지역협력) △번영(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국제일자리 활성화) △공생(지자체 간 대기환경 개선 협력) △공생(지자체 간 해양오염 개선 협력) 등 4개 주제로 진행된다.

포럼 2일차인 1일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부여에서 백제역사문화유적 탐방으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환황해권 지방정부 간 지속적인 우호 협력과 교류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며 "4개국 전문가가 모여 공동의 의지를 다지고, 지혜를 모아 한반도 평화시대와 아시아 평화공동체를 향한 견고한 토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2. 주요 기사리스트

출 처	충청타임스
일 자	2019.10.21
제 목	환황해권 '인류 공생' 공동체 의식 다진다
링 크	http://www.cc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588199#08W8

충남도, 31일 · 다음달 1일 환황해포럼 … 협력 방안 모색
한 · 중 · 일 · 몽골 전문가 참석 … 백제역사문화유적 탐방도

충남도가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 공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찾고, 공동체 의식을 확산코자 4개국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도는 오는 31일, 11월 1일 이틀간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제5회 환황해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가 주최하고, 한반도평화포럼과 충남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환황해 인류 공생을 위한 우리 모두의 공간'을 주제로 정했다.

이번 포럼에는 양승조 충남지사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서호 통일부 차관, 이수훈 전 주일대사, 팡쿤 주한중국공사,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한 · 중 · 일 및 몽골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31일 포럼 첫날 개회식에서는 양 지사의 개회사에 이어 문 특보가 기조연설을 펼칠 계획이다.

또 '남북교류 협력의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한 특별 세션을 열고 남북교류 협력 및 비핵화,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와 환황해 지역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각국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이후 본 세션은 △평화: 역사문화공동체로서의 환황해 지역협력 △번영: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국제일자리 활성화 △공생: 지자체 간 대기환경 개선 협력 △공생: 지자체 간 해양오염 개선 협력 등 4개 주제로 실시한다.

평화와 번영을 각각 핵심주제로 한 '역사문화공동체로서의 환황해 지역협력'과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국제일자리 활성화' 세션에서는 각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공생 세션에서는 환황해 지역의 주요 사안으로 떠오른 미세먼지 ·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 환황해 지역 지자체 간 환경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포럼 2일차인 1일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부여에서 백제역사문화유적 탐방을 진행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환황해권 지방정부 간 지속적인 우호 협력과 교류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며 "4개국 전문가가 모여 공동의 의지를 다지고, 지혜를 모아 한반도 평화시대와 아시아 평화공동체를 향한 견고한 토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 처	연합뉴스
일 자	2019.10.21
제 목	한 · 중 · 일 · 몽골 전문가 모여 환황해 평화 방안 논의
링 크	https://www.yna.co.kr/view/AKR20191021072500063?input=1195m

부여서 31일 '환황해 포럼' 개막…문정인 특보 등 참석



지난해 열린 '제4회 환황해 포럼'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한 · 중 · 일 · 몽골 등 4개국 전문가들이 충남에 모여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공생 방안을 논의한다.

충남도는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 롯데 부여리조트에서 '제5회 환황해 포럼'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환황해 인류 공생을 위한 우리 모두의 공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양승조 충남지사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서호 통일부 차관, 이수훈 전 주일대사, 팡쿤 주한중국공사,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포럼 첫날에는 양승조 지사의 개회사에 이어 문 특보의 기조연설이 진행된다.

이어 '남북교류 협력의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특별 세션이 열려 남북교류 협력과 비핵화, 남북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확산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정착 분위기에 대한 각국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이밖에 '역사문화공동체로서의 환황해 지역협력', '저출산 · 고령화 대책 및 국제일자리 활성화', '지자체 간 대기환경 개선 협력', '지자체 간 해양오염 개선 협력' 등 4개 주제의 세션이 마련돼 있다.
둘째 날에는 부여 백제 역사문화유적 탐방이 진행된다.

2. 주요 기사리스트

출 처	중부매일
일 자	2019.10.21
제 목	충남도, 오는 31일 롯데부여리조트서 '제5회 환황해포럼'
링 크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4630

문정인 특보 등 한 · 중 · 일 · 몽골 전문가 참석…평화 · 공생 모색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도가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 공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찾고 공동체 의식을 확산코자 4개국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도는 오는 31일과 11월 1일 이틀간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제5회 환황해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충남도가 주최하고 한반도평화포럼과 충남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환황해 인류 공생을 위한 우리 모두의 공간'을 주제로 정했다.

이번 포럼에는 양승조 충남지사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서호 통일부 차관, 이수훈 전 주일대사, 팡쿤 주한중국공사,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한 · 중 · 일 및 몽골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31일 포럼 첫날 개회식에서는 양 지사의 개회사에 이어 문 특보가 기조연설을 펼칠 계획이다.

또 '남북교류 협력의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한 특별 세션을 열고 남북교류 협력 및 비핵화,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와 환황해 지역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각국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이후 본 세션은 ▶평화: 역사문화공동체로서의 환황해 지역협력 ▶번영: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국제일자리 활성화 ▶공생: 지자체 간 대기환경 개선 협력 ▶공생: 지자체 간 해양오염 개선 협력 등 4개 주제로 실시한다.

평화와 번영을 각각 핵심주제로 한 '역사문화공동체로서의 환황해 지역협력'과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국제일자리 활성화' 세션에서는 각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공생 세션에서는 환황해 지역의 주요 사안으로 떠오른 미세먼지 ·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 환황해 지역 지자체 간 환경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포럼 2일차인 1일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부여에서 백제역사문화유적 탐방을 진행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환황해권 지방정부 간 지속적인 우호 협력과 교류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며 "4개국 전문가가 모여 공동의 의지를 다지고 지혜를 모아 한반도 평화시대와 아시아 평화공동체를 향한 견고한 토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 처	충청투데이
일 자	2019.10.21
제 목	제5회 환황해포럼 31일 개막
링 크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0468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도는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 공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찾고 공동체 의식을 확산하키 위해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이틀간 한 · 중 · 일 · 몽골 등 4개국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5회 환황해포럼' 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도가 주최하고 한반도평화포럼과 충남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환황해 인류 공생을 위한 우리 모두의 공간'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포럼에는 양승조 충남지사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서호 통일부 차관, 이수훈 전 주일대사, 팡쿤 주한중국공사,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한 · 중 · 일 및 몽골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는 31일 포럼 첫날 개회식에서는 양 지사의 개회사에 이어 문 특보가 기조연설을 펼칠 계획이다.

또 '남북교류 협력의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한 특별 세션을 열고 남북교류 협력 및 비핵화,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와 환황해 지역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각국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이후 본 세션은 △평화: 역사문화공동체로서의 환황해 지역협력 △번영: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국제일자리 활성화 △공생: 지자체 간 대기환경 개선 협력 △공생: 지자체 간 해양오염 개선 협력 등 4개 주제로 진행된다.

포럼 2일차인 1일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부여에서 백제역사문화유적 탐방이 진행된다.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2. 주요 기사리스트

출 처	연합뉴스
일 자	2019.10.22
제 목	[게시판] 한반도평화포럼, 31일부터 양일간 '제5회 환황해포럼' 개최
링 크	https://www.yna.co.kr/view/AKR20191022109600504?input=1195m

▲ 사단법인 한반도평화포럼과 충남연구원이 공동주관하는 제5회 환황해포럼이 10월 31일~11월 1일 충남 부여군 롯데리조트 부여에서 열린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가 기조강연을 하고, 한중일 3국의 연구자 · 관료가 모여 환황해지역 지방정부 협력과 저출산 · 고령화 대책 및 국제 일자리 창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번 행사는 충청남도가 주최하고 외교부가 후원한다. (서울=연합뉴스)



[한반도평화포럼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출 처	당진신문
일 자	2019.10.22
제 목	환황해권 '인류 공생' 공동체 의식 다진다
링 크	http://www.idj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03503

충남도, 오는 31일 롯데부여리조트서 '제5회 환황해포럼' 개최
문정인 특보 등 한 · 중 · 일 · 몽골 전문가 참석…평화 · 공생 모색

[당진신문] 충남도가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 공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찾고, 공동체 의식을 확산코자 4개국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도는 오는 31일, 11월 1일 이틀간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제5회 환황해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가 주최하고, 한반도평화포럼과 충남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환황해 인류 공생을 위한 우리 모두의 공간'을 주제로 정했다.

이번 포럼에는 양승조 충남지사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서호 통일부 차관, 이수훈 전 주일대사, 팡쿤 주한중국공사,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한 · 중 · 일 및 몽골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31일 포럼 첫날 개회식에서는 양 지사의 개회사에 이어 문 특보가 기조연설을 펼칠 계획이다.

또 '남북교류 협력의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한 특별 세션을 열고 남북교류 협력 및 비핵화,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와 환황해 지역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각국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이후 본 세션은 △평화: 역사문화공동체로서의 환황해 지역협력 △번영: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국제일자리 활성화 △공생: 지자체 간 대기환경 개선 협력 △공생: 지자체 간 해양오염 개선 협력 등 4개 주제로 실시한다.

평화와 번영을 각각 핵심주제로 한 '역사문화공동체로서의 환황해 지역협력'과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국제일자리 활성화' 세션에서는 각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공생 세션에서는 환황해 지역의 주요 사안으로 떠오른 미세먼지 ·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 환황해 지역 지자체 간 환경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포럼 2일차인 1일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부여에서 백제역사문화유적 탐방을 진행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환황해권 지방정부 간 지속적인 우호 협력과 교류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며 "4개국 전문가가 모여 공동의 의지를 다지고, 지혜를 모아 한반도 평화시대와 아시아 평화공동체를 향한 견고한 토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2. 주요 기사리스트

출 처	쿠키뉴스
일 자	2019.10.30
제 목	[동정] 양승조 충남도지사 내일 환황해포럼 참석
링 크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14557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31일 오전 9시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리는 제5회 환황해 포럼에 참석하고, 오후 4시에는 아산 도고글로리에서 열리는 전국 바이어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다.

출 처	충정투데이
일 자	2019.10.30
제 목	〈동정〉김정섭 공주시장
링 크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2133

▲김정섭 공주시장은 31일 오전 9시 30분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열리는 제5회 환황해 포럼 개회식 및 역사문화세션 토론회에 참석한다.



2. 주요 기사리스트

출 처	한겨레
일 자	2019.10.30
제 목	한 · 중 · 일 · 몽골 '환황해권', 평화 · 공생 방안 찾는다
링 크	http://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915178.html

제5회 환황해포럼, 충남도 주최 31일 개막
열쇳말 '평화'…남북경협 · 다자간협력 해야



한 · 중 · 일 · 몽골 등 환황해권의 지방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실천 방안을 찾고 협력해 동북아 평화를 모색하는 제5회 환황해포럼이 31일 충남 부여에서 개막한다.

서해로 연결된 한국과 중국을 비롯해 황해권과 밀접한 관계인 일본과 몽골 등 4개 나라가 공존 · 공생을 모색하는 '제5회 환황해포럼'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팡쿤 주한중국공사와 한 · 중 · 일 · 몽골 학자, 각계 전문가 등 300여명 참석한 가운데 31일 충남 부여 롯데부여리조트에서 막을 올린다.

충남도가 주최하고 한반도평화포럼과 충남연구원이 주관하는 올 환황해포럼의 열쇳말은 '평화'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는 미리 배포한 기조 연설문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종착역은 '핵무기 없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다. 그러나 현재 한반도 평화는 북한이 미국은 물론 남한에 대해서도 냉담한 태도를 취하며 잇따라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는 등 녹록지 않다"며 "그러나 북한의 이런 행동은 '제도의 안전'과 '발전의 장애물 제거' 등 두 개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문 특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요체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동시에 병행 추진하는 것이다.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부단히 노력해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한반도 서쪽에서 중국까지 연결하는 환서해권의 교통물류 산업 벨트, 한반도 동쪽에서 러시아로 연결되는 환동해권의 에너지자원 벨트, 접경지역의 환경관광 벨트가 뼈대를 이룬다. 한 축에 있는 충남도민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견인 세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별 주제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실천 방안-남북교류 협력의 길을 묻는다' 세션에서 이영훈 에스케이(SK) 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남북 경제협력이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한다. 이 수석연구원은 발표문에서 "남북은

모두 경제성장이 필요하고 이를 달성하려면 혁신이 필요하다. 경협을 통해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을 보완 · 교환한다면 남한은 신남방 · 신북방, 북한은 세계수준의 풍요를 이루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남북 경협은 해양과 대륙을 연결해 5억 인구의 새로운 시장도 개척할 수 있다"고 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지난해 열린 환황해포럼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장샤오핑 중국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동북아지역 공동체 실현을 위해 환황해권 다자간 경제협력체를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환황해권의 핵심 국가인 중국, 한국, 일본은 경제적으로 상호의존성과 상호보완성이 뚜렷한 특징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냉전체제 이후 안보 딜레마에 빠져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치열한 주권 · 영토권 경쟁 △역사적 기억 △강대국 경쟁과 대결 △북한 핵 문제를 지역 협력을 저해하는 장애 요소로 꼽았다. 그는 "한 · 중 · 일이 정상회담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고, 광역두만강개발계획에 참여하는 등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면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체제가 갖춰질 것"이라며 "강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이 과거의 조공 관계를 털어내고 동북아 지역 공동체 건설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본은 비핵화를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관건이라고 꼽았다. 스즈키 다쓰지로 나가사키대 핵무기폐기연구센터 부센터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은 남북이 도달한 가장 중요한 합의다. 지금이 동북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나가사키대 핵무기폐기연구센터(RECNA)가 2015년 보고한 '동북아 비핵무기지대에 대한 포괄적 접근(NWFZ)' 이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오늘날 국가 외교는 점점 복잡해지고 세계질서 변화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환황해포럼은 지난 5년 동안 동북아의 지방정부와 민간 영역이 머리를 맞대고 공생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며 "동북아 해상 교류의 중심국가인 옛 백제의 수도에서 환황해포럼을 열게 돼 기쁘다. 환황해포럼은 앞으로도 지역의 미래, 인류공생의 미래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는 구실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 주요 기사리스트

출 처	금강일보
일 자	2019.10.30
제 목	[동정] 가세로 태안군수, 환황해포럼
링 크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16943#0BJz



가세로 태안군수

▲가세로 태안군수는 31일 오전 11시 40분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열리는 '제5회 환황해포럼' 에 참석한다.

출 처	충남일보
일 자	2019.10.30
제 목	[동정]가세로 태안군수, 31일 환황해포럼 참석
링 크	http://www.chungna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18643

가세로 태안군수는 31일 오전 11시 40분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열리는 '제5회 환황해포럼'에 참석한다.

2. 주요 기사리스트

출 처	연합뉴스
일 자	2019.10.31
제 목	개회사하는 양승조 충남지사
링 크	https://www.yna.co.kr/view/PYH20191031218400063?input=1196m



(부여=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양승조 충남지사가 31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제5회 환황해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9.10.31

jyoung@yna.co.kr

〈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19/10/31 16:20 송고

출 처	연합뉴스
일 자	2019.10.31
제 목	기조연설하는 문정인 특보
링 크	https://www.yna.co.kr/view/PYH20191031218300063?input=1196m



(부여=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31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제5회 환황해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31

jyoung@yna.co.kr

〈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19/10/31 16:20 송고

2. 주요 기사리스트

출 처	연합뉴스
일 자	2019.10.31
제 목	개회사하는 양승조 충남지사
링 크	https://www.yna.co.kr/view/PYH20191031218400063?input=1196m

부여서 열린 환황해 포럼서 밝혀…"북한 역지사지해야"



기조연설하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촬영 박주영 기자]

(부여=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31일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 미국도 그에 맞춰 제재를 완전히 풀어주는 일괄 타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제5회 환황해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도 내년 대선에서 당선돼야 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국민 불만을 잠재워야 하는 만큼 두 지도자 모두 대타결 의사가 있다고 본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최소한의 핵 억지력 구축을 위해 한미동맹을 필요로 하지만 거기에 안주하다 보면 항구적인 평화가 어렵다"며 "문재인 정부는 안보 불안을 넘어서기 위해 'peace keeping'(평화 유지)을 넘어서 'peace making'(평화 만들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면서도 지켜야 하는 모순적인 입장에 있다 보니 우리의 패트리엇 미사일 · F-35A 전투기 도입에 대해 북한이 위협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북한을 '역지사지'하는 시각에서 보면 흡수통일 하려는 것 아니냐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의 평화 유지와 만들기 전략 모두 불안전한 평화 관리에 불과하다"며 "전쟁의 구조적 원인을 제거하는 영구적인 평화 방안은 '남북통일' 밖에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서호 통일부 차관도 축사에서 "손흥민 선수 평양 통제 논란에 이어 금강산 관광 시설과 관련한 갈등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협상의 핵심은 역지사지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못박았다.

이어 "북한은 우리가 소유하는 국가가 아니며 협상의 상대"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경제 전략,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켜 나가자"고 역설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개회사에서 "남북통일의 경제적 편익이 1경4천451조로 통일에 드는 비용의 3배가 넘는다는 통계치가 있다"며 "다양한 주체들이 힘을 모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자"고 말했다.



기조연설하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촬영 박주영 기자]

충남도가 주최하고 한반도평화포럼 · 충남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포럼은 '환황해 인류 공생을 위한 우리 모두의 공간'을 주제로 이수훈 전 주일대사, 팡쿤 주한중국공사,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주요 인사들의 환영사와 기조연설에 이어 '남북교류 협력의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특별 세션이 열려 한 · 중 · 일 · 몽골 등 4개국 전문가들이 남북교류 협력과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 정착 분위기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2. 주요 기사리스트

출 처	tbs 교통방송
일 자	2019.10.31
제 목	문정인, "북한 비핵화하고 미국도 제재 완전히 풀어야"
링 크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9&seq_800=10364234



기조연설하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사진=연합〉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 미국도 이에 맞춰 제재를 완전히 풀어주는 일괄 타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문 특보는 오늘(31일) 충남 부여에서 열린 '제5회 환황해 포럼' 기조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내년 대선에서 당선돼야 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국민 불만을 잠재워야 하는 만큼 두 지도자 모두 대타결 의사가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최소한의 핵 억지력 구축을 위해 한미동맹을 필요로 하지만 거기에 안주하다 보면 항구적인 평화가 어렵다"며 "문재인 정부는 안보 불안을 넘어서기 위해 '평화 유지'를 넘어서 '평화 만들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평화 유지와 만들기 전략 모두 불안전한 평화 관리에 불과하다"며 "전쟁의 구조적 원인을 제거하는 영구적인 평화 방안은 '남북통일' 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출 처	헤럴드경제
일 자	2019.10.31
제 목	문정인“북한 비핵화하고 미국도 제재 완전히 풀어야”
링 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031000646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31일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 미국도 그에 맞춰 제재를 완전히 풀어주는 일괄 타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 특보는 이날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제5회 환황해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도 내년 대선에서 당선돼야 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국민 불만을 잠재워야 하는 만큼 두 지도자 모두 대타결 의사가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최소한의 핵 억지력 구축을 위해 한미동맹을 필요로 하지만 거기에 안주하다 보면 항구적인 평화가 어렵다”며 “문재인 정부는 안보 불안을 넘어서기 위해 ‘peace keeping’(평화 유지)을 넘어서 'peace making'(평화 만들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면서도 지켜야 하는 모순적인 입장에 있다 보니 우리의 패트리엇 미사일 · F-35A 전투기 도입에 대해 북한이 위협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북한을 ‘역지사지'하는 시각에서 보면 흡수통일 하려는 것 아니냐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의 평화 유지와 만들기 전략 모두 불안전한 평화 관리에 불과하다”며 “전쟁의 구조적 원인을 제거하는 영구적인 평화 방안은 ‘남북통일’ 밖에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서호 통일부 차관도 축사에서 “손흥민 선수 평양 통제 논란에 이어 금강산 관광 시설과 관련한 갈등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협상의 핵심은 역지사지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못박았다.

이어 “북한은 우리가 소유하는 국가가 아니며 협상의 상대”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경제 전략,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켜 나가자”고 역설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개회사에서 “남북통일의 경제적 편익이 1경4천451조로 통일에 드는 비용의 3배가 넘는다는 통계치가 있다”며 “다양한 주체들이 힘을 모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자”고 말했다.

충남도가 주최하고 한반도평화포럼 · 충남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포럼은 ‘환황해 인류 공생을 위한 우리 모두의 공간’을 주제로 이수훈 전 주일대사, 팡쿤 주한중국공사,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주요 인사들의 환영사와 기조연설에 이어 ‘남북교류 협력의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특별 세션이 열려 한 · 중 · 일 · 몽골 등 4개국 전문가들이 남북교류 협력과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 정착 분위기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2. 주요 기사리스트

출 처	충청리뷰
일 자	2019.10.31
제 목	충남도, 환황해권 국내 · 외 전문가 토론 · 발제 '제5회 환황해 포럼' 개회식
링 크	http://www.seohaenews.net/news/article.html?no=68818#0BQk

양승조 충남지사는 31일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제5회 환황해 포럼' 개회식을 열고, 한 · 중 · 일 · 몽골 등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환황해권 지방 · 민간 간 긴밀한 협력을 제안했다.

양 지사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한 · 중 · 일 및 몽골 전문가,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포럼은 개회식, 특별 세션, 본 세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개회식에서 양 지사는 "환황해 지역은 20세기 냉전의 유산이 남아있는 유일한 지역으로서 역내질서는 복잡하고, 함께 풀어야 할 도전과제는 쌓이고 있다"며 "저출산 · 고령화 · 사회양극화 극복, 환경 · 보건, 대기오염 · 기후변화 대응, 다자무역질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등 국가 차원을 넘어서는 공동의 시대 과제에 대해 지역 차원의 협력과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환황해 포럼은 국가 대 국가 간의 외교적 한계를 넘어 지역 간 협력과 교류 증진을 통해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기 위해 출발했다"며 "그동안 포럼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지방정부와 민간의 영역에서 지난 5년간 꾸준히 머리를 맞대왔다"고 덧붙였다.

양 지사는 "이번 포럼에서는 '인류 공생을 위한 우리 모두의 공간'을 주제로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 △환황해 지역 간 번영과 공생 등 크게 두 가지 분야에 집중코자 한다"며 "이 모두는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시대적 도전이고 어느 한 국가가 풀 수 있는 것이 아닌, 지혜를 모아야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 지사의 개회사에 이어 문 특보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환황해권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펼쳤다.

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종착역은 '핵무기 없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평화 유지 △평화 만들기 △평화 구축 △한반도 비핵화 등 4가지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문 특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과 그에 따른 평화경제의 구체화는 도와 황해권의 미래 번영에 주는 함의도 크다"면서 "평화경제의 이행 계획은 문 정부가 계획해온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잘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도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게 쉬운 과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있을 지경학적 지형 변화에 창의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중국과의 물류 및 제조업 협력을 통해 환황해 경제권을 구축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연계시키는 것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끝으로 문 특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도와 황해권의 평화 · 번영과 직결돼 있으나 순탄하지만은 않다”며 “도민 모두가 그 극복의 견인 세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회식 이후에는 ‘남북교류 협력의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각국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특별 세션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환황해 지역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토론을 실시했다.

또 본 세션에서는 △평화: 역사문화공동체로서의 환황해 지역협력 △번영: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국제일자리 활성화 △공생: 지자체 간 대기환경 개선 협력 △공생: 지자체 간 해양오염 개선 협력 등 4개 주제에 대해 각각 발제 및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포럼 2일차인 11월 1일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부여에서 백제역사문화유적을 탐방할 예정이다.

2. 주요 기사리스트

출 처	아시아뉴스통신
일 자	2019.10.31
제 목	양승조 충남도지사, “환황해권 평화 · 번영…함께 지혜 모아야”
링 크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2007691&thread=09r02

- 31일 제5회 환황해 포럼 개최, 지방 · 민간 협력 제안
- 한 · 중 · 일 · 몽골 등 환황해권 국내 · 외 전문가 토론 · 발제 등 진행



충남도가 31일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제5회 환황해 포럼 개회식을 개최한 모습.(사진제공=충남도청)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성민기자 =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31일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제5회 환황해 포럼’ 개회식을 열고 한 · 중 · 일 · 몽골 등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환황해권 지방 · 민간 간 긴밀한 협력을 제안했다.

양 지사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한 · 중 · 일 및 몽골 전문가,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포럼은 개회식, 특별 세션, 본 세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양 지사는 “환황해 지역은 20세기 냉전의 유산이 남아있는 유일한 지역으로서 역내질서는 복잡하고 함께 풀어야 할 도전과제는 쌓이고 있다”며 “저출산 · 고령화 · 사회양극화 극복, 환경 · 보건, 대기오염 · 기후변화 대응, 다자무역질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등 국가 차원을 넘어서는 공동의 시대 과제에 대해 지역 차원의 협력과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또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환황해 포럼에 참석,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충남도청)

“환황해 포럼은 국가 대 국가 간의 외교적 한계를 넘어 지역 간 협력과 교류 증진을 통해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기 위해 출발했다”며 “그동안 포럼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지방정부와 민간의 영역에서 지난 5년간 꾸준히 머리를 맞대왔다”고 덧붙였다.양 지사는 “이번 포럼에서는 ‘인류 공생을 위한 우리 모두의 공간’을 주제로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 ▲환황해 지역 간 번영과 공생 등 크게 두 가지 분야에 집중코자 한다”며 “이 모두는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시대적 도전이고 어느 한 국가가 풀 수 있는 것이 아닌, 지혜를 모아야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양 지사의 개회사에 이어 문 특보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환황해권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펼쳤다.

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종착역은 ‘핵무기 없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평화 유지 ▲평화 만들기 ▲평화 구축 ▲한반도 비핵화 등 4가지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2. 주요 기사리스트

이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과 그에 따른 평화경제의 구체화는 도와 황해권의 미래 번영에 주는 함의도 크다”며 “평화경제의 이행 계획은 문 정부가 계획해온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잘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도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게 쉬운 과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있을 지경학적 지형 변화에 창의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중국과의 물류 및 제조업 협력을 통해 환황해 경제권을 구축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연계시키는 것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도와 황해권의 평화 · 번영과 직결돼 있으나 순탄하지만은 않다”며 “도민 모두가 그 극복의 견인 세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회식 이후에는 ‘남북교류 협력의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각국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특별 세션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환황해 지역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토론을 실시했다.

또 본 세션에서는 ▲평화: 역사문화공동체로서의 환황해 지역협력 ▲번영: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국제일자리 활성화 ▲공생: 지자체 간 대기환경 개선 협력 ▲공생: 지자체 간 해양오염 개선 협력 등 4개 주제에 대해 각각 발제 및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포럼 2일 차인 11월 1일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부여에서 백제역사문화유적을 탐방할 예정이다.

출 처	내외뉴스통신
일 자	2019.10.31
제 목	환황해 포럼 개회... 한 · 중 · 일 · 몽골 긴밀협력 제안
링 크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5523



환황해포럼 개회식(사진제공= 충남도)

[부여=내외뉴스통신] 강기동 기자= 31일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제5회 환황해 포럼' 개회식이 열렸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개회식에서 한 · 중 · 일 · 몽골 등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환황해권 지방 · 민간 간 긴밀한 협력을 제안했다.

이번 포럼은 개회식, 특별 세션, 본 세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개회식 이후 '남북교류 협력의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각국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특별 세션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환황해 지역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토론을 실시했다.

또 본 세션에서 △평화: 역사문화공동체로서의 환황해 지역협력 △번영: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국제일자리 활성화 △공생: 지자체 간 대기환경 개선 협력 △공생: 지자체 간 해양오염 개선 협력 등 4개 주제에 대해 각각 발제 및 토론을 진행했다.

포럼 2일차인 11월 1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부여에서 백제역사문화유적을 탐방할 예정이다.

2. 주요 기사리스트

출 처	금강일보
일 자	2019.10.31
제 목	“환황해권 평화 · 번영…함께 지혜 모으자”
링 크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17758#0BJz

제5회 환황해 포럼 개막... 양승조 지사, 개회사 통해 제안



31일 개막한 ‘제5회 환황해포럼’ 개회식에서 양승조 충남지사가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지방 민간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양승조 충남지사는 31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제5회 환황해 포럼’에서 한 · 중 · 일 · 몽골 등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환황해권 지방 · 민간 간 협력을 제안했다.

양 지사는 이날 열린 개회식에서 “환황해 지역은 20세기 냉전의 유산이 남아있는 유일한 지역으로서 함께 풀어야 할 도전과제가 많다”라며 “저출산 · 고령화 · 사회양극화 극복, 환경 · 보건, 대기오염 · 기후변화 대응, 다자무역질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등 공동의 시대 과제에 대해 지역 차원의 협력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포럼은 '인류 공생을 위한 우리 모두의 공간'을 주제로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 환황해 지역 간 번영과 공생 등 두 가지 분야에 집중했다"며 "이 모두는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시대적 도전이고 지혜를 모아야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이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환황해권의 미래'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남북교류 협력의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열린 포럼 특별세션에서는 각국 전문가들이 함께 한반도 평화와 환황해 지역의 항구적 평화 정착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본 세션에서는 ▲평화:역사문화공동체로서의 환황해 지역협력 ▲번영: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국제일자리 활성화 ▲공생:지자체 간 대기환경 개선 협력 ▲공생:지자체 간 해양오염 개선 협력 등 4개 주제에 대해 각각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됐다.

2. 주요 기사리스트

출 처	중도일보
일 자	2019.10.31
제 목	양승조 지사 "환황해권 평화 · 번영 지혜 모아야"
링 크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91031010012844



양승조 충남지사가 31일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열린 '제5회 환황해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양승조 충남지사가 31일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열린 '제5회 환황해 포럼' 개회식에서 환황해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방정부와 민간단체간 긴밀한 협력을 제안했다.

이날 포럼은 양 지사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한 · 중 · 일 · 몽골 전문가,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양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환황해 지역은 20세기 냉전의 유산이 남아있는 유일한 지역으로서 역내질서는 복잡하고, 함께 풀어야 할 도전과제는 쌓이고 있다"며 "저출산 · 고령화 · 사회양극화 극복, 환경 · 보건, 대기오염 · 기후변화 대응, 다자무역질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등 국가 차원을 넘어서는 공동의 시대 과제에 대해 지역 차원의 협력과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환황해 포럼은 국가 대 국가 간의 외교적 한계를 넘어 지역 간 협력과 교류 증진을 통해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기 위해 출발했다"며 "그동안 포럼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지방정부와 민간의 영역에서 지난 5년간 꾸준히 머리를 맞대왔다"고 덧붙였다.

양 지사는 "이번 포럼에서는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 환황해 지역 간 번영과 공생 등 2개 분야에 집중코자 한다"며 "이 모두는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시대적 도전이고, 지혜를 모아야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개회사에 이어 문 특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환황해권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펼쳤다.
인기 콘텐츠

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종착역은 핵무기 없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평화 유지 ▲평화 만들기 ▲평화 구축 ▲한반도 비핵화 등 4가지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에는 '남북교류 협력의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각국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특별 세션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환황해 지역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토론을 펼쳤고, 본 세션에서는 환황해 지역협력, 국제일자리 활성화 등 4개 주제에 대해 각각 발제 및 토론을 진행했다.

2. 주요 기사리스트

출 처	아시아투데이
일 자	2019.10.31
제 목	양승조 충남지사 "환황해권 평화 · 번영…함께 지혜 모아야"
링 크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1031010017943

31일 환황해 포럼서 지방 · 민간 협력 제안…한 · 중 · 일 · 몽골 등 환황해권 전문가 토론 · 발제 등 진행

내포 김관태 기자 = 양승조 충남지사는 31일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제5회 환황해 포럼' 개회식을 열고 한 · 중 · 일 · 몽골 등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환황해권 지방 · 민간 간 긴밀한 협력을 제안했다.

양승조 지사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한 · 중 · 일 및 몽골 전문가, 도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포럼은 개회식, 특별 세션, 본 세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양 지사는 "환황해 지역은 20세기 냉전의 유산이 남아있는 유일한 지역으로서 역내질서는 복잡하고 함께 풀어야 할 도전과제는 쌓이고 있다"며 "저출산 · 고령화 · 사회양극화 극복, 환경 · 보건, 대기오염 · 기후변화 대응, 다자무역질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등 국가 차원을 넘어서는 공동의 시대 과제에 대해 지역 차원의 협력과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황해 포럼은 국가 대 국가 간의 외교적 한계를 넘어 지역 간 협력과 교류 증진을 통해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기 위해 출발했다"며 "그동안 포럼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지방정부와 민간의 영역에서 지난 5년간 꾸준히 머리를 맞대왔다"고 덧붙였다.

양 지사는 "이번 포럼에서는 '인류 공생을 위한 우리 모두의 공간'을 주제로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 △환황해 지역 간 번영과 공생 등 크게 두 가지 분야에 집중코자 한다"며 "이 모두는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시대적 도전이고 어느 한 국가가 풀 수 있는 것이 아닌, 지혜를 모아야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양 지사의 개회사에 이어 문정인 특보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환황해권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펼쳤다.

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종착역은 '핵무기 없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평화 유지 △평화 만들기 △평화 구축 △한반도 비핵화 등 4가지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과 그에 따른 평화경제의 구체화는 도와 황해권의 미래 번영에 주는 함의도 크다"면서 "평화경제의 이행 계획은 문 정부가 계획해온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잘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도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게 쉬운 과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있을 지경학적 지형 변화에 창의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중국과의 물류 및 제조업 협력을 통해 환황해 경제권을 구축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연계시키는 것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 특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도와 황해권의 평화 · 번영과 직결돼 있으나 순탄하지만은 않다”며 “도민 모두가 그 극복의 견인 세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회식 이후에는 ‘남북교류 협력의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각국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특별 세션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환황해 지역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토론을 실시했다.

또 본 세션에서는 △평화: 역사문화공동체로서의 환황해 지역협력 △번영: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국제일자리 활성화 △공생: 지자체 간 대기환경 개선 협력 △공생: 지자체 간 해양오염 개선 협력 등 4개 주제에 대해 각각 발제 및 토론을 진행했다.

포럼 2일차인 11월 1일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부여에서 백제역사문화유적을 탐방할 예정이다.

2. 주요 기사리스트

출 처	아주경제
일 자	2019.10.31
제 목	양승조 충남도지사 “환황해권 평화 · 번영…함께 지혜 모아야”
링 크	https://www.ajunews.com/view/20191031095005062

- 양 지사, 31일 제5회 환황해 포럼서 지방 · 민간 협력 제안
- 한 · 중 · 일 · 몽골 등 환황해권 국내 · 외 전문가 토론 · 발제 등 진행



양승조 충남지사 ‘제5회 환황해 포럼’ 개회식을 열고, 한 · 중 · 일 · 몽골 등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지방 · 민간 간 긴밀한 협력을 제안했다. [사진=충남도제공]

양승조 충남지사는 31일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제5회 환황해 포럼’ 개회식을 열고, 한 · 중 · 일 · 몽골 등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환황해권 지방 · 민간 간 긴밀한 협력을 제안했다.

양 지사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한 · 중 · 일 및 몽골 전문가,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포럼은 개회식, 특별 세션, 본 세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개회식에서 양 지사는 "환황해 지역은 20세기 냉전의 유산이 남아있는 유일한 지역으로서 역내질서는 복잡하고, 함께 풀어야 할 도전과제는 쌓이고 있다"며 "저출산 · 고령화 · 사회양극화 극복, 환경 · 보건, 대기오염 · 기후변화 대응, 다자무역질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등 국가 차원을 넘어서는 공동의 시대 과제에 대해 지역 차원의 협력과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환황해 포럼은 국가 대 국가 간의 외교적 한계를 넘어 지역 간 협력과 교류 증진을 통해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기 위해 출발했다"며 "그동안 포럼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지방정부와 민간의 영역에서 지난 5년간 꾸준히 머리를 맞대왔다"고 덧붙였다.

양 지사는 "이번 포럼에서는 '인류 공생을 위한 우리 모두의 공간'을 주제로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 △환황해 지역 간 번영과 공생 등 크게 두 가지 분야에 집중코자 한다"며 "이 모두는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시대적 도전이고 어느 한 국가가 풀 수 있는 것이 아닌, 지혜를 모아야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 지사의 개회사에 이어 문 특보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환황해권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펼쳤다.

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종착역은 '핵무기 없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평화 유지 △평화 만들기 △평화 구축 △한반도 비핵화 등 4가지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문 특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과 그에 따른 평화경제의 구체화는 도와 황해권의 미래 번영에 주는 함의도 크다"면서 "평화경제의 이행 계획은 문 정부가 계획해온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잘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도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게 쉬운 과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있을 지경학적 지형 변화에 창의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중국과의 물류 및 제조업 협력을 통해 환황해 경제권을 구축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연계시키는 것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끝으로 문 특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도와 황해권의 평화 · 번영과 직결돼 있으나 순탄하지만은 않다"며 "도민 모두가 그 극복의 견인 세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회식 이후에는 '남북교류 협력의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각국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특별 세션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환황해 지역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토론을 실시했다.

또 본 세션에서는 △평화: 역사문화공동체로서의 환황해 지역협력 △번영: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국제일자리 활성화 △공생: 지자체 간 대기환경 개선 협력 △공생: 지자체 간 해양오염 개선 협력 등 4개 주제에 대해 각각 발제 및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포럼 2일차인 11월 1일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부여에서 백제역사문화유적을 탐방할 예정이다.

2. 주요 기사리스트

출 처	당진신문
일 자	2019.10.31
제 목	양승조 지사 “환황해권 평화 · 번영…함께 지혜 모아야”
링 크	http://www.idj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06619

31일 제5회 환황해 포럼서 지방 · 민간 협력 제안
한 · 중 · 일 · 몽골 등 환황해권 국내 · 외 전문가 토론 · 발제 등 진행



[당진신문] 양승조 충남지사는 31일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제5회 환황해 포럼’ 개회식을 열고, 한 · 중 · 일 · 몽골 등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환황해권 지방 · 민간 간 긴밀한 협력을 제안했다.

양 지사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한 · 중 · 일 및 몽골 전문가,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포럼은 개회식, 특별 세션, 본 세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개회식에서 양 지사는 “환황해 지역은 20세기 냉전의 유산이 남아있는 유일한 지역으로서 역내질서는 복잡하고, 함께 풀어야 할 도전과제는 쌓이고 있다”며 “저출산 · 고령화 · 사회양극화 극복, 환경 · 보건, 대기오염 · 기후변화 대응, 다자무

역질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등 국가 차원을 넘어서는 공동의 시대 과제에 대해 지역 차원의 협력과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환황해 포럼은 국가 대 국가 간의 외교적 한계를 넘어 지역 간 협력과 교류 증진을 통해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기 위해 출발했다"며 "그동안 포럼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지방정부와 민간의 영역에서 지난 5년간 꾸준히 머리를 맞대왔다"고 덧붙였다.

양 지사는 "이번 포럼에서는 '인류 공생을 위한 우리 모두의 공간'을 주제로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 △환황해 지역 간 번영과 공생 등 크게 두 가지 분야에 집중코자 한다"며 "이 모두는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시대적 도전이고 어느 한 국가가 풀 수 있는 것이 아닌, 지혜를 모아야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 지사의 개회사에 이어 문 특보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환황해권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펼쳤다.

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종착역은 '핵무기 없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평화 유지 △평화 만들기 △평화 구축 △한반도 비핵화 등 4가지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문 특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과 그에 따른 평화경제의 구체화는 도와 황해권의 미래 번영에 주는 함의도 크다"면서 "평화경제의 이행 계획은 문 정부가 계획해온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잘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도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게 쉬운 과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있을 지경학적 지형 변화에 창의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중국과의 물류 및 제조업 협력을 통해 환황해 경제권을 구축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연계시키는 것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끝으로 문 특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도와 황해권의 평화 · 번영과 직결돼 있으나 순탄하지만은 않다"며 "도민 모두가 그 극복의 견인 세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회식 이후에는 '남북교류 협력의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각국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특별 세션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환황해 지역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토론을 실시했다.

또 본 세션에서는 △평화: 역사문화공동체로서의 환황해 지역협력 △번영: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국제일자리 활성화 △공생: 지자체 간 대기환경 개선 협력 △공생: 지자체 간 해양오염 개선 협력 등 4개 주제에 대해 각각 발제 및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포럼 2일차인 11월 1일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부여에서 백제역사문화유적을 탐방할 예정이다.

2. 주요 기사리스트

출 처	에너지경제
일 자	2019.10.31
제 목	한 · 중 · 일 · 몽골 등 환황해권 국내 · 외 전문가 토론 · 발제 등 진행
링 크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461305

양승조 충남지사, 31일 제5회 환황해 포럼서 지방 · 민간 협력 제안

[내포=에너지경제신문 전병찬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는 31일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제5회 환황해 포럼' 개회식을 열고, 한 · 중 · 일 · 몽골 등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환황해권 지방 · 민간 간 긴밀한 협력을 제안했다.

양 지사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한 · 중 · 일 및 몽골 전문가,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포럼은 개회식, 특별 세션, 본 세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개회식에서 양 지사는 "환황해 지역은 20세기 냉전의 유산이 남아있는 유일한 지역으로서 역내질서는 복잡하고, 함께 풀어야 할 도전과제는 쌓이고 있다"며 "저출산 · 고령화 · 사회양극화 극복, 환경 · 보건, 대기오염 · 기후변화 대응, 다자무역질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등 국가 차원을 넘어서는 공동의 시대 과제에 대해 지역 차원의 협력과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환황해 포럼은 국가 대 국가 간의 외교적 한계를 넘어 지역 간 협력과 교류 증진을 통해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기 위해 출발했다"며 "그동안 포럼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지방정부와 민간의 영역에서 지난 5년간 꾸준히 머리를 맞대왔다"고 덧붙였다.

양 지사는 "이번 포럼에서는 '인류 공생을 위한 우리 모두의 공간'을 주제로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 △환황해 지역 간 번영과 공생 등 크게 두 가지 분야에 집중코자 한다"며 "이 모두는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시대적 도전이고 어느 한 국가가 풀 수 있는 것이 아닌, 지혜를 모아야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 지사의 개회사에 이어 문 특보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환황해권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펼쳤다.

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종착역은 '핵무기 없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평화 유지 △평화 만들기 △평화 구축 △한반도 비핵화 등 4가지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문 특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과 그에 따른 평화경제의 구체화는 도와 황해권의 미래 번영에 주는 함의도 크다"면서 "평화경제의 이행 계획은 문 정부가 계획해온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잘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도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게 쉬운 과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있을 지경학적 지형 변화에 창의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중국과의 물류 및 제조업 협력을 통해 환황해 경제권을 구축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연계시키는 것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끝으로 문 특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도와 황해권의 평화 · 번영과 직결돼 있으나 순탄하지만은 않다"며 "도민 모두가 그 극복의 견인 세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회식 이후에는 '남북교류 협력의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각국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특별 세션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환황해 지역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토론을 실시했다.

또 본 세션에서는 △평화: 역사문화공동체로서의 환황해 지역협력 △번영: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국제일자리 활성화 △공생: 지자체 간 대기환경 개선 협력 △공생: 지자체 간 해양오염 개선 협력 등 4개 주제에 대해 각각 발제 및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포럼 2일차인 11월 1일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부여에서 백제역사문화유적을 탐방할 예정이다.

2. 주요 기사리스트

출 처	sbn뉴스
일 자	2019.10.31
제 목	【내포】양승조, “환황해권 평화 · 번영…함께 지혜 모아야”
링 크	http://www.seohaenews.net/news/article.html?no=68603#0BQk

양승조 지사, 31일 제5회 환황해 포럼서 지방 · 민간 협력 제안
한 · 중 · 일 · 몽골 등 환황해권 국내 · 외 전문가 토론 · 발제 등 진행



[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양승조 충남지사는 31일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제5회 환황해 포럼’ 개회식을 열고, 한 · 중 · 일 · 몽골 등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환황해권 지방 · 민간 간 긴밀한 협력을 제안했다.

양 지사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한 · 중 · 일 및 몽골 전문가,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포럼은 개회식, 특별 세션, 본 세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개회식에서 양 지사는 “환황해 지역은 20세기 냉전의 유산이 남아있는 유일한 지역으로서 역내질서는 복잡하고, 함께 풀어야 할 도전과제는 쌓이고 있다”며 “저출산 · 고령화 · 사회양극화 극복, 환경 · 보건, 대기오염 · 기후변화 대응, 다자무

역질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등 국가 차원을 넘어서는 공동의 시대 과제에 대해 지역 차원의 협력과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환황해 포럼은 국가 대 국가 간의 외교적 한계를 넘어 지역 간 협력과 교류 증진을 통해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기 위해 출발했다"며 "그동안 포럼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지방정부와 민간의 영역에서 지난 5년간 꾸준히 머리를 맞대왔다"고 덧붙였다.



양 지사는 "이번 포럼에서는 '인류 공생을 위한 우리 모두의 공간'을 주제로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 △환황해 지역 간 번영과 공생 등 크게 두 가지 분야에 집중코자 한다"며 "이 모두는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시대적 도전이고 어느 한 국가가 풀 수 있는 것이 아닌, 지혜를 모아야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 지사의 개회사에 이어 문 특보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환황해권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펼쳤다.

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종착역은 '핵무기 없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평화 유지 △평화 만들기 △평화 구축 △한반도 비핵화 등 4가지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문 특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과 그에 따른 평화경제의 구체화는 도와 황해권의 미래 번영에 주는 함의도 크다"면서 "평화경제의 이행 계획은 문 정부가 계획해온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잘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2. 주요 기사리스트

문 특보는 “도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게 쉬운 과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있을 지경학적 지형 변화에 창의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중국과의 물류 및 제조업 협력을 통해 환황해 경제권을 구축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연계시키는 것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끝으로 문 특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도와 황해권의 평화 · 번영과 직결돼 있으나 순탄하지만은 않다”며 “도민 모두가 그 극복의 견인 세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회식 이후에는 ‘남북교류 협력의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각국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특별 세션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환황해 지역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토론을 실시했다.

또 본 세션에서는 △평화: 역사문화공동체로서의 환황해 지역협력 △번영: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국제일자리 활성화 △공생: 지자체 간 대기환경 개선 협력 △공생: 지자체 간 해양오염 개선 협력 등 4개 주제에 대해 각각 발제 및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포럼 2일차인 11월 1일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부여에서 백제역사문화유적을 탐방할 예정이다.

출 처	대전투데이
일 자	2019.10.31
제 목	양승조 지사, “환황해권 평화 · 번영…함께 지혜 모아야”
링 크	http://www.daej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75739#09SA

양승조 충남지사는 31일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제5회 환황해 포럼’ 개회식을 열고, 한 · 중 · 일 · 몽골 등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환황해권 지방 · 민간 간 긴밀한 협력을 제안했다.

양 지사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한 · 중 · 일 및 몽골 전문가,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포럼은 개회식, 특별 세션, 본 세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개회식에서 양 지사는 “환황해 지역은 20세기 냉전의 유산이 남아있는 유일한 지역으로서 역내질서는 복잡하고, 함께 풀어야 할 도전과제는 쌓이고 있다”며 “저출산 · 고령화 · 사회양극화 극복, 환경 · 보건, 대기오염 · 기후변화 대응, 다자무역질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등 국가 차원을 넘어서는 공동의 시대 과제에 대해 지역 차원의 협력과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환황해 포럼은 국가 대 국가 간의 외교적 한계를 넘어 지역 간 협력과 교류 증진을 통해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기 위해 출발했다”며 “그동안 포럼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지방정부와 민간의 영역에서 지난 5년간 꾸준히 머리를 맞대왔다”고 덧붙였다.

양 지사는 “이번 포럼에서는 ‘인류 공생을 위한 우리 모두의 공간’을 주제로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 ▲환황해 지역 간 번영과 공생 등 크게 두 가지 분야에 집중코자 한다”며 “이 모두는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시대적 도전이고 어느 한 국가가 풀 수 있는 것이 아닌, 지혜를 모아야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 지사의 개회사에 이어 문 특보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환황해권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펼쳤다.

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종착역은 ‘핵무기 없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평화 유지 ▲평화 만들기 ▲평화 구축 ▲한반도 비핵화 등 4가지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문 특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과 그에 따른 평화경제의 구체화는 도와 황해권의 미래 번영에 주는 함의도 크다”면서 “평화경제의 이행 계획은 문 정부가 계획해온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잘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도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게 쉬운 과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있을 지경학적 지형 변화에 창의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중국과의 물류 및 제조업 협력을 통해 환황해 경제권을 구축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연계시키는 것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 주요 기사리스트

끝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도와 황해권의 평화 · 번영과 직결돼 있으나 순탄하지만은 않다”며 “도민 모두가 그 극복의 견인 세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회식 이후에는 ‘남북교류 협력의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각국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특별 세션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환황해 지역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토론을 실시했다.

또 본 세션에서는 ▲평화: 역사문화공동체로서의 환황해 지역협력 ▲번영: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국제일자리 활성화 ▲공생: 지자체 간 대기환경 개선 협력 ▲공생: 지자체 간 해양오염 개선 협력 등 4개 주제에 대해 각각 발제 및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포럼 2일차인 11월 1일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부여에서 백제역사문화유적을 탐방할 예정이다.

출 처	쿠키뉴스
일 자	2019.10.31
제 목	양승조 충남지사 “환황해권 평화 · 번영 지혜 모아야”
링 크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15154



양승조 충남지사가 31일 부여에서 열린 제5회 환황해 포럼에서 지방간 긴밀한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31일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제5회 환황해 포럼’ 개회식을 열고, 한 · 중 · 일 · 몽골 등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환황해권 지방 · 민간 간 긴밀한 협력을 제안했다.
양 지사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한 · 중 · 일 및 몽골 전문가,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포럼은 개회식, 특별 세션, 본 세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개회식에서 양 지사는 “환황해 지역은 20세기 냉전의 유산이 남아있는 유일한 지역으로서 역내질서는 복잡하고, 함께 풀어야 할 도전과제는 쌓이고 있다”며 “저출산 · 고령화 · 사회양극화 극복, 환경 · 보건, 대기오염 · 기후변화 대응, 다자무역질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등 국가 차원을 넘어서는 공동의 시대 과제에 대해 지역 차원의 협력과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 주요 기사리스트

또 "환황해 포럼은 국가 대 국가 간의 외교적 한계를 넘어 지역 간 협력과 교류 증진을 통해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기 위해 출발했다"며 "그동안 포럼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지방정부와 민간의 영역에서 지난 5년간 꾸준히 머리를 맞대왔다"고 덧붙였다.

양 지사는 "이번 포럼에서는 '인류 공생을 위한 우리 모두의 공간'을 주제로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 △환황해 지역 간 번영과 공생 등 크게 두 가지 분야에 집중코자 한다"며 "이 모두는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시대적 도전이고 어느 한 국가가 풀 수 있는 것이 아닌, 지혜를 모아야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 지사의 개회사에 이어 문 특보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환황해권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펼쳤다.

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종착역은 '핵무기 없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평화 유지 △평화 만들기 △평화 구축 △한반도 비핵화 등 4가지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문 특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과 그에 따른 평화경제의 구체화는 도와 황해권의 미래 번영에 주는 함의도 크다"면서 "평화경제의 이행 계획은 문 정부가 계획해온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잘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도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게 쉬운 과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있을 지경학적 지형 변화에 창의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중국과의 물류 및 제조업 협력을 통해 환황해 경제권을 구축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연계시키는 것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끝으로 문 특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도와 황해권의 평화 · 번영과 직결돼 있으나 순탄하지만은 않다"며 "도민 모두가 그 극복의 견인 세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회식 이후에는 '남북교류 협력의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각국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특별 세션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환황해 지역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토론을 실시했다.

또 본 세션에서는 △평화: 역사문화공동체로서의 환황해 지역협력 △번영: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국제일자리 활성화 △공생: 지자체 간 대기환경 개선 협력 △공생: 지자체 간 해양오염 개선 협력 등 4개 주제에 대해 각각 발제 및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포럼 2일차인 11월 1일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부여에서 백제역사문화유적을 탐방할 예정이다.

출 처	노컷뉴스
일 자	2019.10.31
제 목	문정인 특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환황해권 미래와 직결"
링 크	https://www.nocutnews.co.kr/news/5236347

제 5회 환황해 포럼 31일 롯데부여리조트서 개막



제 5회 환황해 포럼에서 개막 인사를 하는 양승조 충남지사(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반도평화포럼과 충남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제 5회 환황해 포럼이 31일 롯데부여리조트에서 개막해 11월 1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환황해! 인류공생을 위한 우리 모두의 공간'을 주제로 개막한 이날 포럼에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팡쿤 주한중국공사,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양승조 충남지사와 한 · 중 · 일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회식에서 양승조 충남지사는 "환황해 지역은 20세기 냉전의 유산이 남아있는 유일한 지역으로서 역내질서는 복잡하고 함께 풀어야 할 도전과제는 쌓이고 있다"며 "저출산 · 고령화 · 사회양극화 극복, 환경 · 보건, 대기오염 · 기후변화 대응, 다자무역질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등 국가 차원을 넘어서는 공동의 시대 과제에 대해 지역 차원의 협력과 노력이 절

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포럼에서는 '인류 공생을 위한 우리 모두의 공간'을 주제로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 △환황해 지역 간 번영과 공생 등 크게 두 가지 분야에 집중하고자 한다"며 "이 모두는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시대적 도전이고 어느 한 국가가 풀 수 있는 것이 아닌, 지혜를 모아야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양승조 지사의 개회사에 이어 문정인 대통령 통일안보특보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환황해권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문정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종착역은 '핵무기 없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평화 유지 △평화 만들기 △평화 구축 △한반도 비핵화 등 4가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과 그에 따른 평화경제의 구체화는 충남도와 황해권의 미래 번영에 주는 함의도 크다"며 "평화경제의 이행 계획은 문재인 정부가 계획해 온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잘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충남도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게 쉬운 과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있을 지경학적 지형 변화에 창의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중국과의 물류 및 제조업 협력을 통해 환황해 경제권을 구축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연계시키는 것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문정인 특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충남도와 황해권의 평화 번영과 직결돼 있지만순탄하지만은 않다"며 "충남도민 모두가 그 극복의 견인 세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회식 이후에는 '남북교류 협력의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각국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특별 세션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환황해 지역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토론을 실시했다.

또 본 세션에서는 △평화: 역사문화공동체로서의 환황해 지역협력 △번영: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국제일자리 활성화 △공생: 지자체 간 대기환경 개선 협력 △공생: 지자체 간 해양오염 개선 협력 등 4개 주제에 대해 각각 발제 및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포럼참석자들은 2일차인 11월 1일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부여에서 백제역사문화유적을 탐방할 예정이다.

출 처	브레이크뉴스
일 자	2019.10.31
제 목	양승조 지사, 제5회 환황해 포럼서 지방 · 민간 협력 제안
링 크	http://www.breaknews.com/688604



▲ 중국대표와 함께 한 양승조 지사 © 김정환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가 31일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제5회 환황해 포럼' 개회식을 열고, 한 · 중 · 일 · 몽골 등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환황해권 지방 · 민간 간 긴밀한 협력을 제안했다.

양 지사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한 · 중 · 일 및 몽골 전문가,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포럼은 개회식, 특별 세션, 본 세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개회식에서 양 지사는 "환황해 지역은 20세기 냉전의 유산이 남아있는 유일한 지역으로서 역내질서는 복잡하고, 함께 풀어야 할 도전과제는 쌓이고 있다"며 "저출산 · 고령화 · 사회양극화 극복, 환경 · 보건, 대기오염 · 기후변화 대응, 다자무역질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등 국가 차원을 넘어서는 공동의 시대 과제에 대해 지역 차원의 협력과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 주요 기사리스트

또 “환황해 포럼은 국가 대 국가 간의 외교적 한계를 넘어 지역 간 협력과 교류 증진을 통해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기 위해 출발했다”며 “그동안 포럼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지방정부와 민간의 영역에서 지난 5년간 꾸준히 머리를 맞대왔다”고 덧붙였다.

양 지사는 “이번 포럼에서는 ‘인류 공생을 위한 우리 모두의 공간’을 주제로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 △환황해 지역 간 번영과 공생 등 크게 두 가지 분야에 집중코자 한다”며 “이 모두는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시대적 도전이고 어느 한 국가가 풀 수 있는 것이 아닌, 지혜를 모아야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 지사의 개회사에 이어 문 특보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환황해권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펼쳤다.

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종착역은 ‘핵무기 없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평화 유지 △평화 만들기 △평화 구축 △한반도 비핵화 등 4가지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문 특보는 “도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게 쉬운 과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있을 지경학적 지형 변화에 창의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중국과의 물류 및 제조업 협력을 통해 환황해 경제권을 구축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연계시키는 것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회식 이후에는 ‘남북교류 협력의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각국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특별 세션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환황해 지역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토론을 실시했다.

또 본 세션에서는 △평화: 역사문화공동체로서의 환황해 지역협력 △번영: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국제일자리 활성화 △공생: 지자체 간 대기환경 개선 협력 △공생: 지자체 간 해양오염 개선 협력 등 4개 주제에 대해 각각 발제 및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포럼 2일차인 11월 1일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부여에서 백제역사문화유적을 탐방할 예정이다.

출 처	중부매일
일 자	2019.10.31
제 목	양승조 충남지사 "환황해권 평화 · 번영…함께 지혜 모아야"
링 크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6032

제5회 환황해 포럼서 지방 · 민간 협력 제안



양승조 충남지사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는 31일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제5회 환황해 포럼' 개회식을 열고 한 · 중 · 일 · 몽골 등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환황해권 지방 · 민간 간 긴밀한 협력을 제안했다.

양 지사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한 · 중 · 일 및 몽골 전문가,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포럼은 개회식, 특별 세션, 본 세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개회식에서 양 지사는 "환황해 지역은 20세기 냉전의 유산이 남아있는 유일한 지역으로서 역내질서는 복잡하고 함께 풀어야 할 도전과제는 쌓이고 있다"며 "저출산 · 고령화 · 사회양극화 극복, 환경 · 보건, 대기오염 · 기후변화 대응, 다자무역

2. 주요 기사리스트

질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등 국가 차원을 넘어서는 공동의 시대 과제에 대해 지역 차원의 협력과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환황해 포럼은 국가 대 국가 간의 외교적 한계를 넘어 지역 간 협력과 교류 증진을 통해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기 위해 출발했다"며 "그동안 포럼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지방정부와 민간의 영역에서 지난 5년간 꾸준히 머리를 맞대왔다"고 덧붙였다.

양 지사는 "이번 포럼에서는 '인류 공생을 위한 우리 모두의 공간'을 주제로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 환황해 지역 간 번영과 공생 등 크게 두 가지 분야에 집중코자 한다"며 "이 모두는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시대적 도전이고 어느 한 국가가 풀 수 있는 것이 아닌, 지혜를 모아야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 지사의 개회사에 이어 문 특보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환황해권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펼쳤다.

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종착역은 '핵무기 없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평화 유지 ▶평화 만들기 ▶평화 구축 ▶한반도 비핵화 등 4가지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문 특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과 그에 따른 평화경제의 구체화는 도와 황해권의 미래 번영에 주는 함의도 크다"면서 "평화경제의 이행 계획은 문 정부가 계획해온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잘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도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게 쉬운 과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있을 지경학적 지형 변화에 창의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중국과의 물류 및 제조업 협력을 통해 환황해 경제권을 구축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연계시키는 것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끝으로 문 특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도와 황해권의 평화 · 번영과 직결돼 있으나 순탄하지만은 않다"며 "도민 모두가 그 극복의 견인 세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회식 이후에는 '남북교류 협력의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각국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특별 세션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환황해 지역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토론을 실시했다.

또 본 세션에서는 ▶평화: 역사문화공동체로서의 환황해 지역협력 ▶번영: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국제일자리 활성화 ▶공생: 지자체 간 대기환경 개선 협력 ▶공생: 지자체 간 해양오염 개선 협력 등 4개 주제에 대해 각각 발제 및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포럼 2일차인 1일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부여에서 백제역사문화유적을 탐방할 예정이다.

출 처	불교공뉴스
일 자	2019.10.31
제 목	충남도, 환황해포럼
링 크	http://www.bzer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17927



양승조 충남지사는 31일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제5회 환황해 포럼' 개회식을 열고, 한 · 중 · 일 · 몽골 등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환황해권 지방 · 민간 간 긴밀한 협력을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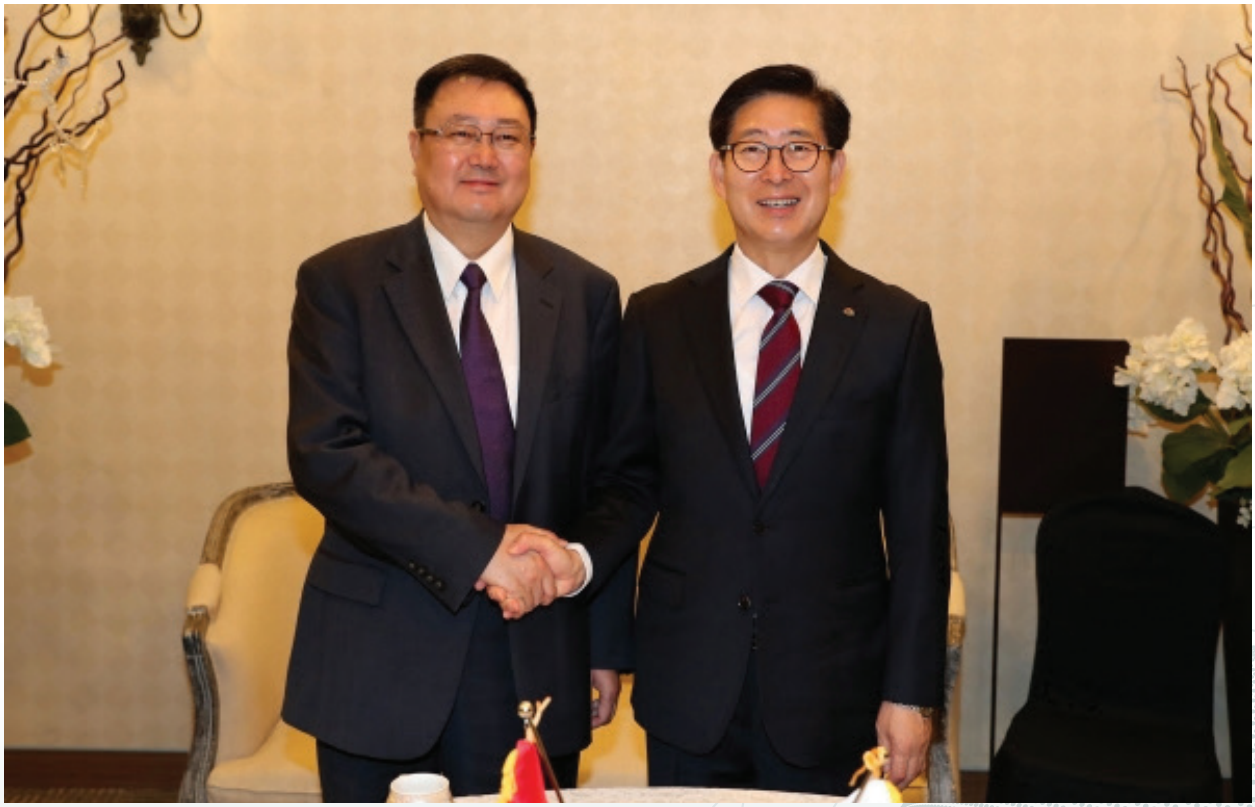
2. 주요 기사리스트





양 지사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한 · 중 · 일 및 몽골 전문가,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포럼은 개회식, 특별 세션, 본 세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개회식에서 양 지사는 “환황해 지역은 20세기 냉전의 유산이 남아있는 유일한 지역으로서 역내질서는 복잡하고, 함께 풀어야 할 도전과제는 쌓이고 있다”며 “저출산 · 고령화 · 사회양극화 극복, 환경 · 보건, 대기오염 · 기후변화 대응, 다자무

2. 주요 기사리스트

역질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등 국가 차원을 넘어서는 공동의 시대 과제에 대해 지역 차원의 협력과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환황해 포럼은 국가 대 국가 간의 외교적 한계를 넘어 지역 간 협력과 교류 증진을 통해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기 위해 출발했다"며 "그동안 포럼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지방정부와 민간의 영역에서 지난 5년간 꾸준히 머리를 맞대왔다"고 덧붙였다.

양 지사는 "이번 포럼에서는 '인류 공생을 위한 우리 모두의 공간'을 주제로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 △환황해 지역 간 번영과 공생 등 크게 두 가지 분야에 집중코자 한다"며 "이 모두는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시대적 도전이고 어느 한 국가가 풀 수 있는 것이 아닌, 지혜를 모아야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 지사의 개회사에 이어 문 특보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환황해권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펼쳤다.

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종착역은 '핵무기 없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평화 유지 △평화 만들기 △평화 구축 △한반도 비핵화 등 4가지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문 특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과 그에 따른 평화경제의 구체화는 도와 황해권의 미래 번영에 주는 함의도 크다"면서 "평화경제의 이행 계획은 문 정부가 계획해온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잘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도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게 쉬운 과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있을 지경학적 지형 변화에 창의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중국과의 물류 및 제조업 협력을 통해 환황해 경제권을 구축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연계시키는 것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끝으로 문 특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도와 황해권의 평화 · 번영과 직결돼 있으나 순탄하지만은 않다"며 "도민 모두가 그 극복의 견인 세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회식 이후에는 '남북교류 협력의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각국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특별 세션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환황해 지역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토론을 실시했다.

또 본 세션에서는 △평화: 역사문화공동체로서의 환황해 지역협력 △번영: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국제일자리 활성화 △공생: 지자체 간 대기환경 개선 협력 △공생: 지자체 간 해양오염 개선 협력 등 4개 주제에 대해 각각 발제 및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포럼 2일차인 11월 1일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부여에서 백제역사문화유적을 탐방할 예정이다.

출 처	충청뉴스
일 자	2019.10.31
제 목	양승조 지사, “환황해권 평화 · 번영 지혜 모아야”
링 크	http://www.c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48

31일 제5회 환황해 포럼서 지방 · 민간 협력 제안
한 · 중 · 일 · 몽골 등 환황해권 국내 · 외 전문가 토론 · 발제 등 진행

양승조 충남지사는 31일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제5회 환황해 포럼’ 개회식을 열고, 한 · 중 · 일 · 몽골 등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환황해권 지방 · 민간 간 긴밀한 협력을 제안했다.



제5회 환황해 포럼 개회식에서 양승조 지사

양 지사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한 · 중 · 일 및 몽골 전문가,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포럼은 개회식, 특별 세션, 본 세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2. 주요 기사리스트

이날 개회식에서 양 지사는 “환황해 지역은 20세기 냉전의 유산이 남아있는 유일한 지역으로서 역내질서는 복잡하고, 함께 풀어야 할 도전과제는 쌓이고 있다”며 “저출산 · 고령화 · 사회양극화 극복, 환경 · 보건, 대기오염 · 기후변화 대응, 다자무역질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등 국가 차원을 넘어서는 공동의 시대 과제에 대해 지역 차원의 협력과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환황해 포럼은 국가 대 국가 간의 외교적 한계를 넘어 지역 간 협력과 교류 증진을 통해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기 위해 출발했다”며 “그동안 포럼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지방정부와 민간의 영역에서 지난 5년간 꾸준히 머리를 맞대왔다”고 덧붙였다.

양 지사는 “이번 포럼에서는 ‘인류 공생을 위한 우리 모두의 공간’을 주제로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 △환황해 지역 간 번영과 공생 등 크게 두 가지 분야에 집중코자 한다”며 “이 모두는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시대적 도전이고 어느 한 국가가 풀 수 있는 것이 아닌, 지혜를 모아야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 지사의 개회사에 이어 문 특보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환황해권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펼쳤다.

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종착역은 ‘핵무기 없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평화 유지 △평화 만들기 △평화 구축 △한반도 비핵화 등 4가지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문 특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과 그에 따른 평화경제의 구체화는 도와 황해권의 미래 번영에 주는 함의도 크다”면서 “평화경제의 이행 계획은 문 정부가 계획해온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잘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도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게 쉬운 과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있을 지경학적 지형 변화에 창의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중국과의 물류 및 제조업 협력을 통해 환황해 경제권을 구축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연계시키는 것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끝으로 문 특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도와 황해권의 평화 · 번영과 직결돼 있으나 순탄하지만은 않다”며 “도민 모두가 그 극복의 견인 세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회식 이후에는 ‘남북교류 협력의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각국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특별 세션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환황해 지역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토론을 실시했다.

또 본 세션에서는 △평화: 역사문화공동체로서의 환황해 지역협력 △번영: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국제일자리 활성화 △공생: 지자체 간 대기환경 개선 협력 △공생: 지자체 간 해양오염 개선 협력 등 4개 주제에 대해 각각 발제 및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포럼 2일차인 11월 1일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부여에서 백제역사문화유적을 탐방할 예정이다.

출 처	디트뉴스24
일 자	2019.10.31
제 목	양승조, “환황해권 평화 · 번영…함께 지혜 모아야”
링 크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62304

31일 제5회 환황해 포럼서 지방 · 민간 협력 제안
한 · 중 · 일 · 몽골 등 환황해권 국내 · 외 전문가 토론 · 발제 등 진행



양승조 충남지사는 31일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제5회 환황해 포럼’ 개회식을 열고, 한 · 중 · 일 · 몽골 등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환황해권 지방 · 민간 간 긴밀한 협력을 제안했다.

양 지사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한 · 중 · 일 및 몽골 전문가,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포럼은 개회식, 특별 세션, 본 세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개회식에서 양 지사는 “환황해 지역은 20세기 냉전의 유산이 남아있는 유일한 지역으로서 역내질서는 복잡하고, 함께 풀어야 할 도전과제는 쌓이고 있다”며 “저출산 · 고령화 · 사회양극화 극복, 환경 · 보건, 대기오염 · 기후변화 대응, 다자무

2. 주요 기사리스트

역질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등 국가 차원을 넘어서는 공동의 시대 과제에 대해 지역 차원의 협력과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포럼에서는 '인류 공생을 위한 우리 모두의 공간'을 주제로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 △환황해 지역 간 번영과 공생 등 크게 두 가지 분야에 집중코자 한다"며 "이 모두는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시대적 도전이고 어느 한 국가가 풀 수 있는 것이 아닌, 지혜를 모아야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개회사에 이어 문정인 특보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환황해권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펼쳤다.

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종착역은 '핵무기 없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평화 유지 △평화 만들기 △평화 구축 △한반도 비핵화 등 4가지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과 그에 따른 평화경제의 구체화는 도와 황해권의 미래 번영에 주는 함의도 크다"면서 "평화경제의 이행 계획은 문 정부가 계획해온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잘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도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게 쉬운 과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있을 지경학적 지형 변화에 창의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중국과의 물류 및 제조업 협력을 통해 환황해 경제권을 구축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연계시키는 것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끝으로 문 특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도와 황해권의 평화 · 번영과 직결돼 있으나 순탄하지만은 않다"며 "도민 모두가 그 극복의 견인 세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회식 이후에는 '남북교류 협력의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각국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특별 세션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환황해 지역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토론을 실시했다.

또 본 세션에서는 △평화: 역사문화공동체로서의 환황해 지역협력 △번영: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국제일자리 활성화 △공생: 지자체 간 대기환경 개선 협력 △공생: 지자체 간 해양오염 개선 협력 등 4개 주제에 대해 각각 발제 및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포럼 2일차인 11월 1일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부여에서 백제역사문화유적을 탐방할 예정이다.

출 처	대전일보
일 자	2019.10.31
제 목	"환황해권 평화 · 번영위해 함께 지혜 모아야"
링 크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394204

양승조 지사, 환황해 포럼서 지방 · 민간 협력 제안



31일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열린 제5회 한황해 포럼 개회식에서 양승조 충남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양승조 충남지사는 31일 한 · 중 · 일 · 몽골 등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환황해권 지방 · 민간 간 긴밀한 협력을 제안했다.

양 지사는 이날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열린 '제5회 환황해 포럼' 개회식에서 "환황해 지역은 저출산 · 고령화 · 사회양극화 극복, 환경 · 보건, 대기오염 · 기후변화 대응, 다자무역질서 등 국가 차원을 넘어서는 공동의 시대 과제에 대해 지역 차원의 협력과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환황해 포럼은 국가 대 국가 간의 외교적 한계를 넘어 지역 간 협력과 교류 증진을 통해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기 위해 출발했다"며 "그동안 포럼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지방정부와 민간의 영역에서 지난 5년간 꾸준

히 머리를 맞대 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환황해권의 미래'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종착역은 핵무기 없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이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평화 유지 △평화 만들기 △평화 구축 △한반도 비핵화 등 4가지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문 특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과 그에 따른 평화경제의 구체화는 도와 황해권의 미래 번영에 주는 함의도 크다"면서 "평화경제의 이행 계획은 문 정부가 계획해 온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잘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도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게 쉬운 과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있을 지경학적 지형 변화에 창의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중국과의 물류 및 제조업 협력을 통해 환황해 경제권을 구축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연계시키는 것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회식 이후에는 '남북교류 협력의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각국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특별 세션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환황해 지역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토론을 실시했다.

출 처	충청일보
일 자	2019.10.31
제 목	"환황해권 평화 · 번영 함께 지혜 모아야"
링 크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4312

양승조 지사, 5회 포럼서 강조
4개국 전문가들과 토론 등 진행

[내포=충청일보 박보성기자] '5회 환황해 포럼'이 31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환황해 인류 공생을 위한 우리 모두의 공간'을 주제로 열렸다.

충남도가 주최하고 한반도평화포럼 · 충남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포럼엔 이수훈 전 주일대사, 팡쿤 주한중국공사,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양승조 충남지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양 지사는 개회사에서 "남북통일의 경제적 편익이 1경4451조로 통일에 드는 비용의 3배가 넘는다는 통계치가 있다"며 "다양한 주체들이 힘을 모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자"고 말했다.

이어 "이번 포럼에서 '인류 공생을 위한 우리 모두의 공간'을 주제로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 △환황해 지역 간 번영과 공생 등 크게 두 가지 분야에 집중코자 한다"며 "이 모두는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시대적 도전이고 어느 한 국가가 풀 수 있는 것이 아닌, 지혜를 모아야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특보는 31일 기조연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도 내년 대선에서 당선돼야 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국민 불만을 잠재워야 하는 만큼 두 지도자 모두 대타결 의사가 있다고 본다"며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 미국도 그에 맞춰 제재를 완전히 풀어주는 일괄 타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최소한의 핵 억지력 구축을 위해 한미동맹을 필요로 하지만 거기에 안주하다 보면 항구적인 평화가 어렵다"며 "문재인 정부는 안보 불안을 넘어서기 위해 'peace keeping'(평화 유지)을 넘어서 'peace making'(평화 만들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축사에서 "손흥민 선수 평양 통제 논란에 이어 금강산 관광 시설과 관련한 갈등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협상의 핵심은 역지사지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못박았다.

이어 "북한은 우리가 소유하는 국가가 아니며 협상의 상대"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경제 전략,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켜 나가자"고 역설했다.

주요 인사들의 환영사와 기조연설에 이어 '남북교류 협력의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특별 세션이 열려 한 · 중 · 일 · 몽골 등 4개국 전문가들이 남북교류 협력과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 정착 분위기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2. 주요 기사리스트

출 처	충남일보
일 자	2019.10.31
제 목	충남도 환황해권 포럼 양 지사 "평화 · 번영 함께 지혜 모아야"
링 크	http://www.chungna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18909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는 31일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제5회 환황해 포럼' 개회식을 열고 한 · 중 · 일 · 몽골 등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환황해권 지방 · 민간 간 긴밀한 협력을 제안했다.

도에 따르면 양 지사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한 · 중 · 일 및 몽골 전문가,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포럼은 개회식, 특별 세션, 본 세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개회식에서 양 지사는 "환황해 지역은 20세기 냉전의 유산이 남아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서 역내 질서는 복잡하고 함께 풀어야 할 도전 과제는 쌓이고 있다"며 "저출산 · 고령화 · 사회양극화 극복, 환경 · 보건, 대기오염 · 기후변화 대응, 다자무역질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등 국가 차원을 넘어서는 공동의 시대 과제에 대해 지역 차원의 협력과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황해 포럼은 국가 대 국가 간의 외교적 한계를 넘어 지역 간 협력과 교류 증진을 통해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기 위해 출발했다"며 "그동안 포럼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지방정부와 민간의 영역에서 지난 5년간 꾸준히 머리를 맞대 왔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이번 포럼에서는 '인류 공생을 위한 우리 모두의 공간'을 주제로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 △환황해 지역 간 번영과 공생 등 크게 두 가지 분야에 집중코자 한다"며 "이 모두는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시대적 도전이고 어느 한 국가가 풀 수 있는 것이 아닌 지혜를 모아야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양 지사의 개회사에 이어 문 특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환황해권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했다. 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종착역은 '핵무기 없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평화 유지 △평화 만들기 △평화 구축 △한반도 비핵화 등 4가지 전략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과 그에 따른 평화경제의 구체화는 도와 황해권의 미래 번영에 주는 함의도 크다"며 "평화경제의 이행 계획은 문 정부가 계획해 온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잘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도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게 쉬운 과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있을 지경학적 지형 변화에 창의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중국과의 물류 및 제조업 협력을 통해 환황해 경제권을 구축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연계시키는 것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특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도와 황해권의 평화 · 번영과 직결돼 있으나 순탄하지만은 않다"며 "도민 모두가 그 극복의 견인 세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회식 이후에는 '남북교류 협력의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각국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특별 세션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환황해 지역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토론을 벌였다.

본 세션에서는 △평화: 역사문화공동체로서의 환황해 지역협력 △번영: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국제일자리 활성화 △공생: 지자체 간 대기환경 개선 협력 △공생: 지자체 간 해양오염 개선 협력 등 4개 주제에 대해 각각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포럼 2일차인 11월 1일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부여에서 백제역사 문화유적을 탐방할 예정이다.

출 처	충청투데이
일 자	2019.11.01
제 목	양승조 지사 “환황해권 번영 함께 지혜 모아야”
링 크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2651

양승조 지사 “지방 · 민간 협력”

[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충남도는 양승조 지사가 31일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열린 ‘제5회 환황해 포럼’ 개회식에 참석해 한 · 중 · 일 · 몽골 등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환황해권 지방 · 민간간 긴밀한 협력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양 지사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한 · 중 · 일 및 몽골 전문가, 도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포럼은 개회식, 특별 세션, 본 세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개회식에서 양 지사는 “환황해 지역은 20세기 냉전의 유산이 남아있는 유일한 지역으로서 역내질서는 복잡하고, 함께 풀어야 할 도전과제는 쌓이고 있다”며 “이번 포럼에서는 ‘인류 공생을 위한 우리 모두의 공간’을 주제로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 △환황해 지역 간 번영과 공생 등 크게 두 가지 분야에 집중코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모두는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시대적 도전이고 어느 한 국가가 풀 수 있는 것이 아닌, 지혜를 모아야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양 지사의 개회사에 이어 문 특보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환황해권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펼쳤다.

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종착역은 ‘핵무기 없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평화 유지 △평화 만들기 △평화 구축 △한반도 비핵화 등 4가지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또 본 세션에서는 △평화:역사문화공동체로서의 환황해 지역협력 △번영: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국제일자리 활성화 △공생:지자체 간 대기환경 개선 협력 △공생:지자체 간 해양오염 개선 협력 등 4개 주제에 대해 각각 발제 및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포럼 2일차인 11월 1일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부여에서 백제역사문화유적을 탐방할 예정이다.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출 처	sbn뉴스
일 자	2019.11.02
제 목	【영상】양승조 충남지사, “환황해권 번영・공생…협력・노력 절실”
링 크	http://www.seohaenews.net/news/article.html?no=68818#0BQk

[sbn뉴스=서천] sbn서해방송 = 양승조 충남지사가 환황해권의 번영과 공생을 위해서는 환황해 지역 차원의 협력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지사는 지난달 31일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열린 ‘제5회 환황해 포럼’ 개회식에서 한 · 중 · 일 · 몽골 등 환황해 지역이 마주하고 있는 공동의 시대 과제에 대해 지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인류 공생을 위한 우리 모두의 공간’을 주제로 한반도 평화와 환황해 지역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환황해 지역은 현재 저출산 · 고령화 · 사회양극화 극복, 환경 · 보건, 대기오염 · 기후변화 대응, 다자무역질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등 국가 차원을 넘어서는 공동의 시대 과제에 대해 지역 차원의 협력과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 환황해 지역 간 번영과 공생 등은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시대적 도전”이라며, “어느 한 국가가 풀 수 있는 것이 아닌, 지혜를 모아야만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환황해 포럼은 국가 대 국가 간의 외교적 한계를 넘어 지역 간 협력과 교류 증진을 통해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개최돼왔습니다.



제5회
환황해포럼
5th Pan-Yellow Sea Forum

제5회 환황해포럼 사무국

사무국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6 용비어천가 733호

이메일 pysf2019@gmail.com 전화번호 02-707-0615 / 02-3669-3099

주최 | 충청남도 주관 | 한반도평화포럼 Korea Peace Forum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후원 | 외교부